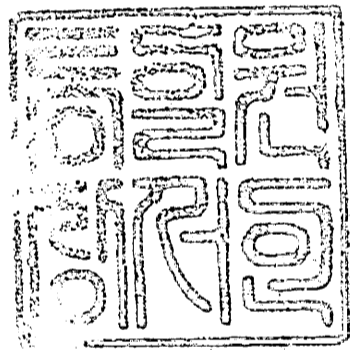


東·西獨 統合關聯資料(II)

1991. 1



統 一 院

이 資料集은 제 1 집 (1990. 8)에 이어 統一問題
연구를 위한 參考資料로 活用하기 위해 主要 中央日刊紙
가 다룬 東·西獨 統一에 關한 主要記事, 社說, 칼럼
및 企劃記事를 內容別로 編輯한 것임.

目 次

I. 獨逸 統一	2
1. 意義와 展望	3
2. 統獨 現場	11
3. 統獨의 主役들	19
4. 「統獨」에 대한 各國의 反應	22
II. 統獨關聯 企劃記事	28
1. 하나의 獨逸(再編되는 國際秩序 診斷)	29
2. 새 獨逸(오데르서 라인江까지)	35
3. 獨逸 다시 태어난다(45年만의 統一現場)	41
4. 하나의 獨逸	49
5. 새 獨逸 誕生	56
6. 統一獨逸時代의 開幕	61
7. 巨大獨逸의 탄생	67
III. 統獨 이후 獨逸의 變化像	73
IV. 全獨 總選	89
V. 獨逸統一과 韓半島	100

I. 獨 逸 統 一

1. 意義와 展望

- 45년 5월 7일—나치獨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
- 45년 7월 17일~ 8월 2일—포츠담회담, 독일의 분할통치를 결정
- 49년 5월 23일—西獨(독일연방공화국) 성립
- 49년 10월 7일—東獨(독일민주공화국) 성립
- 52년 5월 26일—美-英-佛이 西獨과 독일조약체결, 독일통일 및 베를린의 지위변경등에 관한 권한유보
- 61년 8월 13일—東獨이 베를린에 장벽구축
- 72년 6월 3일—베를린의 지위를 결정한 베를린협정발효
- 72년 12월 21일—東西獨기본조약체결
- 73년 9월 18일—東西獨 유엔동시가입
- 87년 9월 7일—에리히 호네커 東獨국가평의회회장, 西獨공식방문
- 89년 8월 19일—東獨人들, 東獨탈출시작
- " 10월 7일—東獨건국40주년기념일에 反정부시위발발
- " 10월 18일—호네커, 의장직사임
- " 11월 9일—에곤 크렌츠 東獨국가평의회회장, 베를린장벽개방선언

東-西獨관계 日誌

- " 12월 3일—東獨공산당, 일당독재포기 및 다당제자유총선발표
- " 12월 19일—헬무트 콜 西獨총리와 한스 모드로프 東獨총리, 東獨드레스덴에서 회담
- 90년 3월 18일—東獨최초의 자유총선에서 기독교민주당(CDU) 압승
- " 4월 12일—로타르 드 메지에르 CDU총재를 총리로 한 東獨연립내각출범
- " 4월 24일—西獨본에서 콜-드 메지에르 東西獨총리회담
- " 5월 5일—본에서 제 1차 「2+4」회의
- " 5월 18일—동서독재무장관, 통화-경제-사회통합조약에 조인
- " 6월 22일—東베를린에서 제 2차 「2+4」회의
- " 7월 1일—동서독 통화-경제-사회통합發効
- " 8월 31일—동서독, 통일조약에 조인
- " 9월 12일—모스크바에서 제 4차 「2+4」회의 동서독 통일에 대한 최종규정조약에 조인
- " 9월 20일—東獨의회와 西獨下院, 통일조약비준
- " 9월 21일—西獨上院, 통일조약 최종비준으로 조약發効
- " 10월 3일—東獨의 西獨편입으로 통일독일탄생

세 계 일 보

90. 9. 14

7개월간의 '2+4' 회담을 거쳐 12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독일문제의 최종타결에 관한 조약'은 독일의 전후처리문제를 완전히 마무리지어 유럽에서 전후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문서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달 3일 정치통합과 함께 출범한 통일독일은 이 조약의 체결로 완전한 주권을 보장받는 한편 전승 4개국은 독일문제에 대한 유보권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독일통일과 관련, 안전장치의 보장을 요구해온 소련은 앞으로 통일독일과 양국친선우호조약, 소련군주둔조약, 소련군철수조약, 장기경제기술조약 등을 맺게 되는데 소련군의 철수는 오는 94년까지 이뤄지도록 돼 있다.

다음은 '2+4' 협정의 요지이다.

〈편집자〉

전 문

1. 동·서독과 미·소·영·프 등 6개국은 베를린과 독일에 대한 전승 4개국의 권리와 책임을 고려하고 민족의 평등과 자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데 바탕을 둔 국가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다져나갈 것을 결의한다.

1. 6개국은 헬싱키 최종문서의 원칙이 유럽의 평화질서 건설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1. 6개국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틀 안에서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일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

1. 6개국은 통일독일이 최종적인 국경을 가진 국가로서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1조(독일의 영역) 1. 통일독일은 동·서독과 베를린 전체를 포함하며 국경은 현재의 동독과 서독을 국경으로 한다.

1. 동독과 폴란드는 조약을 통해 양국간의 현 국경을 확인한다.

1. 동독은 장래에도 타국에 대한 영토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

1. 동·서독은 동독의 헌법에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항도 포함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제2조(무력 불행사) 1. 통독은 헌법과 유엔헌장이 합치하는 경우를 빼고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통독은 국가간의 평화관계를 저해하려는

의도를 가졌거나 그러한 의도 아래 수행된 행위, 특히 침략전쟁 준비 등은 위헌이며 응징해야 할 위반행위를 헌법에 명시한다.

제3조(방위력) 1. 통독 정부는 핵, 생물·화학무기를 제조, 보유, 사용하지 않는다.

1. 서독은 동독과의 합의 아래 유럽배치 재래식전력(CFE) 감축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서독 정부는 제1차 CFE조약 발효와 함께 통독의 전력감축을 시작, 3~4년 안에 병력을 37만명 선까지 줄인다.'

제4조(동독주둔 소련군의 철수)

1. 동·서독 정부와 소련은 동독과 소련이 현재 동독과 베를린에 있는 소련군의 주둔조건과 기간, 철수과정을 조약의 형태로 규정하도록 한다. 철군은 이 조

약 발효 뒤 4년 안에 완료한다.

제5조(동독지역의 군사력)

1. 동독과 베를린에 주둔중인 소련군이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이 지역에는 통독의 전력으로서 지역방위부대만이 배치될 수 있다.

1. 동독과 베를린에 소련군이 주둔하는 동안 독일의 희망에 따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다.

1. 동독과 베를린에서 소련군이 철수를 완료한 뒤에는 다른 영역의 군사동맹에 가담하고 있는 독일 전력을 이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단, 재래식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래식 무기는 재래식 사용법에 한해서 독일내 배치가 인정된다. 외국군이나 핵무기 또는 핵무기 운반수단은 이들 지역에 배치될

수 없다.

제6조(동맹의 권리) 1. 통독이 동맹에 가담할 권리는 이 합의문서에 의해 규제당하지 않는다.

제7조(4개국 유보권의 소멸)

1. 프랑스, 영국, 소련, 미국의 각 정부는 지금부터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관한 권리와 책임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4개국의 협정은 종료되고 관련 4개국의 모든 기구들이 해체된다.

제8조 본 조약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관련국 의회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본 조약은 (관련국 의회의)승인절차가 완료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본 조약의 원문은 서독 정부가 보관한다.

'2+4' 통독조약 <요지>

「巨大독일」 중심 새유럽 시대 개막

독일통일에... 이의와 전망



◇마지막 회의 끝내고 동독의 드 메지르 총리(왼쪽)와 에펠만 국방장관이 28일 마지막 동독의회 회의를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고 있다. 동서독은 오는 3일 완전한 통일을 이룩한다. 【東베를린=AP통신】

西独막강 경제력에 蘇개혁 "추매"

이데올로기 시대 마감... 집단안보개념 새課題로

「정치小国」 계속 유지할지는 의문

10월3일 0시 베를린의 제1회(西)연방국회의 의사(단)의가 다행 독일통일이 케양프린 수장관들의 독일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다. 독일통일이후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하나로 통합된다. 독일은 이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된다. 독일의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아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 그것도 지난 40년의 동독 체제를 버리고, 서독의 민주주의를 도입함으로써, 동독의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동독의 최우선 과제이다. 동독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베투벤이 9번교향곡을 작곡한 것은 완전히 귀가 먹은지 5년후의 일이었다. 케를트나투르크장에서 직접 지휘를 했는데 환호와 박수갈채 소리를 그는 들을 수가 없었다. 독창하던 가수가 환호하는 청중에게 몸을 돌려 몸이 흔들려서 처음 10분 성공한 것을 알았다 한다. 4악장의 템포는 치는 대목이 자주 나오는데 이 대목을 지휘할 때 베투벤은 두손을 맞잡고 청중을 돌아 보곤 했다. 후에 한 친구가 그동안 작곡의 의미를 잘 구분할 수 있는가 물어 보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베투벤은 나폴레옹 지배에서 해방되어 갈라갈래로 분열되어 있었을 때였다.



李圭泰 君

청(難聽)의 날도 심해져가고... 이 걸치는 실의와 출구없는 행로를 견디다 못해 어느 수도원으로 명한 수도승을 찾아갔다. 수도승은 유리구슬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손을 넣어 구슬 하나를 꺼내라고 시켰다. 계속 구슬이 잡혀 나왔다. 수도사는 말했다. "이 상자 속에는 유리구슬 8개와 흰구슬 2개가 들어있다. 하고, 신의 만인에게 안운(惡運) 8개와 행운(幸運) 2개를 평등하게 나누어 주고..."

통일통일 交響曲

있으며 희망을 잃지 않고 안운과 싸워 나가면 흰구슬이 잡힐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던 것이다.

「베투벤의 생애」를 쓴 로맹을랑은 제 9번교향곡에서 베투벤의 흰구슬 하나를 비로소 취했고 그것을 사유(私有)하지 않고서 모든 독일사람들의 흰구슬로 공유시켰다고 했다. 실의와 실망의 세상이 끝나고 신은 만군(萬軍)의 천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오고, 파파리 파파리 파

양! 기쁘하고 찬양하라. 환희(歡喜)의 4악장이 그 절정이다. 이와 장에서 되돌아갈 때 템포는 다시 지리멸렬, 이산돼 있던 통일정신을 한데 귀일시키는 역풍의 소리라고 했다.

브람스 「前서두총리도 9번교향곡 합창단원의 입원으로 노쇠하고, 심지어는 이것도 독일의 통일지를 나타낸 점이 있다. 그만큼 독일정신의 품에 포옹된 9번교향곡이다.

「독일정신사」를 쓴 보이틀러는 피히텐의 「독일국민에게 고함」과 베투벤의 「9번교향곡」은 독일정신사의 가장 빛나는 두개의 기라성이라고 말했지만 그 패배의 것이다. 독일이 통일된 것은 이제 라이프치히 교향악단을 비롯한 독일의 관현악단 합창단들이 한결같이 9번교향곡을 연주한 것도 독일사람들의 통일정신과 독일정신의 공유수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베투벤의 살생을 때 누리지 못했던 흰구슬 하나를 잊지 제 지하에서 찾아 누린 것이 된다.

한류의 통일되면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생각해가기를 통일교향곡이 되리라.



이 인 철

독일사람은 질서와 규율을 잘 지키기로 정평이 나 있다. 교통경찰이 서 있지 않아도 교통규칙을 어기는 차량은 거의 보지 못했고 길거리에 담배꽂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독일을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독일 사람은 또 스스로도 공중도덕을 엄격히 지킬 뿐만 아니라 남이 규율을 어기는 것도 용서하지 못

하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사람같으면 눈감아 줄 만한 일도 독일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교통질서가 엉망이고 공중도덕이 땅에 떨어진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독일에 가서 살려면 처음에는 한동안 그 나라의 질서와 규율에 적응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것이다.

독일 사람들은 공중도덕을 지키는 데 엄격하듯이 나치가 집권한 뒤 독일인이 저지른 죄를 추궁하는 데도 비교적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범죄를 자행한 일본이 전쟁범죄자를 전혀 처벌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독일은 전쟁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독일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이 패망한 45년부터 83년까지 약 9만명이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그중에서 6천5백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려는 독일인의 노력은 나치전범에 대한 사법적인 소추에 그치지 않았다. 과거에 나치였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피인물이 되어 그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기도



연호

않았다더라면 독일 최대의 정치가였을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0% 가까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후에도 독일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나치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치즘에 대한 일부 독일의 굴절된 의식은 오늘날 나치를 연상하게 하는 극우정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실시한 서베를린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독일의 새 나치로 지목되고 있는 공화당이나 국가민주당과 같은 극우정당이 소수나마 의석을 차지했고 유럽의회까지 진출했다. 50년을 전후하여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극우정당들이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정도의 세력신장에 그친 것은 다행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날 군소정당이 지나지 않던 나치가 패전과 경제적 파탄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에서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른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은 비록 군소정당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독일의 새나치일지라도 그들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독일이 통일되던 그 역사적인 날 밤에 난동을 부렸던 일부 극우파 청년들이 경찰에 쫓기는 광경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면서 독일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히틀러의 망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논설위원>

독일통일과 히틀러의 망령

했다. 과거에 나치였다는 사실 때문에 가정에서도 갈등을 겪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규율에 엄격한 독일 사람들은 나치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도 엄격했다.

그러나 과거에 나치였거나 나치에 협력한 사람의 책임을 모두 추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후 독일을 점령한 미군 당국이 전쟁범죄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3백수십만명의 나치당원과 협력자를 적발하고서도 실제로 처벌한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점령군과 서독당국이 전쟁범죄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나치와 그 동조자들에게 엄격한 사회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 48년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치즘이 옳지 않은 이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8%인 데 비해 이념은 옳았지만 그 이념을 구현하는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7%였다. 또 75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히틀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20%나 되었고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지

「새獨逸」... 100萬人波 「自制속의 祝祭」

東獨逸(東獨逸)에서 열린 100만 인파를 모은 「自制속의 祝祭」(自製속의 祝祭)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전통 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 지역 주민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 곳곳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행사장은 온통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전통 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 지역 주민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 곳곳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행사장은 온통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이풍 더열광... 일부부선 反對시위도

東獨수보부 각종행사에서 눈물눈물

東獨총리 "환상의 끝... 언론과 과제의 시작"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전통 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 지역 주민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 곳곳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행사장은 온통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姜秉泰베를린특파원이 본 統獨현장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전통 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 지역 주민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 곳곳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행사장은 온통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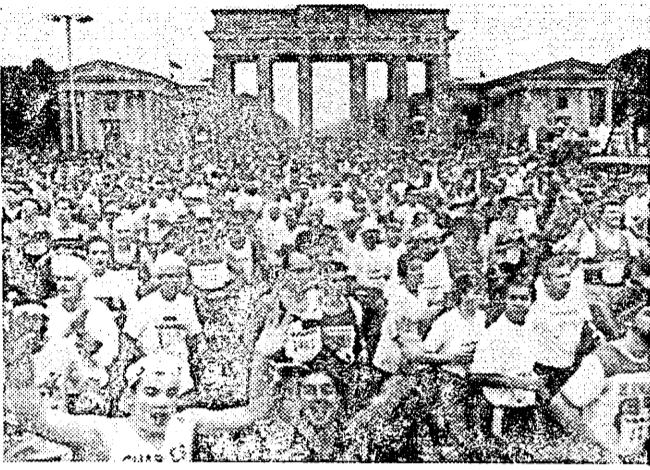
東獨총신 5명入閣

○... (text continues)

北韓대사관 문닫

○... (text continues)

統一 기념마라톤으로祝祭개막



統一 기념 마라톤 祝祭 개막 30일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초등학교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2만여명의 학생들이 프랑스로부터의 선물을 받고 있다.
 <베를린 10월 10일>

統一 기념마라톤은 현지표정

베를린의 공산정권을 단의 통일 운동 30일째를 기념하는 통일 기념마라톤이 10월 10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는 2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는 2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는 2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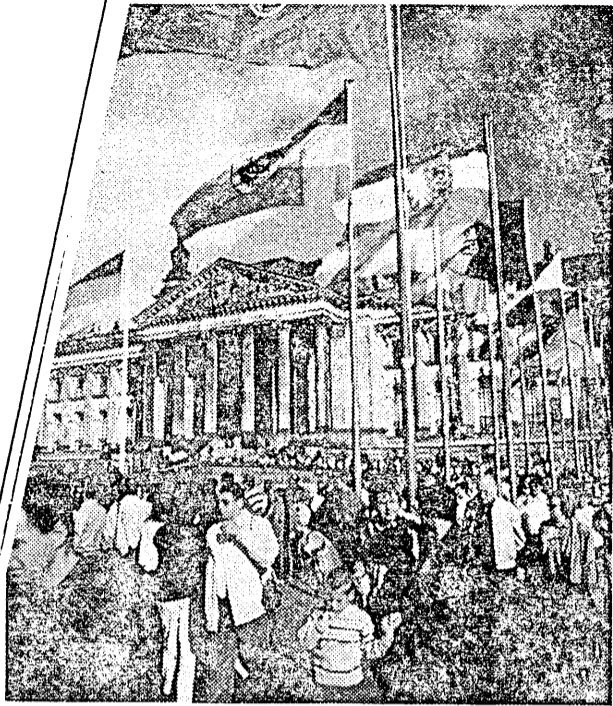
빛속달리며 "獨逸" "自由" 의쳐

여자가, 여자인, 신체장애자, 후...
 이 대회에는 2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는 2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는 2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東西獨기민당 오늘 습당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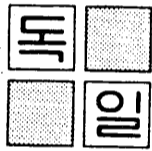
【합트르프(西獨)】東西獨의 집권 3년째인 합트르프의 서독인 이틀간의 합트르프의 정치 상황은...
 이 대회에는 2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는 2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는 2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統一 조국 가자" 移民 귀국 러시



◇독일이 통일되자 2차대전후 유럽의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독일인들이 모여들고 있다. 집시족마저 이에 가세, 독일로 유입되고 있어 통일독일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통일을 기뻐하고 있는 독일인들.

반류의 표징



조국을 떠나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제2차대전이 끝나면 서 자신들의 뜻과 전후관계없이 뒤바뀌어버린 국경선 때문에 줄지어 타국 땅의 살아가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던 경우도 있고, 소련 땅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도 전쟁의 여파를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약 10% 정도는 지금 가장 많은 독일계 해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나

라. 소련. 독일정부의 그 수를 1백20만~1백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소련당국은 2백만 가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2백만 전 전사자의 살처음되었던 러시아의 빈 땅으로 이들을 와서 부리를 내린 독일 정착동민의 후손들이다.

지난해 소련당국의 출국이 금지된 다 소련화되는 것과 더불어 이들의 약 10만7천명 가량이 서독으로 귀국 정착했으며, 같은 해는 9월말까지 이미 9만여명의 부유도로 돌아갔고, 금년말까지는 적어도 15만명 정도가 조국을 찾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정부도 소련인들을 '부유'이라고 불리며, 별도단체를 만들어 이들의 자치권이 없도록 공공화권을 재전하라는 방침을 펼치고 있다.

폴란드의 약 20만~30만 정도의 독일인이 살고 있을 것으로 독일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폴란드의 국이 전후 독일인 거주자의 수를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폴란드의

내 독일계 주민들이 조직한 독일연맹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약 70만명의 독일인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마니아에도 차우셰스쿠 독재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대략 30만명의 독일계 주민이 살고 있었다.

독일분화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고, 2차대전 말기에 모든 독일인을 추방했던 체코에도 수백만 지방을 추방당한 약 1만5천여명의 독일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역시 여건이 허락한다면 독일의 주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된 독일이 맞이해야 할 새시국에 귀국을 원하는 해외동포들 말로도 루마니아, 헝가리, 소련 등지에서 독일정부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2백여만명의 집시들이 있고 수십만명의 탈북한 동유럽의 정치망명자들이 포함돼 있다. 나치 치하에서 50만명의 희생을 치렀던 집시들을 쫓겨다시피해서 살고 있는 헝가리에서 최근 독일정부의 순회방향을 청구하고, 그 대가로 독일재민족을 보호장관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루마니아 유교 불가리아 터키 페바논 아프간 등지로부터 물러나고 있는 망명자들은 지난 8월 2만1천8백여명에서 9월엔 2만4천여명으로 급증했으며, 금년 9개월 동안 독일정부가 집계한 망명신청자는 14만4천여 명으로 작년 한해의 12만1천3백18명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독일정부는 귀국동포들의 정착문제, 출국권과 집시들의 이주권과 무체 그리고 다른 민족 정착문제 등의 문제, 처민정책을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둘러싸고 있다. 아마 여기엔 2000년의 수백만명의 이주자들이 대량 이주 정착을 허가여부 그리고 생활보장문제, 출국권, 정착문제 등의 하나로 통상할 것 같다. <金桃日 기자>

대부분 나치下 강제로 移住 蘇 등서 을 70만명 이상 돌아올 듯 집시-정치망명자 入国요청 쇄도

동·서독이 45년간의 분단을 마감하고 마침내 하나의 국가로 재통일된 첫날인 10월3일 오후 통일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2만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통일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전날 자정을 전후해 브란덴부르크문에서 거행된 통일축하 불꽃놀이로 인한 흥분과 감격이 대부분 독일인들의 뇌리에서 채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벌어진 이날 시위는 통일독일내에서의 좌파 및 반파시즘 세력의 운동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시위는 오후 2시에 서베를린 오라니엔 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다음 거기서 두 시간 거리인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까지 행진한 뒤 그곳에서 마무리 집회를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시위에는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 등 정당조직을 제외한 독일내의 모든 좌파 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듯했다. 시위 지도부의 한 중간간부는 이번 시위가 "제국주의적 대독일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그는 "통일을 맞아 인종주의와 계급착취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은 필수적"이라며 "독일 좌파는 앞으로 의회 밖에서 세력을 확대·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

다. 오라니엔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연사는 "서독은 동독을 정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독인들을 선동, 동독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완결되자 지폐를 찍어 통화통합을 강행, 동독을 집어삼켰다"며 서독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난했다.

학생 등 청년층이 대부분인 시위대는 오후 3시부터 "레닌의 계급투쟁" "대독일은 이제 그만"

를 비롯해 많은 수의 외국인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이 시위가 통일과 더불어 두드러지기 시작한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대두에 맞서 외국인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듯했다. 시위대열의 플래카드 중에는 터키어 등 외국어로 된 것이 눈에 띄었으며, 시위대는 행진 도중 "외국인은 머물러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것은 명백히 "외국인 꺼져라"라는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구

함으로써 자칫 폭력충돌로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렇지만 무정부주의에서 무장혁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갈래에 속한 2만여명의 열기 왕성한 젊은이들을 시위 지도부가 완전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 있었다.

저항적인 가사를 경쾌한 가락에 담은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독점재벌 소유 은행을 경비하고 있던 경찰에 야유를 보내는 등 평화적인 분위기가 엿보이던 시위는 알렉산더 광장 옆 도로에서 다소 폭력적인 양상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오후 5시50분경부터 경찰의 해산작전이 시작됐다. 과감하게 시위대의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온 경찰은 곤봉을 휘두르며 시위대를 사방으로 분산시켰다. 한편 경찰은 이번 시위로 2백70여명이 연행됐으며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2백여명 이상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경찰 대변인은 5백여명의 무정부주의자들과 2백명 정도의 터키계 젊은이들이 야구방망이와 돌로 무장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한 채 시위가 금지돼 있는 알렉산더광장에 들어오면서 충돌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베를린=최재봉 특파원>

좌파 2만명 통일반대 행진 눈길

"인종주의·착취에 저항"...외국인 대거 참가

"전투적인 여성해방투쟁" 등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 시위대 속에는 많은 동독기가 나부껴 전날 브란덴부르크문에서의 서독기의 물결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동베를린 훔볼트대 학생으로 이날 시위에 참가한 크리스토프 크리스트만(25)은 "사회주의 동독의 붕괴와 거대독일의 출현에 반대하기 때문에 나왔다"면서 동독의 대학생들은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에는 독일 거주 외국인 가운데 최대종족인 터키계

호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현재 독일에는 4백만~5백만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백만명이 터키계이다. 자신을 무라트라고만 소개한 한 터키인은 "통일과 더불어 외국인에 적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인종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경찰은 시위대의 행진 도중 주요 건물을 경비하고 시위대가 예정된 행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 외에 시위대를 자극할 만한 행동은 자제했다.

주최쪽도 방송을 통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지 말 것을 호소

한편 경찰은 이번 시위로 2백70여명이 연행됐으며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2백여명 이상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경찰 대변인은 5백여명의 무정부주의자들과 2백명 정도의 터키계 젊은이들이 야구방망이와 돌로 무장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한 채 시위가 금지돼 있는 알렉산더광장에 들어오면서 충돌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東獨장례식」치르며 "統獨축제"

본지 朱燮日 특파원 分斷마을을 가다

제 1 信



◇ 朱燮日 특파원

동독부대의 분단 마을에 대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이 정례식이 마을 사람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철책 넘어 생이별 가족이 제 한 자리에 땅 빼앗길까 안절부절

동독주민들이 동독사람들의...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이 정례식이 마을 사람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이 정례식이 마을 사람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이 정례식이 마을 사람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1천3백여명의 동독주민들이...

철책 허물고 軍事분계지역 농토 조성

북지朱燮은統獨의眞實 分斷의眞像을 見다

제 2 信

베를린장벽은 지난 3일 동독의 40여년 동안의 獨占統治를 끝내 붕괴시켰다. 동서 2개의 대립 체제를 형성한 이 장벽은 아그노노방전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철사망과 콘크리트벽을 합쳐놓은 이 장벽은 40여년 동안의 대립 체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철사망과 콘크리트벽을 합쳐놓은 이 장벽은 40여년 동안의 대립 체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철사망과 콘크리트벽을 합쳐놓은 이 장벽은 40여년 동안의 대립 체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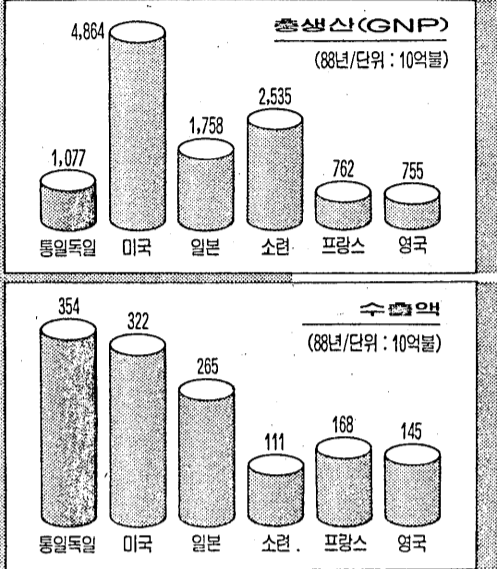
「반민권투쟁을 막기 위하여 지난 40여년 동안 철책은 동독을 4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국경선과 군사요새로 만들었던 것이다. 쾰른강과 엘베강의 지류지역은 동독의 2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마를부르크 지역은 서독과 동독의 국경선이었던 것이다. 7월 1일, 분계선의 철폐에 따라 자발적으로 철책을 허물기 위하여 40여년 동안의 서독을 대표하는 「독일민주주의 연맹」이 서독의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독일민주주의 연맹」이 서독의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독일민주주의 연맹」이 서독의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독일민주주의 연맹」이 서독의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통일 독일의 국세비교



제거한 후 1993년부터 다시 붕괴가 되며 독일이 통일 체제를 이루었다.

이 동독 출신 시민들의 직업은 가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으며, 독일은 1988년 7월 1일, 분계선의 철폐에 따라 자발적으로 철책을 허물기 위하여 40여년 동안의 서독을 대표하는 「독일민주주의 연맹」이 서독의 「독일민주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린 후, 동독의 정치 체제는 붕괴되고, 동독의 국민들은 서독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독일의 통일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냉전 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알렸다.

독일의 통일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승리였으며, 인류의 희망을 자극했다.

다. 나치파망 진전소련군과 미군의 규정으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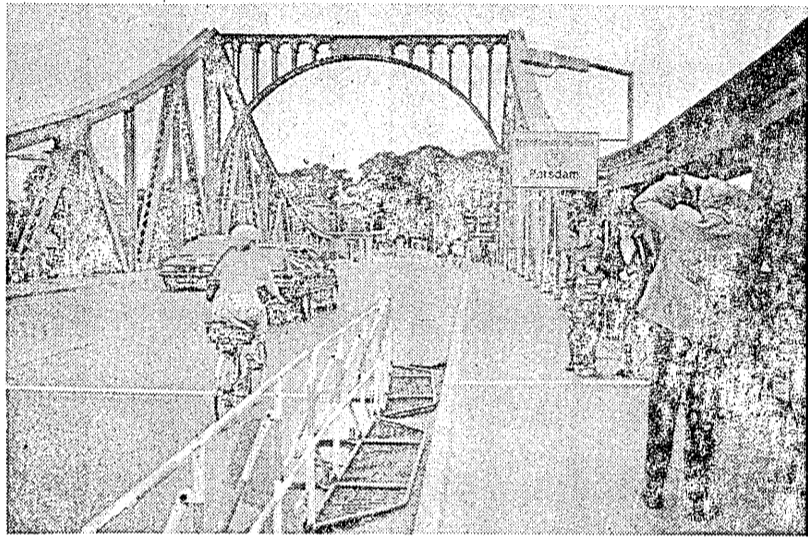
베를린의 오페라가수 카르네를 구하는 데 열광한 베를린의 실지파인 시민들을 뒤흔들었다. 모부터 개인, 개인 전체를 구하는 데 열광했다. 실지파의 자의적 전체의 전체를 구하는 데 열광했다. 나치 오페라가수 카르네를 구하는 데 열광했다. 나치 오페라가수 카르네를 구하는 데 열광했다.

그런데 이 경우의 바와 희극한 예가 되지만 약 60년의 자연분계선인 엘베강을 제외한 약 1천여 개의 작은 강과 수로가 유주의 면적을 관통하고 있다. 나치 오페라가수 카르네를 구하는 데 열광했다. 나치 오페라가수 카르네를 구하는 데 열광했다.

군사시설과 전선 부지였던 지역이 대부분 이미 농작지나 밭마루밭이 되었다. 옛 주인들이 「천의 천마」중 기여 배양했던 땅을 재빨리 되찾아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밖에 산악지역이나 부처지토출민간 땅이 많이 퍼져 유류지 소유주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엘베강 감시망루 천체관찰탑 개조

엘베강의 모래밭이었다. 함부르크를 거쳐 북해로 흘러드는 엘베강이 그다소 넓은데 비해 베를린의 점령당한 후 동서 이념분단의 자연적 경계선이 되었다. 美蘇가 냉전시대로 돌입한 때 이 강이 「신설수 없는 강」으로 지난 40년 동안



〈엘베강의 군사분계선의 흔적의 일부〉
전인 베를린과 포츠담을 연결하는 독일의 「엘베강」이 나치 오페라가수 카르네를 구하는 데 열광했다. 나치 오페라가수 카르네를 구하는 데 열광했다.

개방된 후 감시망루와 배가동화하여 다리의 대신 사람과 자동차를 운반하고 있다. 서쪽의 브레케데움의 동쪽의 노이에벤트스를 연결해주는 운반수단도 바뀌었다. 브레케데움부터는 동독제트라비르부터 서독제벤트까지 자동차로

말했다. 새 통일부령정부에 의해 다리가 곧 건설될 예정인 이제 동서독의 분계선이라는 불행한 과거를 출렁대고 있는 새 독일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새로운 강으로 태어나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프린트라인 마을이 분계선으로부터 있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서독편에 말할 것도 없고 마을 앞했다. 이 후일의 불빛은 마치 동쪽 감시망루의 조명과 대항하는 듯 화려했다. 마을사람들은 서쪽의 네온사인들 「자유」 등 대라고 불렀다. 이 동네 청년 6명의 탑승을 결심한 것은 그 얼마 후의 일이다. 경비대의 눈을 속이고 바다의 뱃머리를 16시간을 헤엄쳐서 서독안에 무사히 도착한 청년 1명뿐이었다. 나머지 5명은 끝까지 서쪽의 「자유」 동맹에 도착하지 못했다. 동독군단장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해안의 모래사장 앞까지 철책선을 쳤다. 그러나 이 철책선 밖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특권층이 있었다. 그렇기 이 마을 동쪽의 별장이 갖가지 있는 공산당 고위간부들이었다.

녹색당, 독일관통 거대 自然공원 조성 운동 철책건힌 해수욕장 프리윌 옛명성 되찾아

이 마을의 어그 다른 동쪽지역보다 남다른 통일 환희를 터뜨렸다. 분단의 비극을 되새기려는 독일인들의 순례지로 이 동네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포린」을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진 40여년의 참담한 고뇌가 통일과 함께 전환우부의 필할 도 되지 않겠나.

결국 통일된 국민들의 계기부권리인 여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분단의 상징인 분계선을 완전히 지워버린 데서 완성되었다. 이 분계선이 완전히 독일지도에서 지워진

분계선도 지워지기

안 남아 있었다. 동서독의 분계선을 이루는 60km의 엘베강이 다리가 없다. 2차대전시 적전으로 파괴되었지만 그 후 다리를 복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동쪽에는 철책선이 쳐져 있었고 감시망루도 세워져 있었다. 지난 7월의 분계선이

잠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이 배의 주인이 구 동독해군출신이라는데 인하르트 카스텐제였다. 그는 하루 2백대의 차량운행을 보강한다며 웃었다. 그는 40여년 동안 이 자동차는 있었고 다리가 없는 이상한 엘베강을 만들었지만 이 때문에 실정했던 판이 생

의 해변도 산책할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맞으면 서쪽의 상의는 침묵이나 감시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다수량의 해수욕장들이 백사장의 들끓었다. 지난 70년대에 건설한 「마리팅호펜」이 들어서 찬란한 네온사인을 자랑

유럽의 새질서가 수립되면서 이 것이 세계질서의 재편성으로 확대되어나갈 것이다. 벌써부터 한반도 주변에 「신상선」이 분단의 이 를 예고하고 있다. 韓 蘇 간의 수교, 韓-中간의 관계의 단교, 남북주민들이 철망속에 갇혀 변신시대의 동독인과 똑같이 그들의 삶을 살고 있음을 뜻한다. 이제 남북의 어그 집 권세권도 국민을 침략속에 가를 권리가 없게 된다. 계개선과 북한 일본간의 관계개선진전 등의 기본 축은 이념을 초월한 장벽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은 휴전선부터 아니라 전체 안전을 철책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다. 이것은 한 대를 맞고 있다. 북의 고향을 가려는 남북사람도 「남」으로 천지를 찾아가는 북쪽사람도 모두가 내방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자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 통독이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과업이다.

3. 統獨의 主役들

남한에 통일정책

빌리 브란트 前 서독 총리는 독일 통일정책의 초석을 다짐으로써 북일통일정책의 역사의 하나의 분수령을 만든 인물이다.

브란트 이전의 서독 통일정책의 「할슈타인 원칙」으로 대표되는 「힘의 논리」에 입각한 대결지향적인 정책을 따고 있었다면 브란트 이후에는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한 화해 지향적 정책이었다.



◇ 빌리 브란트

69년 社民黨 당수로 서독의 제4대 총리로 취임한 그는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냉전시대의 소산인 할슈타인 원칙을 공식 포기하고 蘇聯 및 東歐와 화해를 이루기 위한 「東方정책」



◇ 헤르베르트 베너

것이 東方정책의 기본 구도였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나치독일에게 의해 희생된 유대인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브란트의 모습은 이러한 동방정책의



◇ 한스 디트리히 겐셔

를 체결할 수 있었다. 브란트는 이와 같은 「발산」의 대전환을 통해 東西 냉전관계에 획기적 인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독일통일도 향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의 동

(Ospolnik)을 추진해 나갔다. 동서화해를 통해 독일의 안정, 나아가 쏘련의 안정을 찾고 그 유럽의 안정을 추구하는 안목에서 兩獨간 상호 교류의 물꼬를 트는다는

브란트 "대결서 共存시대" 東方정책 추진 베너 "2+4회담" 길담은 "統一의 아버지" 겐셔 "총리 충실보좌" 統獨 끝내기 수훈

정정을 상징하는 장면이 戰後 유럽사의 한 페이지를 감동적으로 장식하고 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불과 4년 남짓한 집권기간에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으며 72년 12월에는 兩獨 관계를 재정립하는 역사적인 동서독 기본조약

방정책은 분단후 20년 동안 늘란은 업적을 기록 해 놓은 大정치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르기까지 「교류를 통한 변화」라는 큰 골격을 유지하며 점진적인 진전을 이뤄왔다.

추진함으로써 불과 4년 남짓한 집권기간에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으며 72년 12월에는 兩獨 관계를 재정립하는 역사적인 동서독 기본조약

초대총리이자 서독의 國父로 일컬어지는 콘라트 아데나워는 서독이 서방세계의 일원으로 자리잡아 戰後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했으며, 2대 총리인 루트비히 에르하

社民黨의 실권을 장악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산주의 前歷 때문에 항상 2인자의 위치에서 만족해야 했던 베너는 실제로 40년전에 독일통일을 위한 「2+4 회담」을 예견한 헤안의 정치가로

이러한 과정에서 올해로 16년째 서독의 부장관을 맡고 있는 한스 디트리히 겐셔는 統獨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꼽을 수 있다.

르트는 서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함으로써 독일이 통일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다.

서 統獨 논의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이들 서독의 정치인들과 함께 작년에 東歐의 개혁물결에 저항하다 몰락한 東獨의 호네커 前 서기장도 동독관할슈타인원칙인 「울브리히트 원칙」을 폐기하고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수용했다

그는 현실감각은 뛰어나지만 理想과 철학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콜총리를 도와 통독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최초로 공식 거론하게 했으며 금년 2월에는 「겐셔 統獨案」이라는 현실적 제안을 함으로써 통일논의를 가속화시켰다. 콜총리가 統獨을 위한 국제적 세일스맨이었다면 그는 배후의 전라가였다고 할 수 있다.

0년에 벌써 유럽안보체 제 창설과 이를 위한 美 蘇 英 佛 4대국간 협상을 요구하는 「도이칠란트 플랜」을 작성하여

브란트의 의해 본래도 에 오펜 統獨노련인 그 후 헬무트 슈미트 총리 그리고 현재의 콜총리에

〈申相仁기자〉

독일총리 1주연 를 서독總理

헬무트 콜 西德總理(8)는 20세의 大體를 担持한 偉大한 政治家로 評價한 後, 其가 20세기 史에 功績을 著한 政治家로 評價한 後, 其가 20세기 史에 功績을 著한 政治家로 評價한 後...

독일총리 10개 項 발표로 통일 논의 주도
뛰어난 外交 수완... 4大 전승국 설정

初代 총리 확정한 「제2 비스마르크」

독일은 北의 東部를 占領한 後, 北의 東部를 占領한 後, 北의 東部를 占領한 後...



독일 통일을 실현시킨 콜서독총리는 금년 12월 총선에서 승리, 통일독일의 초대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독일 통일... 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독일 통일... 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독일 통일... 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독일 통일... 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流血暴動 國境의 門을 叩했다

障壁가 崩 前線記者 崔 仁 均 記



前線記者 崔 仁 均

동반 崔 仁 均 氏의 著 作 前線記者 崔 仁 均 記 障壁가 崩 前線記者 崔 仁 均 記 障壁가 崩 前線記者 崔 仁 均 記

障壁가 崩 前線記者 崔 仁 均 記 障壁가 崩 前線記者 崔 仁 均 記 障壁가 崩 前線記者 崔 仁 均 記

障壁가 崩 前線記者 崔 仁 均 記 障壁가 崩 前線記者 崔 仁 均 記 障壁가 崩 前線記者 崔 仁 均 記

蘇 南 半 島 移 住 事 態 及 軍 民 對 大 韓 不 信 疑

蘇 南 半 島 移 住 事 態 及 軍 民 對 大 韓 不 信 疑 蘇 南 半 島 移 住 事 態 及 軍 民 對 大 韓 不 信 疑

蘇 南 半 島 移 住 事 態 及 軍 民 對 大 韓 不 信 疑 蘇 南 半 島 移 住 事 態 及 軍 民 對 大 韓 不 信 疑

4. 「統獨」에 대한 各國의 反應

統獨을 모는 주변국

정판의 바이퍼 독일인들이 바라보고 여지없이 유럽인들이 잠시 뒤를어서서 자신의 기안외 국어였던 독일어(포옹 (Germanophobia)의 실체를 45년만의 조짐스럽게 재확인하는 것이다.

내년 5월(1990년) 동서양 국제제가 유럽대륙에 「전쟁 없는 평정질서」를 보장하는 동안 사실 제르마노포비아를 잊고 있었다.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있던 유럽의 중심축이 그 보폭이로 東進하고, 냉전구도의 와해와 함께 美, 蘇, 라그 두 강대국체력이 퇴진한 유럽에서 새로운 부강하고 있는 수퍼파워 독일인들이 이웃나라들을 부강한 신질서의 배프리고 있다.

이웃들이 EC(유럽공동체) 인구의 19%, 域內 총생산의 22%, 전체 수출총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선봉이 독일이란 국민들 하나 더 정예이면서 독일의 그립자가 자기들 나라의 영토까지 경제 트릭을 것을 좌절하고 있다. 영미권 국제외환시장에서 마르크화의 특약이 유럽각국의 통화가치를 결정짓을 것이며, 독일어(행위)의 정하는 金庫의 파파 유럽의 금융시장의 향배를 정한다. 지난 6월 서독총리가 원리권을 차지했을 때 독일국민들이 거리를 메우며 열광적으로 보도되었던 제르마니즘의 부활(독일, 동독의) 새나치그림인 스킨헤드족의 외국인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무차별적

대행위, 선봉적군파가 현장에 남았다(독일인들이 파시스트 제4제국이다)라는

게르마니즘 復活... 「제4帝國」 우려

유럽 金融시장 잠식 東歐장악 가능성
波선 64%가 반대... EC통합 장애론도

를 세계화한 면에서 독일 후 독일의 정치적 군사적 대의의 힘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법(헌법)을 대체할 수 정해야 할 것 이라고요 설했 다. 이 말은 페르시아灣 위기를 해소하는데 독일이 참여할 수 있는 군사적 연합의 폭을 넓혀보자는 뜻이었거나, 또는 사람에게가 독일 재무장을 말하는 것이나 국민 반론을 깨달을 때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마침 이때 소련쪽에서 통일독일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6번째 상임이사국으로 삼자는 제안이 튀어나왔다.

국제적 新질서속에 새로운 잠한 강자(독일)를 나타내며 독일이로만 묶어놓는 것은 안하다고 보고, 美, 蘇, 英, 佛 中 등 5대 강국이 주도하는 세계정부의 제도권 안에서도 독일의 편입시키자는 뜻이었다. 콜총리가 美 시사주간 타임誌와의 회견에서 말했다(것처럼) 「세계가 독일의 의를게 만들었을 때 유럽에는 엄청난 戰禍가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폴란드의 64%는 독일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고, 이스라엘 신문들은 「만약 10세월이 10세대 이상은 홀러야 통일독일의 승인을 제를 비로소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독일인 민족개량론 마친 東유럽까지 자신의 영향력이 퍼져야 하며 中, 東部 유럽의 맹주로 통일할 생각, 현재 진행중인 EC 통합 계획은 보류될지도 모른다는 비판론도 대두하기 시작했다. <金旿日기자>

쪽지내용마저도 이웃들한테서 벗어나게 할수 없을 수 없다. 「나치즘」 독일인 시대 를 막아야 유럽의 비평화적 불확실성을 예고하는 불친절한 정조일수 있기 때문이다. 콜서독총리는 지난 9월 16일 동독 국민들의 청년당원

「트루트게르만부활에우려」축하표차

「統獨」맞는각국반응

통독에 대해 세계각국 언론은 「트루트게르만부활」을 「기면서도 대체로 환영했다.

美國 부시대통령은 30일 독일국민

에 메시지를 보내 45년간의 분단상황이 종식되고 새 장이 펼쳐진 통일일의 순간을 축하한다고 강조했다. 부시대통령은 서독의 40여년간의 절친民主主義 실천을 치하하고 양국이 우방으로서 새로운 도전에 공동대처하고 책임을 공유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美언론은 이질감

극복, 국경문제에 따른 불안해소, 국제사회에 대

독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소련 독일의 모든 국민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구영TV는 동독의 소

자들은 공식적으로는 統獨에 박수를 보냈지만 바로 옆에 정치경제적 거인이 탄생하는 것이 다소 꺼림칙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국민도

총리는 統獨에 따뜻한 축하를 전달했으나 언론은 독일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中國-日本** 영 新華

국경분쟁등 불안해소 새과제로

美國

독일문제 평화적 해결 노력 치하

蘇聯

경제巨人 탄생에 다소간 꺼림칙

프랑스

한 기여도 향상이 새 독일의 새 과제라고 지적했다. **蘇聯** 고르바초프대

통령은 「편견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짧게 보도했으며 대다수 소련신들은 통독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는 등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英國** 정계지도

반이상온 통일에 찬성하지만 독일과 싸운 과거의 경험과 독일의 경제력신장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마거릿 대처 英

통신은 통독은 美蘇의 약화에 따른 多元的 세계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日本의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총리는 「統獨이 새

로운 질서를 잡아가는 유럽역사의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東歐 주변국 새로 民主 東歐 국가들은 독일의 통일을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30일 서방정치관측통들이 말했다. 전통적으로 독일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헝가리와 불가리아는 통일독일의 탄생에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폴란드와 체코는 나치독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다 국경을 접하고 있어 다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역사의 반복을 막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며 통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이번 독일통일을 자신들의 의 쿠웨이트 합병과 비교하며 我田引水鏡(海部俊樹)으로 대환영했다. **〈해설〉**

統獨거대經濟 경제 유럽비상

통일獨逸의 거대한 경제력을 전제하면 그 주변국들의 첫 움직임이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최대의 전자통신기업인 알카텔(Alcatel)은 CCE社와 이탈리아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피아트(PIAT)가 지난 4일 상호협력계약을 체결, 유럽연속에 단일 회사인 것과 합동된 주식보유를 통해 협력관계를 맺고 세계시장에서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다.

또 유럽의 금융계에서는 피아트와 CCE社의 연합이 최근의 일부인 다임러벤츠(Daimler-Benz)와 미쓰비시(Mitsubishi)와 미쓰비시(Mitsubishi)의 연합이

본간의 연합에 자극을 받아 속진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벤츠자동차로 유명한 다임러벤츠社와 日本 최대의 자동차기업인 미쓰비시(Mitsubishi)는 합작법인인 미쓰비시(Mitsubishi)를 설립, 상호 협력계약을 체결, 상호 기술제공, 제품공동개발을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피아트(PIAT) CCE社의 자회사로 있던 자동차용 배터리(Battery)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다들(Alcatel)은 알카텔(Alcatel)의 전지공장으로 시우(Seoul)에 본사를 두고, 새출발하게 됐다. 이들 두 기업의 합병은 또 서로의 연합관계를 증진시킨다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11월 6일(월)에 약 8천4백(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프랑스가 자랑하는 TGV(超高速電車)의 주요 부품 공급

佛 CCE-피아트社 협력계약 공동對處

을 다뤘었다. 또 철도부문에 관해서는 피아트와 CCE 두 회사가 원점으로부터 이 분야에서 시 세계 최대의 회사로 등장하게 됐다.

알카텔(Alcatel)은 알카텔(Alcatel)의 전지공장으로 시우(Seoul)에 본사를 두고, 새출발하게 됐다. 이들 두 기업의 합병은 또 서로의 연합관계를 증진시킨다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11월 6일(월)에 약 8천4백(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프랑스가 자랑하는 TGV(超高速電車)의 주요 부품 공급

파리—金基萬(파리)

佛, 統獨불안감 노출적 표출

북한의 불안감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여 남북 양측의 대립적 정황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佛統'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佛統'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佛統'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佛統'의 불안감을 대두시키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남북 양측의 대립적 정황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佛統'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佛統'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佛統'의 불안감을 대두시키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남북 양측의 대립적 정황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佛統'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佛統'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佛統'의 불안감을 대두시키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남북 양측의 대립적 정황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佛統'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佛統'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佛統'의 불안감을 대두시키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남북 양측의 대립적 정황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佛統'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佛統'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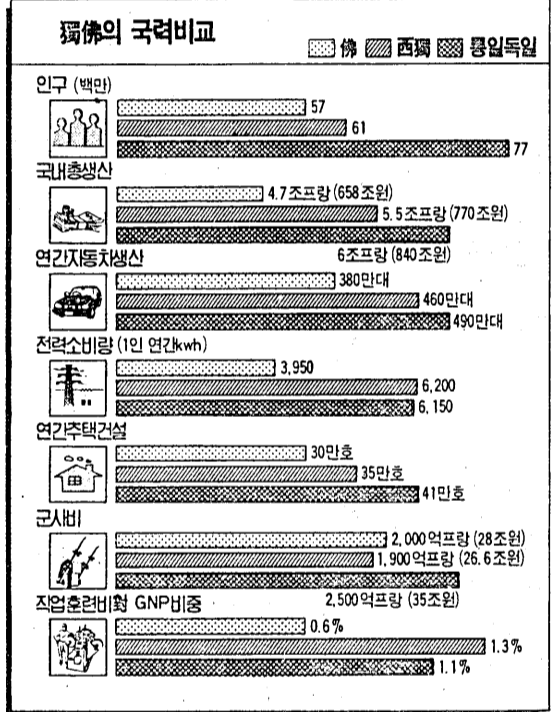
북한은 '佛統'의 불안감을 대두시키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남북 양측의 대립적 정황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佛統'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佛統'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

인문·정부 "巨大獨逸경제" 무너져 유럽 強國지위 흔들릴까 우려

"獨逸·東歐 밀착면 破鏡" 유럽통합 강조

독일의 경제력이 유럽에서 유럽통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독일의 경제력이 유럽에서 유럽통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독일의 경제력이 유럽에서 유럽통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東·西 敵對 情勢 「쑤유럽 하나의 틀」 첫 발

CSCE 34개국 19일 파리頂上會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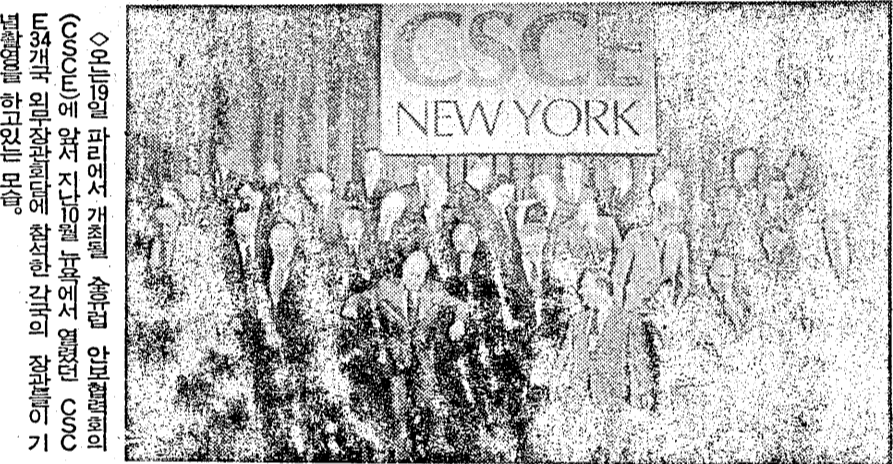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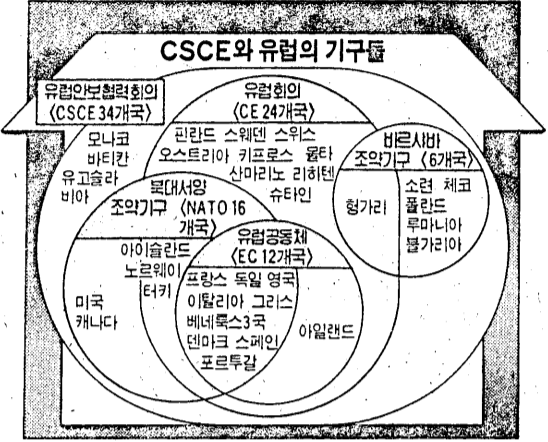
【파리 19일路透電】 냉전 후 유럽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CSCE 34개국 정상회담이 19일 파리에서 개막된다. 이 회담은 CSCE의 34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냉전 후 유럽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이다. 회담은 19일 오후 7시에 시작되며, 21일 오후 7시에 끝난다. 회담은 3일간 진행되며, 19일에는 회담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20일에는 회담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며, 21일에는 회담의 결의문에 대해 논의한다.

「CSCE 회담의 틀」이란 CSCE의 34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냉전 후 유럽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이다. 회담은 19일 오후 7시에 시작되며, 21일 오후 7시에 끝난다. 회담은 3일간 진행되며, 19일에는 회담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20일에는 회담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며, 21일에는 회담의 결의문에 대해 논의한다.

냉戰 후 신질서 구축 구체 작업 나토·바機構는 협력체로 진수

상설기구화 추진... 美 소외감·EC 배타성 극복이 과제

냉전 후의 신질서 구축을 위한 나토·바機構의 협력체로 진수될 예정이다. 이는 냉전 후 유럽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이다. 회담은 19일 오후 7시에 시작되며, 21일 오후 7시에 끝난다. 회담은 3일간 진행되며, 19일에는 회담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20일에는 회담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며, 21일에는 회담의 결의문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담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이 신질서 구축을 위한 CSCE 회담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은 회담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이 신질서 구축을 위한 CSCE 회담에 참가하고 있다.

냉전 후의 신질서 구축을 위한 나토·바機構의 협력체로 진수될 예정이다. 이는 냉전 후 유럽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이다. 회담은 19일 오후 7시에 시작되며, 21일 오후 7시에 끝난다. 회담은 3일간 진행되며, 19일에는 회담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20일에는 회담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며, 21일에는 회담의 결의문에 대해 논의한다.

냉전 후의 신질서 구축을 위한 나토·바機構의 협력체로 진수될 예정이다. 이는 냉전 후 유럽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이다. 회담은 19일 오후 7시에 시작되며, 21일 오후 7시에 끝난다. 회담은 3일간 진행되며, 19일에는 회담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20일에는 회담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며, 21일에는 회담의 결의문에 대해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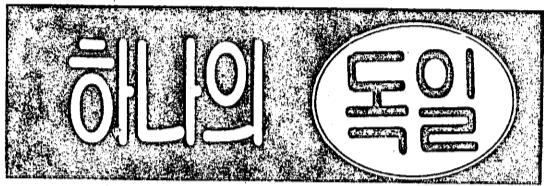
냉전 후의 신질서 구축을 위한 나토·바機構의 협력체로 진수될 예정이다. 이는 냉전 후 유럽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이다. 회담은 19일 오후 7시에 시작되며, 21일 오후 7시에 끝난다. 회담은 3일간 진행되며, 19일에는 회담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20일에는 회담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며, 21일에는 회담의 결의문에 대해 논의한다.

II. 統獨關聯 企劃記事

1. 하나의 獨逸(再編되는 國際秩序 診斷)

脫離전의 시대를 집약하
는 獨逸의 통일이 10월 3
일 실현된다. 작년 11월 베
를린장벽이 무너져내리기 전
만해도 예상치 못했던 대
사건이다. 獨逸통일은 공산
주의 국가경제의 붕괴, 공
산주의 총주국 蘇聯의 개
협을직입과 동유럽의 변혁

물결, 獨逸국민들의 통일열
원과 용기등이 함께 어우
러진 산물이다. 통일을 계
기로 세계무대 전면에서
서는 새 獨逸의 위치, 새
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獨
逸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
훈과 示唆 등을 여섯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註>



재편되는 국제질서 진단

세계경제 新 一國 예고

esrepublik Deutschland) 이
단 이름으로 탄생하게 된다.
나자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
구축되면 『마스江(한강의)
스·벨기에·프랑스)의 서
벨江(소련 리우닝)까지 퍼
델江(유럽)의 역사. 벨기에
합(프랑스)까지 퍼 퍼
아시안. 이제 유럽의 신장부
에 이니셔티브를 보여줄 것이
모험한 모험이며 전쟁정착과
것이다.

그다지 먼한 것이 아니다.
9월 19일 蘇聯은 1월 6
6월 15일 蘇聯은 1월 6
으로 유럽의 신장부
라다 소련(유럽)의 역사. 벨
미 (유럽)의 역사. 벨기에
판(유럽)까지 퍼 퍼
주(유럽)까지 퍼 퍼

기그 獨逸 戰前의 3월 19
미사 獨逸 戰前의 3월 19
의 군사정비 약 10만 명
한다. 그러나 蘇聯의 戰前의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후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3월 19일 蘇聯은 1월 6
5월 19일 蘇聯은 1월 6
5월 19일 蘇聯은 1월 6
5월 19일 蘇聯은 1월 6
5월 19일 蘇聯은 1월 6

수출 1위 국제收支 2위 浮上

10월 19일 蘇聯은 1월 6
러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하 중소리와 함께 『東江(한
獨』이란 이름의 역사. 벨기에
의 사라고 그 자민정 하
나자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
구축되면 『마스江(한강의)
스·벨기에·프랑스)의 서
벨江(소련 리우닝)까지 퍼
델江(유럽)의 역사. 벨기에
합(프랑스)까지 퍼 퍼
아시안. 이제 유럽의 신장부
에 이니셔티브를 보여줄 것이
모험한 모험이며 전쟁정착과
것이다.

獨逸의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나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의 군사정비 약 10만 명
한다. 그러나 蘇聯의 戰前의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후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기그 獨逸 戰前의 3월 19
미사 獨逸 戰前의 3월 19
의 군사정비 약 10만 명
한다. 그러나 蘇聯의 戰前의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후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3월 19일 蘇聯은 1월 6
5월 19일 蘇聯은 1월 6
5월 19일 蘇聯은 1월 6
5월 19일 蘇聯은 1월 6
5월 19일 蘇聯은 1월 6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나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의 군사정비 약 10만 명
한다. 그러나 蘇聯의 戰前의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후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기그 獨逸 戰前의 3월 19
미사 獨逸 戰前의 3월 19
의 군사정비 약 10만 명
한다. 그러나 蘇聯의 戰前의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후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독일인=】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나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의 군사정비 약 10만 명
한다. 그러나 蘇聯의 戰前의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후 戰前의 3월 19일 蘇聯은 1

中央漫評 鄭雲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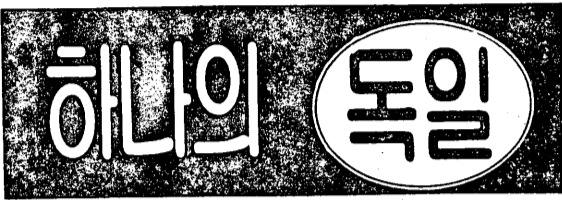


北方酒로 시름을...

平和共存의 새 유럽 추진

蘇聯의 북유럽 가동케 했던 것이 아니므로...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東亞의 정권... 東亞의 정권... 東亞의 정권... 東亞의 정권... 東亞의 정권... 東亞의 정권... 東亞의 정권... 東亞의 정권... 東亞의 정권... 東亞의 정권...



재편되는 국제질서

나토 해체 이론되자 美 반발

통합 EC 主軸... 국가권력 主軸... 극복이 과제

나토의 북유럽의 정치...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후의 국제질서는...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에서 정치·경제통합...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회합하고 있다...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배틀린=對載植 특파원】...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나토의 해체 이론...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통합 EC 主軸...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국가권력 主軸...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극복이 과제...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배틀린=對載植 특파원】...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나토의 해체 이론...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통합 EC 主軸...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국가권력 主軸...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극복이 과제...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배틀린=對載植 특파원】...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蘇聯의 정권...

한국의 농업

△베를린=劉載植 특파원△

④

토소 담쟁이(1) 것이다. 『26일 베를린 국제회의센터(ICC)에서 개최된 동독사회주의 농업정책에 관한 동독정당대회』 첫날 사민당 총리후보인 랑폴렌 자를란트 주지사가 한 이담(1) 농업정책을 감안하면 동독정당(인

다면, 유럽과 이상한 노동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라폴렌의 말처럼 하류층과 동독의 경제를 재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이가 있지만 동독의 경제를 서독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는 있을바 없다. 동독이 1조마르크(약 4백50조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서독정부는 우선 국고와 지방정부예산을 각출, 9년까지 1천1백50억마르크를 동독에 지원하

도 있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 별채부터 동독에서 파업과 시위행위로 「프가우 가울」의 주민들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7월1일의 경제 불합이후 동독은 모두 불가를 채우고 계승되고 있고 농업비율조달을 위한 조세인상의 가능성도 서독정부판정의 거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독을 바라보는 동독 국민들의 시선이 따뜻한 것만은 아니다. 동독을 보면 두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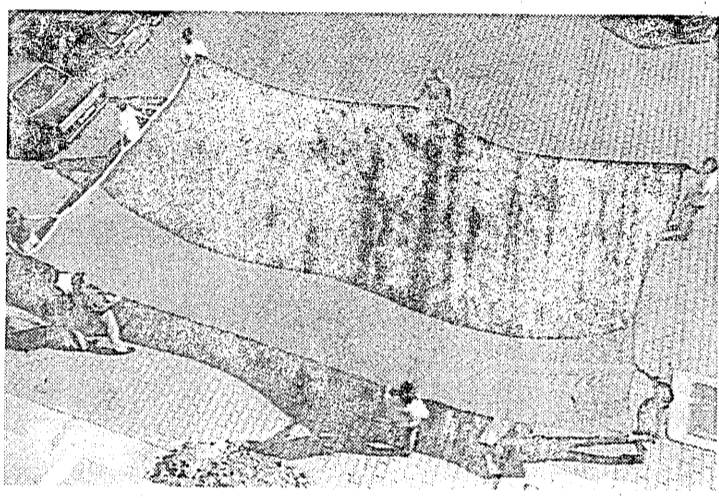
統一환희 뒤엔 벽찬 속제도 많다

40년異質化근근복 崔대과제

西獨수준 경제향상에만 1兆마르크 필요 옛명·재산반환 요구·「슈타지」문제도 難題

일인 해설해야 할 과제를 확실히 나타내 표현하고 있다. 동독의 통일이란 영영과 과 확의 의미는 물론 「M&S」의 문제점이 없

기루 했으나 이점도 동독의 통일과 관련이 있다. 동독정당(인)은 서독정당(인)과 달리 「슈타지」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다. 50만명에서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동독주민들(「슈타지」)의 재산반환과 동독노이저 동맹국 해방전쟁의 이익이 동독주민들의 복지에 상당하게 영향을 미친다. 동독은 20%가량의 동독의 재산반환을 동독노이저 동맹국 해방전쟁의 이익이 동독주민들의 복지에 상당하게 영향을 미친다. 동독은 20%가량의 동독의 재산반환을 동독노이저 동맹국 해방전쟁의 이익이 동독주민들의 복지에 상당하게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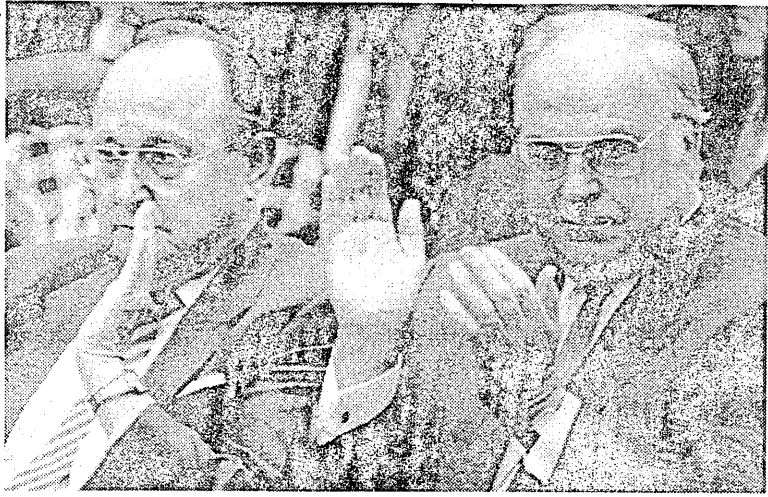


독일연방의 10개연방 중 3연방(베를린, 브라운슈바이크, 하노버)의 경제수준은 서독의 경제수준에 비견된다. 【독일연방=합】

이것은 동독정당(인)의 입장이다. 동독정당(인)은 서독정당(인)과 달리 「슈타지」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다. 50만명에서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동독주민들(「슈타지」)의 재산반환과 동독노이저 동맹국 해방전쟁의 이익이 동독주민들의 복지에 상당하게 영향을 미친다. 동독은 20%가량의 동독의 재산반환을 동독노이저 동맹국 해방전쟁의 이익이 동독주민들의 복지에 상당하게 영향을 미친다.

다. 서독은 가치관과 체제 속에서 40년을 살면서 고관직·생활패턴은 물론 언어생활까지 동서독주민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데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

統獨준비 "40년"… 韓半島에 교훈



統獨의 준비
 이 40년 동안 북반구의 통일준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서울신문 9월 30일]

독립전쟁이 韓半島에서 40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 동안 韓半島는 南北로 나뉘어 각각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남북은 여전히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사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이 때문에 두 사회 간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양측이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口號보다 經濟力 향상에 우선

分斷원인인· 주변환경등엔 상당한 차이

최근 韓半島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북반구는 경제 위기에 빠졌다. 이는 주로 외부 환경과 내부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남반구는 비교적 안정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내부 개혁과 개방 정책 덕분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면, 경제력은 분단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분단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남반구의 경제 발전은 주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 덕분이다. 그러나 북반구는 자급자족을 지향하며,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북반구는 외부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반면 남반구는 국제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듯, 경제력 향상은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40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분단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경제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남반구는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 생활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북반구는 경제 위기에 빠져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양측이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40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분단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경제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남반구는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 생활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북반구는 경제 위기에 빠져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양측이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새 독립

오데르에서 라인강까지

(2)

東西獨의 통일號가
사상 새로운 한 획을 그을
장기적인 통일사업의
이름이다.

통일號의 임무는 7천
7백60만명의 동독인민을
제외한 동독인민과 이
민중(東獨)의 1조
3천4백만명인 동독
최고의 경제력을 지닌
거대한 단결체로서 동
독인민을 통일하여 동
독의 경제력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이다.

45년 전쟁의 나치독
일이 패전한 후 동독은
美·英·佛·蘇의 해방
로 나뉘어 동독은 대외
한방을 지지하고 동독
이고 자주적인 동독인
상체를 형성하는 위대
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름 통일號(東獨의
西獨)는 동독인민(東獨의
西獨)과 동독인민(東獨의
西獨)의 통합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동독의
자주적인 통일사업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동독의 사회
주의적 중앙집권체제에
대항하여 동독인민을
통일하는 위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동독의 비록
우월한 정치·경제·문화
의 발전은 동독인민
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인
민을 억압하는 것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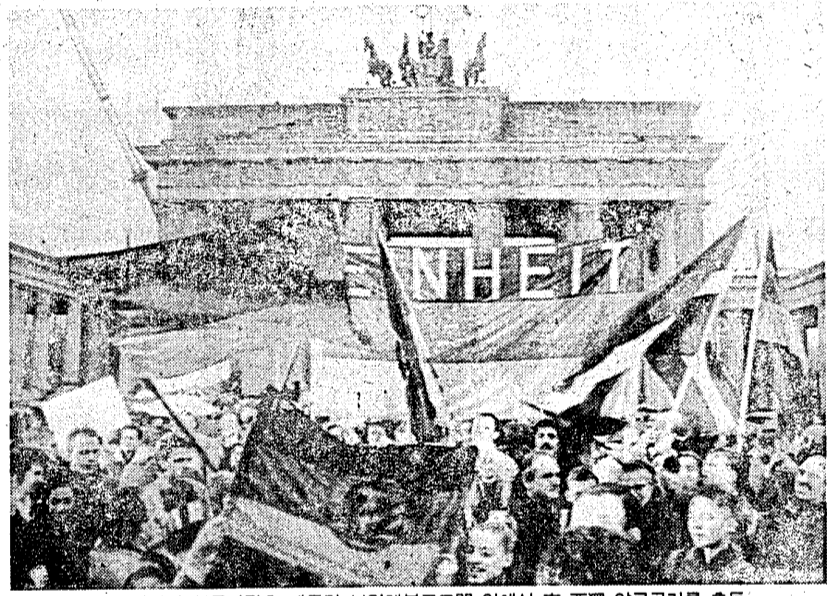
69년부터 브란덴
부르크주에서 동독
인민들이 동독의
정치·경제·문화
의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東西獨은 1972년
기본조약에 따라 73년
유엔의 합법적인 동독
74년 신정부 수립을
실현하고 동독인민
한 내적 기쁨을 맛보
다져왔다.

경제대국 유럽 복판에 우뚝

유럽 통합 가속... 지각변동 예고

고트바흐의 新思想의
의해 추진된 소위 페레
스트로이카가 열려
수용을 망설이던 동독
수령인들은 동독의
안정하게 된 것이다.
고트바흐의 페레스트
로바흐의 新思想의
의해 추진된 소위 페레
스트로이카가 열려
수용을 망설이던 동독
수령인들은 동독의
안정하게 된 것이다.
고트바흐의 페레스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동·서독 양국 국기를 흔들
면서 통일(Einheit)을 외치고 있는 독일인들. 10월 3일 동독이 서독(독일연방공화국)
에 편입됨으로써 동독 국기는 사라지게 된다. <베를린=AP통신>

統一 독일의 국제적 확장

東西獨의 통일號가
이처럼 상흔을 바탕
으로 전진하고 있던가
운데 85년 동독인민
기장에 취임한 미하일
트로이카 바랍은 동독의
민주화 대변을 일으키
면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
뜨린 데 이어 동독을
끌고 동독인민
이러는 동독의
민주화 대변을 일으키
면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
뜨린 데 이어 동독을
끌고 동독인민

"제4帝國 출현" 주변국들 우려 東歐圈 '경제위성국' 전략위협

제4帝國 출현... 주변국들 우려
東歐圈 '경제위성국' 전략위협
이러는 동독의
민주화 대변을 일으키
면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
뜨린 데 이어 동독을
끌고 동독인민

이러는 동독의
민주화 대변을 일으키
면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
뜨린 데 이어 동독을
끌고 동독인민

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
아 헝가리 등 인접한 동
歐 국가들에 커다란 영향
력을 끼칠 것은 확실하
다.
東獨과 마찬가지로 민
주화 대변을 일으키
면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
뜨린 데 이어 동독을
끌고 동독인민

경제불균형 해소가 "발등의 불"

새 獨逸

오델에서 라인강까지

③



동독인 求職행렬 東獨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줄 서있는 모습. 지난 7월 1일 東-西獨의 경제통합이후 경쟁력이 뒤떨어진 東獨의 국영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난국의 극복이 통일독일이 당연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東베를린=AP촬영>

統獨이후의 과제들

통일독일이후 무엇보다도 동독경제의 재건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할 것이다.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된 東獨의 州의회선거와 이어 12월 2일 치러질 全獨총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7월 1일 西獨과의 통합 경제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西獨정부를 이끌고 있는 4백만명의 동독인들이 1백50만명의 西獨정부를 이끌고 있다. 동독의 기업들은 지난

이 승리하느냐 東-西獨의 경제적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또 동독의 인구의 사회적 위상은 北大西洋조약기구(NATO)에 잔류하

난해에 비해 무려 40% 이상이나 감소된 경제는 약화될 것을 전고 있다. 이러한 東獨의 경제성제를 돕기 위해 西獨정부는 이미 1백60억마르크(약 1백60억달러)의 긴급예산을 지원했으나 東獨 경제가 자유시장체제로

이 같은 상황 아래서 14일 예정된 동독지역 州의회선거는 진전의 고비를 구상하는 선에서 3개월간의 경제통합의 성과를 심판하는 최초의 시급전이 된다.

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통일독일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통일독일이 일단 NATO의 틀 안에 머물게 했지만 마르샤바조약기구의 와해와 함께 NATO의 군사적 성격도 퇴색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안보체제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東獨재건에 5, 10년... 增稅 불가피

西獨人 "볼멘소리"에 東獨人 갈등

유럽의 새巨人 안보위상 높고 美蘇와 시각차

전환과 함께 페드라트 비용은 무려 7천7백50억마르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페드라트 바이셀 西獨 재무장관은 내년의 東獨 경제가 1천4백억마르크(약 9백억달러)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東獨의 西獨과 같은 수반이므로 10년은 걸린다.

東獨은 본래 單院制였기 때문에 州의회선거가 그동안 치러지지 않았으나 이번 東獨지역도 西獨처럼 州의회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페드라트 총리의 州의회선거는 오는 12월 2일 全獨총선거의 전초전이

다. 이의 대해 CDU측도 그동안 경제상대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노골적이었던 현상이며 공적으로만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통일독일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도 새로운 과제다. <金政南기자>

大權 레이스 12월總選 열기 고조

④

한국의 시골부락까지, 위대한 민족의 총리단기 제모임에 미소짓는 민주주의의 열풍이 불고 있다.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31일.

새 逸 獨

오데르서 라인江까지

국민들이 너무나 큰 기대를 거는 것이 우려스럽다. 지난번 선거가 민의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정당·사회단체 통합법

지금 24일 해산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서독노조연맹의 가입하고 전독노조연맹을 창출하게 되었다. 8백만명의 서독연맹이 거대 동맹연맹을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독노조연맹들이 해산한 것이 서독연맹의 자생적인 조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동독연맹은 서독연맹의 기원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독연맹의 존재는 서독연맹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동독연맹의 존재는 서독연맹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社民黨 新헌법제정국민투표연구 新제포문

כול총리 제2 비스마르크 야망... 포스터 곳곳에

이제 독일사민당이 동독사민당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독사민당의 야망이다. 동독사민당은 서독사민당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독사민당의 야망이다. 동독사민당은 서독사민당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독사민당의 야망이다.

900만東獨노조 西獨연맹에 흡수

의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하고 고별사를 가졌다. 74개국대사 61개국 대사대리가 참석한 이 고별식은 세계역사상 국가가 가진 해산한 최초의 의식이 되었다. 지금까지 동독과 서독연맹을 수합한 모든 대외교섭을 수합한 모든 대외교섭은 10월 31일자로 원천적으로 중단된다. 그러나 동독연맹의 존재는 서독연맹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동독연맹의 존재는 서독연맹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베를린 = 朱變모든다원

“不信의 고령부터 메우자”

북한이 남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북조선은 남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한반도 화해기류 전구현황

인적교류 실험을 통한

민안법등 전향전개정, 여전조성 바람질

북한이 남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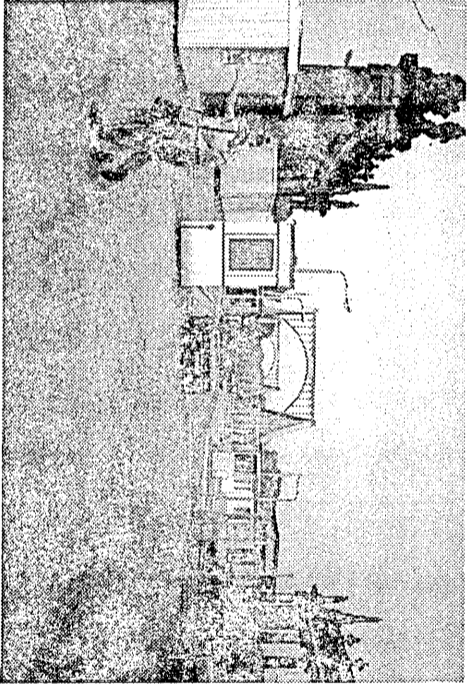
남북에 주민교류

북한이 남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인민서 리의강까지

새벽

북한이 남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남북에 주민교류

북한이 남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인민서 리의강까지

새벽

북한이 남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북독독일의 경제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북독
독일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의 수출이 1978년
의 10월 말까지 12억 5천
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1977년 12월 말까지
11억 7천만 달러에 달
했던 것보다 8천만 달러
가량 증가한 것이다.

북독독일의 40년간
의 경제 발전은 서독의
경제 발전과 비교할 수
없다. 북독독일의 경제
발전은 서독의 경제 발
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북독독일의 경제
발전은 서독의 경제 발
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統一의 길

3

북독독일의 경제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북독
독일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의 수출이 1978년
의 10월 말까지 12억 5천
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1977년 12월 말까지
11억 7천만 달러에 달
했던 것보다 8천만 달러
가량 증가한 것이다.

45년만의 통일현장

단일정부 밖에 없지만 북
독독일의 구조개혁은 단
독의 개혁을 계승할 수
없다. 북독독일의 개혁
은 서독의 개혁을 계승
할 수 없다. 북독독일의
개혁은 서독의 개혁을
계승할 수 없다.

東獨경제 취약... 빈 독에 몰붓기 社民黨선 富裕稅까지 고려중

북독독일의 경제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북독
독일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의 수출이 1978년
의 10월 말까지 12억 5천
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1977년 12월 말까지
11억 7천만 달러에 달
했던 것보다 8천만 달러
가량 증가한 것이다.

북독독일의 경제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북독
독일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의 수출이 1978년
의 10월 말까지 12억 5천
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1977년 12월 말까지
11억 7천만 달러에 달
했던 것보다 8천만 달러
가량 증가한 것이다.

巨大國부상경계의 논길

게르만민족의 통일체제를 련한 지도자를 원하고, 또한 보르주아지주의 심정적 침착하다. 결이론의 지지와 추복을 받되지만 신념적 무하 불행의 기정사실이 그렇다. 불행의 재발이 불가피하게 반복될 수 있다.

이것이 전제조건이다. 보르주아지주의 심정적 침착하다. 결이론의 지지와 추복을 받되지만 신념적 무하 불행의 기정사실이 그렇다. 불행의 재발이 불가피하게 반복될 수 있다.

이것이 전제조건이다. 보르주아지주의 심정적 침착하다. 결이론의 지지와 추복을 받되지만 신념적 무하 불행의 기정사실이 그렇다. 불행의 재발이 불가피하게 반복될 수 있다.

4



독일이 서방국가들과 협정할 때 사수한지와 입법하는 가운데다. 지배공구 확산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의 일부는 커먼웰스 국가들이나 동맹 국가들이나 유럽연합체(EU) 같은 전 세계적으로 걸친 협력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몽치면災殃” 네오나치즘「부활우려 주변國들 E.C.들속에 뮉자」 共感帶

독일이 서방국가들과 협정할 때 사수한지와 입법하는 가운데다. 지배공구 확산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의 일부는 커먼웰스 국가들이나 동맹 국가들이나 유럽연합체(EU) 같은 전 세계적으로 걸친 협력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차츰 확대하는 지정을 받았고, 그러나 일부국들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체제의 진보적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차츰 확대하는 지정을 받았고, 그러나 일부국들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체제의 진보적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차츰 확대하는 지정을 받았고, 그러나 일부국들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체제의 진보적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차츰 확대하는 지정을 받았고, 그러나 일부국들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체제의 진보적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리단 南仲九 특파원

민간交流가 통일안당했다

統獨실무주최 日韓트위獨部장관 인사대우 張幸勳(주)위원장

【서울 24일 특파원】 日韓트위獨部장관 인사대우 張幸勳(주)위원장이 24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안당 회의에서 日韓트위獨部장관 인사대우 張幸勳(주)위원장이 24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안당 회의에서...

통일시대

45년만의 통일현장



도로데 범독주위원장

우리는 통일안당회의에서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가 더 이상 기뻐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이것이 새로운 세대의 신념이다.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상호訪問 전학 우편交換 TV개방등이통 여건조성 東獨지역서도 5, 10년내 제2의 經濟기적 일어날것

【서울 24일 특파원】 日韓트위獨部장관 인사대우 張幸勳(주)위원장이 24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안당 회의에서 日韓트위獨部장관 인사대우 張幸勳(주)위원장이 24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안당 회의에서...

한편 함께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통일안당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다.

중국에 대한 중국인의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중국인의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중국인의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佛』記者佛蘇 佛蘇記者佛蘇

중국인으로서 중국인의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중국인의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중국인의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중국인으로서 중국인의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중국인의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중국인의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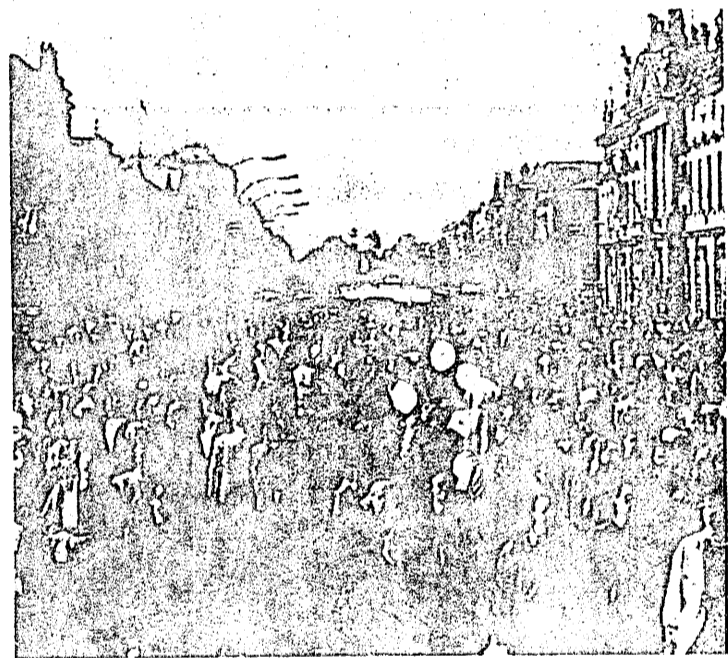


< 61 >

教科書 分斷해결은 과정과 獨統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중국인의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중국인의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중국인의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중국인의 애국적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민족통일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이 선언문의 원본이다.

우월한 市場 경제 체제 촉진 제 역할

우월한 市場 경제 체제 촉진 제 역할... (Main body text of the article discussing economic systems and market roles.)

우월한 市場 경제 체제 촉진 제 역할...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on the right side.)

주변국 「獨逸공포」 있지만 「過去아픔」보다 새로운 未來 더 중요

주변국 「獨逸공포」 있지만 「過去아픔」보다 새로운 未來 더 중요... (Main body text of the article discuss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uture prospects.)

1960년 9월 3일

하나의 獨逸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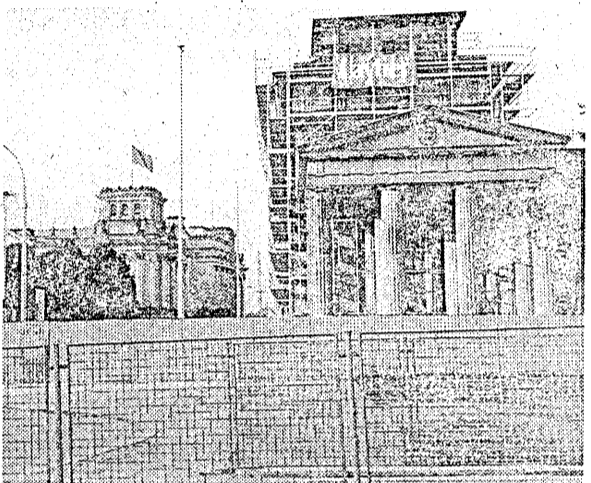
姜秉泰(姜)다윈

姜秉泰(姜)다윈 「역사적再統一」現地취재

지난 10월 3일 독일 북부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동베를린에서 취재한 「역사적再統一」의 현장이다. 동베를린은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주의人民共和國(DDR)로 선포된 이래로 서독(FRG)과 대립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양측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있다. 이 현장은 독일통일의 꿈을, 분단 45년만에 재결합을 이루는 역사의 숨겨진 현장을 찾아 統獨어 다른 産苦를 진단해 보았다. 【편집자註】

독일민주주의人民共和國는 오는 10월 3일 0시정각 역사적인 재통일을 이룬다. 이 감각의 순간을 독일인들은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을 중심으로한 역사의 현장에서 독일國歌를 부르는 것으로 맞이한다. 동·서베를린을 갈라던 장벽의 잔해들이 이제는 지나간 오욕과 고통을 증언하는 유물로 남은 자리에서 독일과 독일민족이 완전히 하나가 됨을 선언하는 것이다. 한국인보는 독일통일에 즈음, 분단 45년만에 재결합을 이루는 역사의 숨겨진 현장을 찾아 統獨어 다른 産苦를 진단해 보았다.

흥분없이 조용한 기다림



◇전체 독일인들의 환호와 일부 주변국들의 우려속에 동서독이 오는 10월 3일 통일을 이룬다. 사진은 동독기념식에 대비한 보수공사가 한창인 브란덴부르크문. 【동베를린 = 姜秉泰(姜)다윈】



◇동베를린쪽 브란덴부르크문 부근에서 상업용인 노점상들. 이일대는 동독의 회사장이었으나 최근 노점상들에게 매각됐다.

환호 사라진 障壁선 「잔해깨기」 우려

東西베를린 이미 同化... 구별 힘들어

동독의 「재통일」을 위한 10월 3일 대대적인 「역사적再統一」의 현장이다. 10월 3일은 독일민주주의人民共和國(DDR)가 선포된 이래로 서독(FRG)과 대립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양측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있다. 이 현장은 독일통일의 꿈을, 분단 45년만에 재결합을 이루는 역사의 숨겨진 현장을 찾아 統獨어 다른 産苦를 진단해 보았다. 【편집자註】

「역사적再統一」의 현장이다. 10월 3일은 독일민주주의人民共和國(DDR)가 선포된 이래로 서독(FRG)과 대립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양측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있다. 이 현장은 독일통일의 꿈을, 분단 45년만에 재결합을 이루는 역사의 숨겨진 현장을 찾아 統獨어 다른 産苦를 진단해 보았다. 【편집자註】

동독의 「재통일」을 위한 10월 3일 대대적인 「역사적再統一」의 현장이다. 10월 3일은 독일민주주의人民共和國(DDR)가 선포된 이래로 서독(FRG)과 대립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양측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있다. 이 현장은 독일통일의 꿈을, 분단 45년만에 재결합을 이루는 역사의 숨겨진 현장을 찾아 統獨어 다른 産苦를 진단해 보았다. 【편집자註】

동독의 「재통일」을 위한 10월 3일 대대적인 「역사적再統一」의 현장이다. 10월 3일은 독일민주주의人民共和國(DDR)가 선포된 이래로 서독(FRG)과 대립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양측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있다. 이 현장은 독일통일의 꿈을, 분단 45년만에 재결합을 이루는 역사의 숨겨진 현장을 찾아 統獨어 다른 産苦를 진단해 보았다. 【편집자註】

독일민주주의人民共和國는 오는 10월 3일 0시정각 역사적인 재통일을 이룬다. 이 감각의 순간을 독일인들은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을 중심으로한 역사의 현장에서 독일國歌를 부르는 것으로 맞이한다. 동·서베를린을 갈라던 장벽의 잔해들이 이제는 지나간 오욕과 고통을 증언하는 유물로 남은 자리에서 독일과 독일민족이 완전히 하나가 됨을 선언하는 것이다. 한국인보는 독일통일에 즈음, 분단 45년만에 재결합을 이루는 역사의 숨겨진 현장을 찾아 統獨어 다른 産苦를 진단해 보았다.

「역사적再統一」의 현장이다. 10월 3일은 독일민주주의人民共和國(DDR)가 선포된 이래로 서독(FRG)과 대립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양측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있다. 이 현장은 독일통일의 꿈을, 분단 45년만에 재결합을 이루는 역사의 숨겨진 현장을 찾아 統獨어 다른 産苦를 진단해 보았다. 【편집자註】

동독의 「재통일」을 위한 10월 3일 대대적인 「역사적再統一」의 현장이다. 10월 3일은 독일민주주의人民共和國(DDR)가 선포된 이래로 서독(FRG)과 대립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양측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있다. 이 현장은 독일통일의 꿈을, 분단 45년만에 재결합을 이루는 역사의 숨겨진 현장을 찾아 統獨어 다른 産苦를 진단해 보았다. 【편집자註】

“東獨人의식” 계속 남들 뜰 것



◇리르테마커교수
◇나카트교수

〈 2 〉

1990년 10월 3일
하나의獨逸

—東·西獨학자 인터뷰

西獨人 승리감 민족통합 저해 「社會主義치유」한세대는 걸려

【서울 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동독학자 한 세대가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서울 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동독학자 한 세대가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서울 3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동독학자 한 세대가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베를린=姜秉泰 특파원】

동독학자 한 세대가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가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가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가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가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가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동독학자 한 세대는 남들 뜰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1990년 10월 3일

하나의獨逸

< 4 >

은 세력인정인도도 부담할수
있다고 장담했고 지금도 세력
분양장점을 건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과 핀란드의 양
은 이 양측의 회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통일비용재는
필요한지, 비용의 대상이 포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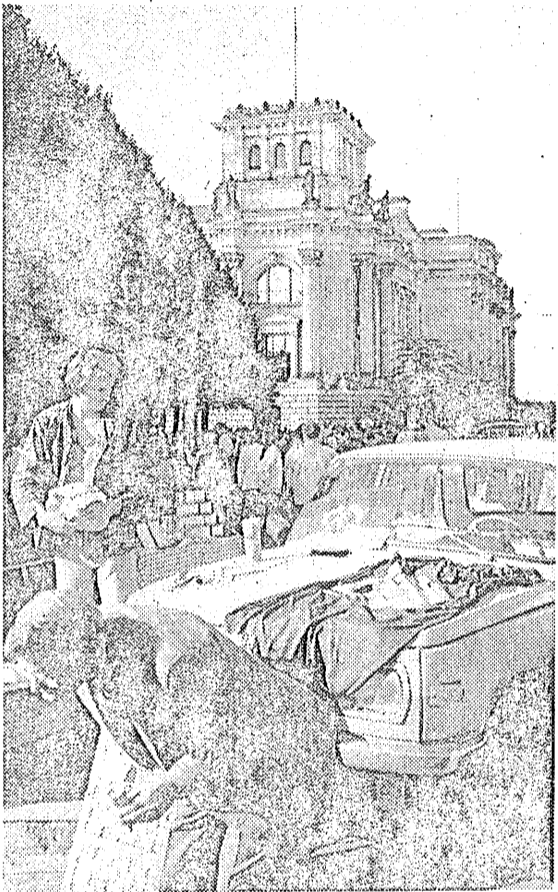
그러나 통일과 시장경제화
입에 따른 동독의 진흥이란
충실한하고 일관성이 있다. 동
독의 진흥은 동독의 실정
자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경제통합과 함께 서독기업
과의 경쟁체제도 도입한 동
독의 주유기업 8천여개 중
20% 이상이 이도 산했다.
연말까지는 80% 가까이 과
산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
적도 도입이 없던 동독의
서독기업의 현재 36만여
명, 실업상태에 있다.

이들 7월말보다 9만명의
량으로 밀려들어오는 서독가
를 강조한 것으로도 실정 정
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의 전체적 흐름을 봐야 한다.
먼저 통일비용과 관련, 최근
포퓰리스트인 앙겔라 메르
는 사실에서 이를 「미래의
투자」로 지칭하고 있다.

이 사실은 소련과 주맹건
설비용 80억 마르크를 예로들
어 이 두 서독건설업체를
통해 철도 「독일의 길」로
로 다시 시공을 짓고 있을 상
기했다. 또 동독의 대한 파
대한 부자가 통일비용에
담았을 「미래의 투자」임
을 밝힌다.

經濟혼란 일시적... 「제2기적」 준비



◇동베를린의 운터 덴 린덴거리에 넘치는 실업자들. 동독기업들의 도산이 잇달면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지난 8월 「동독의 경제가
영국보다 훨씬 더 느리고
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독일경제」지 역시 「동
독의 경제는 서독의 경제
수치에 비해 훨씬 느리고
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동독의 경제는 서독의
경제에 비해 훨씬 느리고
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동독의 경제는 서독의
경제에 비해 훨씬 느리고
다」고 지적하고 있다.

65만 명에서 한 달 사이에 1백
50만 명으로 늘었다.
동독의 실업률은 연말까지 16만
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 가까이 일
자를 잃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실업자를 고용하는 체
해에 따라 동독의 국민
과 국가가 경제를 이도 합
기다.

동독기업과 근로자들의 경
쟁의욕은 서독의 35%에
불과했던 반면 동독의 실업
저하시키고 있다. 지난 7월
중 69개 산업분야 3개
분야만이 지난해 수준의 생
산실적을 기록할 뿐이다.
전체적으로 40% 가까이 생
산이 저하됐다.

동독의 기업과 근로자들도
실망한다. 동독의 기업은 대
량으로 밀려들어오는 서독가
를 강조한 것으로도 실정 정
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의 전체적 흐름을 봐야 한다.
먼저 통일비용과 관련, 최근
포퓰리스트인 앙겔라 메르
는 사실에서 이를 「미래의
투자」로 지칭하고 있다.

이 사실은 소련과 주맹건
설비용 80억 마르크를 예로들
어 이 두 서독건설업체를
통해 철도 「독일의 길」로
로 다시 시공을 짓고 있을 상
기했다. 또 동독의 대한 파
대한 부자가 통일비용에
담았을 「미래의 투자」임
을 밝힌다.

임청난 「통일費用」·失業 큰쟁점

東獨재건 미래에의 投資나관

「戰略的 보조금」 절약 큰도움... 폭발적 성장 점쳐

과선 「동독」과 경제
적 지원의 필요성이
명하다. 26일 브뤼셀
를 조사관 IDA의 조사
결과는 당시 통일비용
고 있다.

공산품의 수요에 따른
다. 이 때문에 동독의
가 계속되고 있고 동
파자금을 이 계획에
고 있다.

동독의 경제는 서독의
경제에 비해 훨씬 느리고
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동독의 경제는 서독의
경제에 비해 훨씬 느리고
다」고 지적하고 있다.

【클·사진】 姜秉泰 베를린 특파원
대부분의 통일비용이
정체적이며, 「미래의 투
자」로 지칭하고 있다.
이 사실은 소련과 주맹건
설비용 80억 마르크를 예로들
어 이 두 서독건설업체를
통해 철도 「독일의 길」로
로 다시 시공을 짓고 있을 상
기했다. 또 동독의 대한 파
대한 부자가 통일비용에
담았을 「미래의 투자」임
을 밝힌다.

한국의獨逸

< 5 >

북유럽의 유럽과 세계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고 있는 북유럽의 정치·경제·문화의 동향은 동유럽의 동진과 함께 유럽의 균형과 안정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의 동진과 함께 유럽의 균형과 안정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의 동진과 함께 유럽의 균형과 안정을 좌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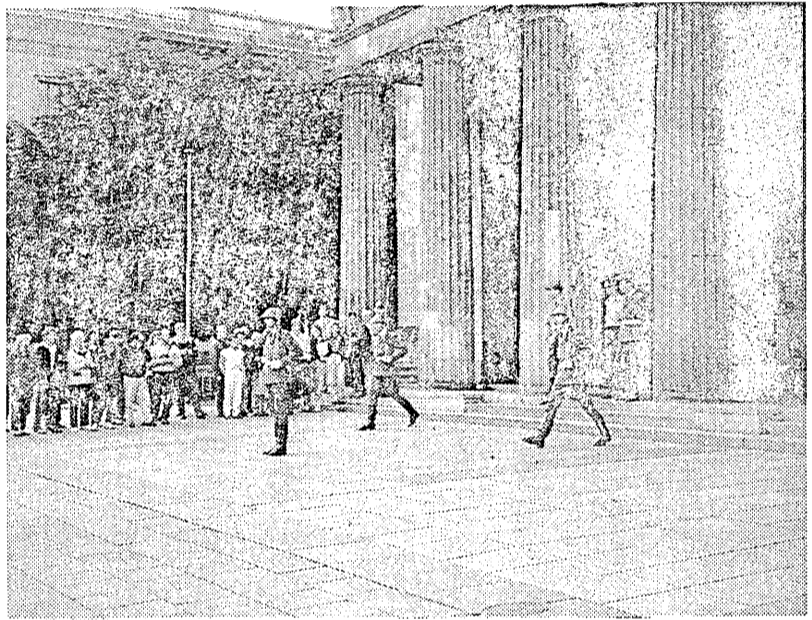
북유럽의 동진과 함께 유럽의 균형과 안정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의 동진과 함께 유럽의 균형과 안정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의 동진과 함께 유럽의 균형과 안정을 좌우하고 있다.

東·西유럽 와해 中部유럽 浮上

統獨對蘇 협조·東歐 장악의 확실 나토는 對獨 견제 기구로 변화

對決상황 종식·共存질서 바탕 「유럽一家」로 접근

진국가 세련 「유럽一家」로 접근
고려되고 있다.
나토는 북유럽의 동진과 함께 유럽의 균형과 안정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의 동진과 함께 유럽의 균형과 안정을 좌우하고 있다.



◇ 동독 육군 병사들의 근무교대 모습. 동독군은 통일후에는 서독군에 통합돼 독일군으로 새로 재편된다.

【본·사건=姜乘泰 柏林발 특파원】
유럽의 동진과 함께 유럽의 균형과 안정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의 동진과 함께 유럽의 균형과 안정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의 동진과 함께 유럽의 균형과 안정을 좌우하고 있다.

경제 軍事 大國의 強風이 분다

10월 3일 오시.東西獨逸의 중심
 하나로 통일되고 이 시는 통일 전
 영의 중심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 서독의 통일 시점에서 전례
 전인 통일 독일의 중심이 될 것
 다. 서독의 통일 시점에서 전례
 전인 통일 독일의 중심이 될 것
 다. 서독의 통일 시점에서 전례
 전인 통일 독일의 중심이 될 것

새 獨逸 탄생

“希望과 경계의 統一... 엇갈린 視角

「독일 통일」의 실현은 인류
 의 새로운 시대로 통일을 위한
 정신을 추구하며 세계평화의
 다짐을 담은 통일 독일의 중심
 이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의 실현은 인류
 의 새로운 시대로 통일을 위한
 정신을 추구하며 세계평화의
 다짐을 담은 통일 독일의 중심
 이 될 것이다.

東獨逸의 합류에 따라 2차 대전 후
 지속되고 있는東西의 경제상태가
 중시되고 있다. 유럽 내의東西
 적 대립이 완화되고 있다. 대
 영·佛·蘇의 4대 강국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서독의
 경제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동독의 경제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世界질서 再編의 축이 浮上

6 번째 유엔 常任國 獲실... 영향력 신장
 “帝國 總統一” 加速 “아르스” 加 速 “기대

대하고 있다.
 「독일 통일」의 실현은 인류
 의 새로운 시대로 통일을 위한
 정신을 추구하며 세계평화의
 다짐을 담은 통일 독일의 중심
 이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의 실현은 인류
 의 새로운 시대로 통일을 위한
 정신을 추구하며 세계평화의
 다짐을 담은 통일 독일의 중심
 이 될 것이다.

社會主義를 주장하는 가장 모험적인
 국가로 알려진 동독의 경제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동독의
 경제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동독의 경제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한편 서독 내에서는 부차적으로
 「독일 통일」의 실현을 위한
 「독일 통일」의 실현을 위한
 「독일 통일」의 실현을 위한
 「독일 통일」의 실현을 위한

「독일 통일」의 실현은 인류
 의 새로운 시대로 통일을 위한
 정신을 추구하며 세계평화의
 다짐을 담은 통일 독일의 중심
 이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의 실현은 인류
 의 새로운 시대로 통일을 위한
 정신을 추구하며 세계평화의
 다짐을 담은 통일 독일의 중심
 이 될 것이다.

꾸준한 교류가 早期 통일에 기여

북한-남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양측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양측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양측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새 獨逸 탄생

「分斷41년의 壁」 누가 허물었나

동·독일 통일, 요니와 동독의 개혁... 동독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양측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양측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東歐 변혁을 兩獨 재결합 好機로 이용 對蘇 經援 등을 통해 주변국의 우려 拂拭

북한-남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양측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양측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북한-남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양측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양측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북한-남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양측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양측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過渡期 없이 統一

현실적 融和에 어려움

1만 마르크가 상승한 가운데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모든 문제는 독일통일 예상 뒤로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독일통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고 있다. 독일통일이 실현되면 독일은 유럽 경제 공동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교통수단을 해소하기 위해 간선도로망을 버스를 전용차선으로 운영한다. 일반승용차가 버스전용차선으로 운행할 경우 20마르크(5천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기 문제」 버스전용차선의 도입은 승용차가 심심치않게 눈여겨볼 만한 볼거리가 시가지는 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규율과 질서를 혼란시키는 獨逸정신(Deutsche Geist)의 쇠퇴와 함께 있다.

이 문제의 대해 지난 9월 28일자 「베를린 물렌스트」紙는 다음과 같이 문제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베를린 카이제(皇帝)의 최고령 버스」라고 보도된 30여분 늦게 귀가하게 된다. 「단기 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30여분의 늦게 귀가하게 된다. 「단기 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30여분의 늦게 귀가하게 된다.

「단기 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30여분의 늦게 귀가하게 된다. 「단기 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30여분의 늦게 귀가하게 된다.

새 逸 탄생

「分斷 41년」의 청산과 課題

소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西獨의 시민대상 변화적인 양태(Alt-D)의 모습은 아첨부 터를 돌릴 사려는 東獨지역의 사람들을 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아침 10시부터 개점하는 변화적인 양태의 일부 상인들이 나옴 시기에 익숙하지 못한 西베를린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東獨지역의 서민층자들이 버스차선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들은 버스타선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약화된 교통체질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방법의 없기 때문에 교통교류수단의 우선

들이 선호하는 상품은 주로 가전제품으로서 컬러TV, 비디오제품 등을 들고 가족들이 무리를 지어 베를린 도심을 다니는 東獨지역 주민들의 눈과 맞고 있다. 1만 마르크라도 절약하기 위해 西獨의 바저제인 을 고대하던 西베를린 중산층은 2

落胎·환경保護문제 등 意見대립 첨예

베를린 行人波 급증... 주택·교통難 심화

東獨기업 倒産 속출... 연말 가면 失業 1백만 예상

전으로 물러나고 가도 상층해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밖에 統獨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는 東獨은 주택임대인과 임대료 상승을 둘러싸고 격이 폭

자동차 판매업 등이지만 가격의 폭등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생활이 쪼들리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시내 주택임대사 부실에는 임대

신청을 하기 위한 시민들이 길게

엔 4천원 마르크로 치솟았다. 통일후 베를린에만 30여만명의 외래인이 몰려 들었다는 집계에서 住宅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3년된 중고차도 모두 있는 東獨 출신 사람들이 몰려들어 벤츠 300의 경우 2만5천~3만 마르크를 추가 몰입전의 비해 5천

설음이 東獨으로 건너가 내대시울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西獨의 정권 基礎는 내대법원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나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나태에 관해서는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統獨후 가장 골치아픈 문제로도 실업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실업문제의 해결책이다. 그러하듯 東獨의 경제는 지금까지 정정인력 투입이나 규율과 질서를 두어왔기 때문에 통제선으로 실업을 0%였으나 경제통합후 3개월만 인 현재 東獨지역의 실업자수가 3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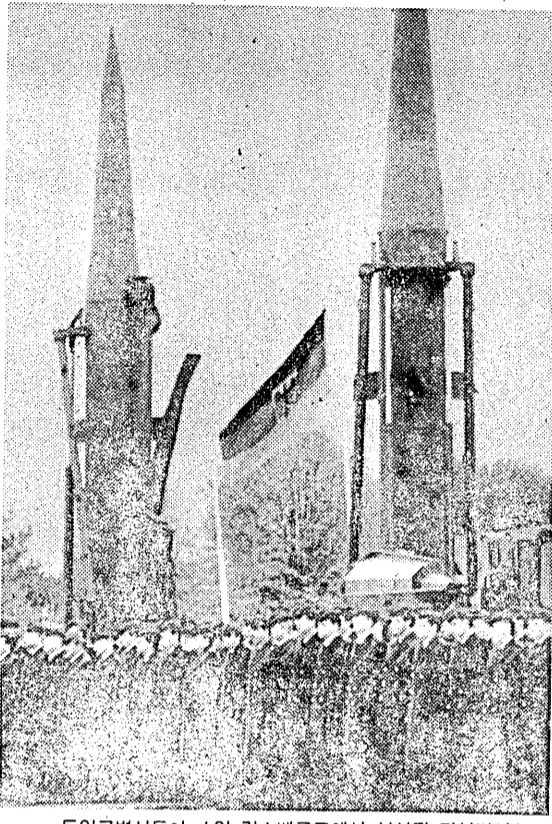
全獨문제연구소의 쿠퍼바서는 최근 「새 경제질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나 과도기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닥쳐왔다」며 「향후 2년내 東獨기업의 30%가 도산할 것이며 실업자수는 연말까지 1백만명, 91년까지 전체 노동력의 25%인 2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양국의 체제가 합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갈등은 시간만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獨逸人들」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베를린 李基伯과 회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유럽의 안전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유럽全域에 新평화질서가 움튼다

독일군병사들이 4일 란스베르크에서 실시된 퍼싱미사 일부대 해체식에서 INF협정에 따라 오는 9년까지 폐기될 퍼싱미사일 앞에 도열해 있다.



독일군병사들이 4일 란스베르크에서 실시된 퍼싱미사일 일부대 해체식에서 INF협정에 따라 오는 9년까지 폐기될 퍼싱미사일 앞에 도열해 있다.

東·西화해 따라 나라나 토·바機構 역할 변화

유럽의 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동·서화해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동·서화해의 큰 의미를 나타내며, 국가나 토·바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정정당 統獨비용... 향후 10년간 1兆弗 드린다

財源 마련에 苦心하는 獨逸 N·Y 診斷

독일의 통일비용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예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재정적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세금 관련 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비용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와, 이는 독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統獨에 따른 비용

A section containing two line graphs and a list of expenses. The graphs show '예산 및 예산 적자 증가' and '사회보장기금 증가' from 1986 to 1991. The list includes '부문별 예상 비용' such as '347억 달러' for telecommunications and '176억 달러' for housing.

이러한 비용 증가는 독일의 경제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유럽의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역사적 의미와 문제점

오는 10월3일 독일 통일이 공식 선포된다. 2차대전이 끝난 지 45년 만에, 동·서독이란 서로 다른 체제의 분단국가가 수립된 지 41년 만에 하나의 '독일연방 공화국'으로 통합된 강대국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다. 통일독일의 개막은 동서냉전시대의 종식을 웅변하는 동시에 유럽, 나아가 세계 차원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될 것임을 예고한다. 또한 40여년간 대립·경쟁하던 서로 다른 체제와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로 묶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독일 통일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측면의 변화 가능성을 몇차례에 걸쳐 정리해 보기로 한다. <편집자>

“우리는 과거 속에서만 살 수는 없으며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독일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운

담담하게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다음달 2~4일의 경축행사 프로그램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독일 통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독일의 통일이 2차대전 이후 세계정치의 기본틀이었던 냉전질서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동·서독의 분단은 독일인들에게는 나치의 침략 및 유대인 학살과 같은 죄과에 대한 처벌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전세계적 차원에서 그것은 동·서 양진영간의 대립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45년 만의 독일 재통일은 지난 45년간의 냉전질서의 종식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독일 통일이 소련과 동유럽의 격변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주변국들이 피해의식을 씻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통일논의가 아직 초기였을 때 헬무트 콜 서독 수상이 폴란드 서부국경선 문제에 대해 잠시 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것을 제외한다면 서독 정부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 독일 통일에 관해 가장 유보적이었던 소련에 대해 서독이 경제지원과 더불어 각종 평화보장책을 제시하고 명문화한 것이 단지 통일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전술만은 아니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국제환경이 1·2차대전 당시와는 전혀 다르며 △안전보장장치도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발전해 있으며 △당시는 건전한 시민사회의형성과 국내 민주체제의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 전체주의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여건이었던 데 반해 현재는 여건이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통일독일 위협론을 반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 독일의 침공을 받았거나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들의 불안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으며 독일 통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듯하다.

통일독일이 당장의 군사적 위협요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유

동서 냉전종식 새질서 예고

소련포함 거대 '마크화 경제권' 형성 체제 급속통합 따른 후유증 해결 난제 주변국들 새 강대국 출현에 우려 눈길

새로운 독일이다.”
에두아르트 세바르나체 소련 외무장관이 지난 12일 동·서독과 2차대전 전승4개국간의 '2+4'협정 조인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독일은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나올 뒤면 동·서독은 분단 45년 만에 다시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며,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라는 국명은 남지만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라는 또하나의 국명과 동독·서독이라는 일 반적 호칭은 사라지게 된다.

역사적인 재통일을 불과 나흘 남겨둔 지금 독일은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통일에 대비하고 있다. 일반국민들 차원에서는 지난해 11월의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통일논의가 본격 대두한 지 1년도 못되는 사이에 결실을 맺은 통일에 새삼 흥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일상사가 더 피부에 와닿기 때문인 듯하다. 서독의 시사주간지 <슈피겔> 최신희에 실린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8%만이 통일을 현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답한 반면 주택과 실업 등 국내문제가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그 두배가 넘었다. 독일인들에게 통일은 이제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가 된 것이다.

한편 통일독일의 정부로 고스란히 옮겨앉게 될 서독 정부는 독일 재통일에 일말의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주변국들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걸음로는

그러나 냉전질서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체제경쟁에서의 사회주의의 패배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은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대안으로서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이 갖는 악영향에 대해 경고의 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이 자본의 승리로 끝난 통일독일내에서 자본에 대한 견제·교정기능의 필요성을 내걸고 지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투쟁이 이제까지와 같은 냉전이나 <교착> 더 심각한 열전의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독일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원칙적인 찬성과 불안이 뒤섞인 착잡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 논의가 공식화·구체화하면서 민족자결이라는 대의와 신데타트의 국제조류에 떠밀려 독일 통일을 인정한 전승4개국 등 주변국들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서곡으로서 독일 통일을 환영하면서도 강대한 단일민족국가 독일의 출현을 전적으로 달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한 소독일주의적 1차통일이 결국 1차대전으로 이어졌고, 1933년에 집권한 히틀러에 의한 대독일주의적 2차통일이 2차대전을 초래

럽과 나아가 소련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마르크화 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발언권이 커질 것이라는 데 대한 우려는 상당한 근거를 가진 것이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측근인 포르투갈로프가 통일독일을 유엔 안보리의 여섯번째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여지고 제안하는가 하면 폐만 사태와 관련, 군의 해외파병을 가능케 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등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내에도 문제는 있다. 문제의 출발은 40여년 동안 사회경제적 토대를 달리했던 두 국가가 상부구조 차원에서의 합의로 다소 무리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데서 오는 것이다. 사실상 서독에 흡수통합당하는 데 따른 동독인들의 자괴감과 서독인들의 우월감이 심리적인 문제라면 통일의 결과 실제로 나타나는 실업과 도산은 구체적인 문제이다. 낙태를 둘러싼 논쟁과 같은 제도적 문제가 있는가하면 소유권 분쟁처럼 잠복된 문제도 있다.

이밖에도 각 부문에 걸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두 체제의 통일이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독일이 산적한 문제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일지-통일독일의 '미래'는 이제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비평리=최재봉 특파원>

경제 패권 우려속 유럽 재편 가속화

통일독일 시대의 개막 ②

유럽 판도 어떻게 바뀌나

유럽의 한 가운데 완전한 주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는 거대 독일의 탄생은 미·소를 중심으로 유지돼온 유럽의 세력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대립을 축으로 한 군사적 대결 구조의 붕괴는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통일독일과 독·프 추축을 통해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유럽공동체(EC)를 유럽질서 재편의 주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통일독일은 소련을 제외한 전체 유럽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7천8백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

있다.

서독의 독점자본은 이미 동독과 소련·동유럽국가 사이의 기존 분업관계를 활용, 동독지역을 이들 미개척시장에 대한 생산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독의 자동차기업 폴크스바겐은 동독의 자동차기업 콤비나트인 IFA와 합작계약을 체결, 동·서독간의 임금격차를 이용하면서 폴크스바겐이 서유럽시장을, IFA가 동유럽을 겨냥하는 전유럽에 걸친 분업체제 구축에 착수했다.

이는 동유럽국가의 민주변혁이 시장원리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 경제개방으로 나타나고 있는

EC를 중심으로 한 독·프 연합이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조짐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92년말까지를 목표로 단일경제시장의 형성과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을 포함한 정치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EC는 유럽질서 재편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C는 이미 지난 88년 6월 코펜하겐 국가들과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에 합의한 이래 동유럽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거쳐 지난해말에는 무역·경제협력협정의 체결을 마무리했다. EC는 지난 6월부터 EC 단일시장에 EFTA 국가들이 전면 참여하는 협상을 진행시켜 EES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련·동유럽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고 자본주의 경제로의 통합·의존관계를 강화시키게 될 유럽부흥개발은행의 발족에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EC통합 주도해온 프랑스 입김 약화 동유럽 겨냥한 전유럽 분업체제 착수

며 89년의 국민총생산(GNP) 규모로 따지면 프랑스의 1.5배, 영국의 1.8배에 달하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이다.

세계 최대 수출국의 하나인 서독의 한해 흑자규모는 6백억~7백억달러로 세계 제일이다.

금융·재정의 측면에서 네덜란드, 스위스 등 7개국은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을 서독 연방은행의 통화·금융정책에 연계시키고 있으며, EC 통화통합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유럽통화단위(ECU)에서 독일마르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19.0%, 영국의 13.0%를 훨씬 능가하는 30.10%에 달한다.

이와 함께 서독은 소련·동유럽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다른 선진자본주의국가를 누르고 단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동유럽국가들과의 교역규모에서 동독이 소련 다음으로 2위 또는 3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독의 동독 흡수통합은 통일독일의 경제적 지배력이 동·서유럽을 포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상황에서 통일독일이 중부유럽의 대부분을 포섭하면서 나아가 유럽통합의 중핵으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탈리아를 주축으로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유고 등이 중부유럽 6개국 협력체의 결성을 모색하고 있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이 3국 시장통합안을 협의하고 있음은 이러한 파스케르마니카 체제(독일중심의 지배질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EC 통합을 중심으로 EFTA와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코펜하겐)와의 결합을 강화하면서 유럽경제영역(EES)의 단일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유럽국가들이 참여하는 유럽합중국을 실현한다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대유럽연방 구상'도 독일의 이러한 경제적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독일 통일이 현실이 된 지금 거대독일의 존재는 EC 통합을 주도해온 프랑스의 지위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이거나 현재로서는

상태다.

냉전구도의 종식에 따라 지난 6월 바르샤바조약기구는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간의 민주적인 연합'으로서 군사기구에서 정치동맹체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나토도 통일독일의 회원국 잔류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군축진전에 따라 군사기구로서의 성격은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양대 군사기구의 협력관계가 형성될 경우 유럽의 새로운 안보체제로 주목되고 있는 CSCE의 제도화는 이 두 기구를 기본골격으로 삼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나토 잔류와 함께 소련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폴 서독 수상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단일유럽경제권의 형성과 유럽의 데탕트화 과정에서 독·프 협력과 독·소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통일독일이 국제정치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태호 기자>

통일독일의 새판 개편

3

국내 정치구도 재편 예고

동·서독 통일과 더불어 독일의 국내정치판계는 다각적인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연방 의회의 의석수는 동독의 편입과 함께 인구비례로 늘어났다. 정당 관계는 12월총선을 앞두고 더 격심한 경쟁에 휘말려들고 있고, 서독 좌파 정당들은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의 서독진출로 이전에 비해 좌경화된 조짐이다.

기독교민주당(CDU) / 기독교사회연합(CSU)의 동맹정당은 초보수적인 독일 남부지방 바이에른주에만 당조직을 가진 기사당이 동독 지배당인 독일사회연합(DSU)을 선거동맹당으로 포섭함으로써 동독 지역에서 기민당과 기사당이 경쟁관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민당과 기사당 사이의 오랜 정당한 협력(기사당은 바이에른주 이외의 독일지역에 당조직을 확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뜻하지 않게 파괴된 셈이다.

동독의 기민당이 주도하고 있다. 거듭된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는 인기가 오스카 라퐁텐 사민당 수상후보의 인기를 앞지른 사 오라고 기민당/기사당은 사

방맹인 '좌익리스트' / PDS'의 지 병당 조직을 이미 끝냈다. 이 과정에서 서독 녹색당의 좌익분자인 '환경사회주의자들' 가운데 유령인사들이 대거 '리스토'로 당적을 옮기는 바람에 녹색당 지방조직의 인력 가장자리가 무너져내렸거나 무너져내리고 있다.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리스토'는 사민당의 경쟁과는 반대로 전망이 밝아지고 있고 12월총선에서도 상당히 좋

은 좌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녹색당 지도부를 장악했던 안터 에 풀머 주변의 '환경자유주의자들'이 구성으로 물러나 자신들이 민주사회당보다 더 급진적이라고 주장하는 유타 디트푸르트, 크리스티안 슈트뢰벨레 중심의 급진좌파세력인 '환경사회주의자들'이 힘을 굳혀가고 있다. 녹색당의 고질인 당내 분파투쟁도 중지되었고, 특히 2년간 '환경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어부지리

사민당으로부터도 상당수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 '리스토'로 당적을 옮겼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금속노조 산하 최대 단위노조인 잘츠기터콘체르 노조의 베르트렌 워원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이 때문에 워원장직을 박탈당했으나 재선을 앞두고 있다.

좀더 좌경화된 녹색당이 국수주의에 대한 사민당의 타협노선 을 맹공하자, 국수주의 경향에

민수파 주도 무렵... 좌파간 경쟁 치열

12월총선서 판기름... 첫 통독수상에 기민련 쿨 유력

'좌익리스트' 사민당·녹색당 거물급 참여로 활기

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기민련 당직자들은 특히 라퐁텐을 '조국통일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통일방해자'라고 맹공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보수당이 12월총선에서 재집권하는 것은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월총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독일 좌파정치권은 더욱 좌경화될 것이 분명하다. 동독 민주사회당은 서독으로 이미 당 조직을 확대하였고 서독의 각종 사회주의세력들과 결성한 선거

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리스토'에 가입한 사회주의자들은 "80년대에 이루어진 시민당을 녹색화한 것처럼 리스토의 연방의회 진출은 사민당을 적색화한 것으로 내다보면서 독일의 좌파정치무대를 국수주의 경향에 맞서는 제동장치로 바꾸어 놓는 것을 핵심적인 선 거목표로 하고 있다.

'리스토'의 등장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녹색당은 '리스토'로 떨어져나가는 당원과 유권자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더

로 당권을 장악하도록 만든. 환경사회주의자들(Funds)과 현실 타협을 내세우는 레알로스(Real OS)간의 싸움도 그쳤다.

또한 레알로스 세력도 '리스토'의 등장으로 당내에서 입지가 약해졌다. 현재 '환경사회주의자들'은 녹색당의 유명 좌파인사들이 '리스토'로 당적을 옮겨 당이 허약해진 것을 환경자유주의자들과 레알로스의 반녹색당적 행동 탓으로 돌림으로써 유리한 입지에서 전국적으로 당원을 장악해 가고있는 추세이다.

적용하던 사민당 지도부의 '갈짓자' 정책 속에서 강화된 당내 우익세력이 조용해졌다. 이로 인해 12월총선 승리의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서도 라퐁텐의 당내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27일 동·서독 사민당 통합을 위한 임시전당대회에서도 라퐁텐은 당내 우익으로부터 큰 소리를 듣지 않았고, 원래의 계급공약인 '경제의 생태학적 개편과 사회정의' 및 동독경제의 복구를 위한 특별지원 등을 다시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다. 그는

보수적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의 국인 망명자들에 대한 비호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녹색당으로부터 국수주의에 대한 골중이라고 비난을 받아 왔었는데, 당대회에서는 그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현재 사민당 지도부는 민주사회당 또는 '리스토' 부는 어떤 동맹도 어떤 형태의 협력도 거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토'나 녹색당에 좌파표를 더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민당도 본의아니게 좌경화가 불가피하다. 라퐁텐은 12월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지난 총선에서보다 지지율은 높이는 경우 당권을 장악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좌파세력간의 더욱 강화된 경쟁메커니즘으로 인해 사민당의 당권은 총선대표들의 불타이에 관계없이 라퐁텐에게 물려들어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사회당의 정국진출은 통일 뒤 전체적인 독일정국의 좌우 전선 구분을 좀더 선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동베를린 시민의 사민당과 민주사회당에 대한 지지율이 역전되어 민주사회당이 사민당을 무려 6%나 앞지른 32%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보수진영에서는 서베를린도 좌파성향이리라(서베를린 정부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임) 통일베를린의 좌파성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베를린을 통일독일의 수도로 정한 정부의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베를린=황태연 통신원>

통일독일 시대의 개막 ④

90. 10. 3

희비 엇갈리는 동·서독 경제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경제의 가파른 희비쌍곡선적 발전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서독 기업들이 유례없는 전면가동상태에 있는 데 반해 동독 기업들은 예외없이 지불불능상태에 있거나 폐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독 실업률은 급속히 치솟고 있다. 서독 자본들은 지불불능상태의 동독 국영기업들을 헐값으로 인수할때까지 기다리면서 합작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유가 압박에도 아랑곳없이 서독 산업의 현재 평균가동률은 1백%에 달한다. 어떤 부문은 평소보다 최고 8백%의 가동률을 보이는 곳도 있다.

노동자주식·지분 분배를 철저히 배제한 사유화 및 기업청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신탁기구법의 집행을 고집하던 사민당 소속의 초대회장을 몰아내고 부임한 데를레프 로베더 신임회장에 따르면 전 국영 기업은 서독 자본에 매각되었거나 매각될 예정이다. 그에 따르면 8천여개의 동독 국영기업은 7천여개의 자본주의 기업으로 전환되고 3백여개의 기업은 곧 청산된다. 모든 기업은 현재 지불불능상태에 있는데, 연방재건신용기구는 이 기업들에 대한 지불보증을 91년 3월까지로 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임러-벤츠, 폴크

이런 상황에서 과거 동독으로부터 망명한 대토지소유주들과 부동산소유자들은 몰수당한 옛 재산을 되찾으려고 아우성이다. 통일조약에 지난 45~49년에 소련점령군령으로 수행된 대토지 및 부동산 몰수조치는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못박혀 있지만, 옛 소유자들은 이 조약의 해당 조항인 41조를 위헌이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부동산을 되돌려주든가 아니면 적절한 보상 또는 부동산 사유화과정에서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동독 소유관계의 이러한 대변혁 속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동독 주민들의 저항은 미미한 편이다. 국영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노동자들과 무관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것을 지킬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동독 경제의 악화와 기업도산에 대한 노동자 및 사무직원들의 저항이 실업문제와 부동산임대료 인상에 국한된다면, 도산

서독 자본공세에 동독 '침몰'

동독 도산 사태...상점엔 서독상품 일색 서독, 국영기업 헐값인수 노려 투자 기피

자동차산업부문의 경우, 지난해에는 건국 이래 최고 매출고를 보였으나 올해는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미국시장을 많이 잃어 대규모 경기후퇴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 왔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조기통일로 동독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내수가 급팽창, 오히려 전년에 비해 15만대가 많은 5백만대의 자동차매출고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동독 전역의 상점 물품들이 서독 제품으로 완전히 교체되었고 곳곳에 서독 유명업체들의 광고판들이 즐비하다. 또한 서독으로 장보러 나오는 인파도 여전히 변함없다. 특히 국경지역 도시의 서독 상점들은 매일 물품이 동나고 있다. 상품으로 동독을 일단 정복한 서독 자본들은 차근차근 동독 국영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 8천여개의 동독 국영기업의 정상화 및 '민영화'를 책임지고 있는 신탁기구는 모드로 전 동독 정부가 마련한 신탁기구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업의 정상화 및

스바겐, 오펔 등의 몇몇 독점자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독 자본가들은 동독 기업들을 날마다 둘러보면서, 과거에는 예외없이 공산당원들이었으나 상황이 달라지자 서독 자본가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동독 국영기업 소장들과 각종 '거래' (?)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동독 실업인구가 지난 8월말께 이미 36만명에 이르렀고 실업대기 인구가 1백43만명에 달했는데도 합작투자나 직접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이 '애족심없는 자본'의 행태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동독 기업이 헐값이 될 때까지 서독 자본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동독에 생겨난 중소 사기업은 약 3천3백개에 달하는데 이 기업들은 대개 서독 기업의 상품을 파는 소매업소들이거나 서독 자본과 연계된 서비스업소들(주유소, 대리점 등)이다. 호네커 체제하에서 잔존했던 수공업 및 중간규모의 민간제조업 조합기업들은 거의 도산했다.

한 동독 민간 중소기업들의 저항은 기존의 수공업자조직 및 협동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수행돼 왔다. 이 중소기업가들의 저항은 자신들의 소유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격렬하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시장경제에서 도산했기 때문에 공격목표를 찾지 못하고 사후 분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서독 자본가들은 91년 여름께면 동독 경제가 호황을 맞을 것으로 날마다 풍선을 띄우고 있지만 노조쪽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소유관계가 완전히 자본주의화된 뒤 경기호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서독의 공식실업률을 정상 수준인 것으로 전제한 위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90% 이상 취업상태에 있던 동독 여성들이 50% 이상 주부화되는 것을 뜻한다. 동·서독의 자본주의적 통일의 최대 하층은 동독 여성들의 어깨 위로 멀어지는 셈이다. <베를린=황태연 통신원>

통일운동의 새바탕 개편

사회·환경문제 어떻게 되나

“통일이 됐으니 이곳 환경도 좋아지겠조” 베를린 남서쪽 1백여km 지점에 있는 수도시 비터펠트에 사는 주부 하이더 리히터(46)는 동·서독 통일에 대해 새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

동독 최대의 공해지역 가운데 하나인 비터펠트에 와 보면 동독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환경문제에 관한 한 얼마나 비계획적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맑은 날에도 안개가 낀 듯 도시 전체가 뿌연게 보이는 이곳에서는 주민 2명당 1명은 기관지염, 기침, 피부병 등 질병을 앓고 있으며 평균수명이 동독 전체보다 7살이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터펠트에 비해서는 덜 심각하지만 환경문제는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동독 거의 전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동독 정권이 쉽게 무너진 배경에는 동독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가 서독의 상대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본 동독인들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통일을 생각했다는 지적이 있다.

같은 동독인들 가운데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한층 더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동독 전체 실업자 36만여명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2%였다. 올해초(1월 말 현재) 남녀 실업자비율은 6.4대1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점차 그 차이가 좁아져 7월말에는 마침내 근소한 차이로 역전됐던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여성실업률은 남성에

초하기는 동독 인민군과 경찰 등 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동독 전체 9만8천명 가운데 절반인 5만명 정도만 서독군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실질적 처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옛 동독군 소속 병사들 사이에는 심리적 갈등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 시기가 멀어질수록 더욱 심해진다.

이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히틀러의 나치주의를 연상케 하는 극우민족주의의 대두로 유대인과 외국인에 대한 직접 공격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 의 시각인 지난 3월 0시를 전후해서도 베를린의 외국인 거주지역인 크로이츠베르크에서 극우파 청년들과 외국인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경찰이 개입해 해산시키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다.

취업난 가중... 여성·외국인 희생 계속될 듯

동독지역 심각한 공해문제 해결엔 낙관론도

‘슈타지 문서’ 악용엔 동독인들 감정 폭발 우려

단행된 동·서독 경제·사회통합으로 서독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많은 동독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아니면 서독 합작선과 손을 잡는 것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동독인 노동자들의 실업사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비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독의 여성노동자들은 공적으로 동독 여성의 40~50%가 직업을 잃고 전업주부로 바뀌어 자본주의 기반경제가 재도입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운동진영은 가장 격렬한 통일반대세력의 하나이다.

동독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해서 떠날 자는 소용돌이로 몰려갈 수 있는 화약고로 취급되고 있다. 전정기에는 8만5천5백명의 요원과 50만명 이상의 유급정보원이 있는 슈타지는 전체 인구의 3분의1인 5백만명 이상의 사상 명세서를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동독인 가운데 3분의1이 자외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친척과 동료들에 관한 정보를 슈타지에 제공했으며, 그 결과 슈타지에는 장보문서가 보관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14일 드 메지에게 수상이 그 직무를 박탈하기 전까지 슈타지 해체업무들 관장했던 페터 미하엘 디스텔 전 동독 내무장관은 “문서가 공개될 경우 내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문제의 이 문서를 서독 정부 가 보관하겠다고 나서자 논란은 확대됐다. 과거 슈타지의 우선적인 감시대상이었던 동독 시민은 동독 회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대 국민 정보명이 발달해 있는 서독 정부의 손에 이 문서가 들어갈 경우 슈타지 정보원 출신 동독인들의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등 장기적으로 서독 정부가 동독인들을 장악하는 데에 이 문서가 악용될 것을 우려해 수백 명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결국 지난달 말 디스텔과 소이블레 서독 내무장관이 문서를 동독지역에 보관해 두기로 최종합의함으로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슈타지 문서는 언제든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수 있는 내연의 화약고인 셈이다.

〈베를린=최재봉 특파원〉

4일 발표된 9월말 현재 동독 실업자수는 44만4천8백명으로 8월말에 비해 다시 5% 늘었다.

통일독일시대의 개막 ⑥

동·서독 노동조합 통합문제

서독 노동조합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합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동독노동조합총동맹(FDGB)을 해체하고 산하 산별노조들을 흡수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서독 산별노조 가운데 반사회주의적인 노조들의 이데올로기 정책에 대한 동독 일부 노조간부들의 저항, 조직영역이 서로 부딪치는 서독 산별노조들간의 갈등, 동독 노조자산을 둘러싼 정치세력과 노조의 대립 등이 드러나고 있다.

자본이 동독 기업들을 장악하는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서독노동조합총동맹(DGB)도 동독 노동조합 흡수정책을 줄속으로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통일과정에서 허둥대온 동·서독 사민당의 정책이 근시안적이거나 자가당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노조의 통일과정이 특히 동독 노조의 자산인 수와 관련, 큰 난관에 부딪혀 있다.

사민당은 민주사회당(PDS·옛 공산당)과 과거 동맹당들인 기민련 및 자유당이 사회주의체제

아래에서 국가재산으로부터 획득한 거대한 당재산을 몰수하고 또 40여년전 공산당과 사민당의 합당으로 사회주의통일당(공산당)의 자산이 된 과거 사민당 재산을 민주사회당으로부터 되찾기 위해 서독 기민련을 위협,

노조의 정책을 전혀 지원할 수 없는 자가당착적 궁지에 빠져 서독노총의 동독노조재산 인수 정책에 대한 지원발언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독노총이 해체된 뒤 산하 산별노조들은 재산문제를 뒤로 미루고 제각기 서독 산별노조로 흡수되었거나 통합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도 적지 않은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서비스, 공공수송체계 및 공동동력생산부문을 조직영역으로 삼고 있는 서독 산별노조 ÖTV

서독노총 중앙위에 제소했으며 중앙위는 광산-동력노조의 조직사업의 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광산-동력노조는 이 명령을 거부, 만약 이것을 강제로 관철시키려 들 경우 노총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비사회주의적인 보수적 산별노조의 대명사인 광산-동력노조는 서독 자본이 되도록 많은 동독 국유동력산업을 사유화하는 것이 자신들의 조직영역을 넓혀주기 때문에 자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물론 진보적 산별노조들은 동독 노조조직을 흡수함으로써 노조원 대중의 사회적 구조를 혁신하거나, 사회주의적 이념을 고수하는 동독 노조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조직률 70%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산별노조인 서독 금속노조의 사무노동자 조직률은 다른 산업노조에 비하면 월등히 높지만, 사무노동자 조직사업은 항상 기대에 못미쳤다. 이 난관을 서독 금속노조는 동독 금속노조의 흡수를 통해 뚫고 있는 것이다. 동독 금속노조의 사무노동자 조직률은 100%이기 때문이다. 물론 얼마만한 수의 동독 금속부문 사무노동자들이 통일 금속노조에 잔류할지 미지수이지만 서독 금속노조의 숙원사업은 동독 금속노조의 흡수를 통해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서독 통합과 함께 사회적 입지가 좁아지거나 위태로워지고 있는 지식인, 기자, 예술가, 매체기관 근무 사무노동자 및 기능공들의 사회주의적 지향은 일관된 사회주의 노선에 서서 과거 호네커 체제를 비판적으로 지지해온 서독 매체노조가 조직을 신속히 동독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베를린=황태연 통신원)

흡수과정 '줄속' 갈등 첨예화

자산 인수·산별노조 조직영역 싸고 내분

당재산 몰수정책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동독 기민련의 거대한 당재산에 큰 관심을 가졌던 서독 기민련이 사민당의 정책을 역이용, 사민당의 몰수정책을 동독 노조들의 자산에까지 확대 적용하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사민당의 몰수정책은 자승자박이 되고 말았다.

서독 금속노조(IG Metall)는 기민련의 노조몰수정책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민당은

동독의 수송체계 및 동력부문이 100% 국가부문이기 때문에 모조리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력부문에 조직영역을 가진 광산-동력노조(IG Bergbau-Energie)는 서독 노조조직원칙을 적용할 경우 자신들의 조직영역이 동독에 단 한부문도 없다는 이유로 이 원칙에 반발, 동독의 동력생산부문에까지 조직사업을 확대했다. 이에 분개한 ÖTV는 이 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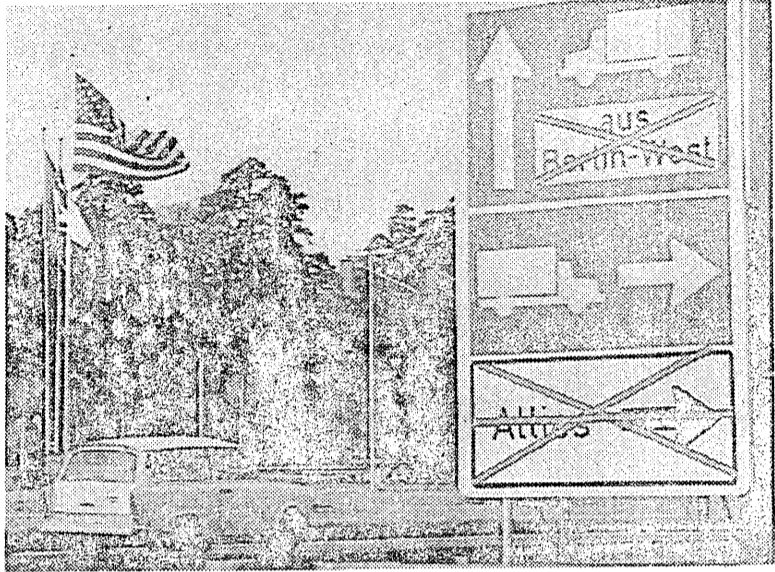
또한 민주사회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과거 사회주의통일당의 당원이었던 노조원을 간부로 선출하는 것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반사회주의적인 일부 서독 산별노조의 이데올로기 정책에 대한 동독 노조원들의 반발도 크다. 가령 서독 화공, 지물, 도자기 노조는 민주사회당과 옛 공산주의자 배제원칙을 공언해 왔는데 동독 화공노조원들이 이 원칙에 반발, 노조를 탈퇴하고 있다.

축제분위기속에서 "썩트는 갈등"

巨大獨逸의 탄생

통일현상을 가다 洪性均 특파원

<1>



동독제 트라반트 승용차 1대가 26일 헬름슈테트시 부근 동·서독 경계선에 위치한 연합국의 알파 검문소를 지나고 있다. 왼쪽에는 서방측 연합국 국기들이 아직도 휘날리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X」 표로 지워진 교통표지판이 보인다. 내달 3일 동독과 함께 독일에 대한 연합국의 권리는 소멸된다. 【헬름슈테트=AP특파원】

동·서독은 마침내 10월 3일 45년 동안의 분단의 장막을 말끔히 걷어내고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다. 급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독일 통일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지금 베를린에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 분위기에 속에서도 서독인들은 통일 이후 나폴레옹의 정복수준을 뛰어넘는 데 도달할 수 있는 자라나고 있다.

東獨人 自本주의 사회적 적응 검언어 管理廳 만들어 남 후 東獨기업인수

나뉘어 서독기본법 23조에 따라 서독에 편입된다. 또 동독총리였던 도트트 데 메 지르를 비롯한 4명의 동독 각료는 서독정부 체제 하의 統獨정부의 무임수장 관에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서독정부는 이 미 東獨기업에 대한 구체적 인수 작업에 착수 신략관직이다.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8천개의 東獨기업에 인수받아 6천 개는 폐업시키고 2천개는 민영화하고 5천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統獨후에는 현재의 東獨공무원 임용 절차관리를 기술공무원 임용 절차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동등한 대우를 주기로 하였다. 서독정부는 또 통일 이후 서독정부의 차관권을 제한 면적부채의 차관권을 제한 서 東獨의 實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서독정부는 당초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東西獨 경제사회통합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은 5년 동안 4천억 마르크의 東獨기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투자수요가 늘어난 총투자비 용이 1조 마르크(7백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東獨이 지고 있는 2백만 달러의 外債, 서독측이 東獨주주 소련군 38만명의 94년까지의 駐在費를 지불할 것, 소련의 로동자간 후발개발 직업 훈련비, 주택신축 제공비 등 총리가 개인적·정치적 목적에 따라 통일차관을 너무 빠른 속도로 집행시켜 東獨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변을 내세우고 있다. 東베를린 교육대학의 한 스게파트트 교수는 東獨人들을 두루두루 다스리는 공산체제를 풀어야기를 원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처럼 빠른 속도로 재는 완전히 할 수 없다. 다 로 진행시키는 통일 작업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40년 이상 살아왔던 사회의 체제에도 보편화한 한 장점이 있는데 하루 아침에 이를 완전히 부정하고 西獨식 법률과 稅制, 시장경제제에 적응해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것이다. 東獨 지역에서 급증하는 실업률도 체제변화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統一이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또 西베를린의 한 시민은 『東西獨人들은 지금 統一을 성취했다는 기쁨에 들떠 있다. 그러나 앞으로 3년 후까지만 東獨의 가라앉고 나면 서독인들은 東獨에 대한 무자본인한 세금부담을 견뎌내지 못하고 東獨人들은 西獨인들에 대한 공격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해 살아가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것을 잘 구별해야만 東·西獨은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일현상을 가다 洪性均 특파원

西獨간의 協商의 產物로 얻어지기는 하지만, 오 늘에 나타난 結果만을 놓고 볼 때는 45년간의 비효율적 공산체제의 해 파산 東獨 獨인들의 이같은 주장은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하다. 10월 3일을 기해 東獨정부와 의회는 완전해 체되고 東獨은 5개주로 재편되고 서독인들은 말

이 미 東獨기업에 대한 구체적 인수 작업에 착수 신략관직이다.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8천개의 東獨기업에 인수받아 6천 개는 폐업시키고 2천개는 민영화하고 5천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統獨후에는 현재의 東獨공무원 임용 절차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동등한 대우를 주기로 하였다. 서독정부는 또 통일 이후 서독정부의 차관권을 제한 면적부채의 차관권을 제한 서 東獨의 實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서독정부는 당초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東西獨 경제사회통합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은 5년 동안 4천억 마르크의 東獨기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투자수요가 늘어난 총투자비 용이 1조 마르크(7백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東獨이 지고 있는 2백만 달러의 外債, 서독측이 東獨주주 소련군 38만명의 94년까지의 駐在費를 지불할 것, 소련의 로동자간 후발개발 직업 훈련비, 주택신축 제공비 등 총리가 개인적·정치적 목적에 따라 통일차관을 너무 빠른 속도로 집행시켜 東獨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변을 내세우고 있다. 東베를린 교육대학의 한 스게파트트 교수는 東獨人들을 두루두루 다스리는 공산체제를 풀어야기를 원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처럼 빠른 속도로 재는 완전히 할 수 없다. 다 로 진행시키는 통일 작업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40년 이상 살아왔던 사회의 체제에도 보편화한 한 장점이 있는데 하루 아침에 이를 완전히 부정하고 西獨식 법률과 稅制, 시장경제제에 적응해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것이다. 東獨 지역에서 급증하는 실업률도 체제변화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統一이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또 西베를린의 한 시민은 『東西獨人들은 지금 統一을 성취했다는 기쁨에 들떠 있다. 그러나 앞으로 3년 후까지만 東獨의 가라앉고 나면 서독인들은 東獨에 대한 무자본인한 세금부담을 견뎌내지 못하고 東獨人들은 西獨인들에 대한 공격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해 살아가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것을 잘 구별해야만 東·西獨은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고 말했다.』

東獨기업 倒産이 최대難題

巨天獨逸의 타성

<2>

洪性均 특파원 통일원장을 가다

東·西獨逸의 경제에서 일어난다고는 가장 큰 문제는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倒産하는 東獨逸 기업들이다. 東獨逸기업의 倒産은 대다수 失業사태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뿐 아니라 東獨逸의 경제적 낙후지대로 만들어 놓은 후엔 東·西獨逸의 경제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인 드레스덴에 있는 東獨逸의 하이테크 産業 10년 이상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東獨逸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東獨逸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東獨逸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東獨逸의 轉機 후 이제는 수출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東獨逸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東獨逸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8千개중 2千개만 回生가능 統一후도 東西격차 심화될것

지면 東獨逸의 轉機 후 이제는 수출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東獨逸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東獨逸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東獨逸의 轉機 후 이제는 수출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東獨逸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東獨逸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東獨逸의 轉機 후 이제는 수출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東獨逸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東獨逸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지난 7월 1일 이후 등록 기업들의 도산과 이에따른 실업이 급격히 '늘어가고있는 가운데 택시업자들도 손님이없어 폐업할 위기에 처해있다. 사진은 동베를린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줄서있는 빈택시들.

東獨逸정부의 브뤼크너 대변인은 서독정부가 東獨逸 기업들에 겨우 2천개만 살아남아 있다고 보고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東獨逸의 경제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東獨逸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東獨逸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東獨교육

西獨학제로 바뀐다

東獨의 특성

<3>

洪性均 특파원 특임기자

東·西獨의 특성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그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다르다. 특히 1950년 이후의 변화는 더욱 그러하다.

1. 교육제도의 변화는 물론이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크게 달라졌다. 특히 1950년 이후의 변화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크게 달라졌다. 특히 1950년 이후의 변화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크게 달라졌다. 특히 1950년 이후의 변화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크게 달라졌다. 특히 1950년 이후의 변화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크게 달라졌다. 특히 1950년 이후의 변화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크게 달라졌다. 특히 1950년 이후의 변화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크게 달라졌다. 특히 1950년 이후의 변화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크게 달라졌다. 특히 1950년 이후의 변화는 더욱 그러하다.

中學과정부터 "競争사회" 체험하게 必須 마르크스·레닌주의 강좌 閉講

○발행부수 1만 1천
○주간 발행
○경향신문 부속

週刊京郷

북독일의 특성

<4>

洪性均 특파원 특임원장을 가다

마르부르크의 일원이 유럽에 공산주의의 영향이 배회하고 있다. 그것은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 마르부르크의 공산주의의 실험에 실패하고 다시 자본주의의 힘을 시전하여야 한다. 북독일인을 이 시점에서 '우렁하게 피를 흘린' 것이라고 있다. 자의는 북독일인들이 일후 자본주의 체제가 되고 있을 때의 태도이다. 마르부르크의 공산주의는 1918년 11월 14일 14년 전에 실패했다. 그러나 두 세대의 사이에 자신은 3배가 된 50만명의 북독일인들은 100%의 우렁하게 있다.

東獨人 괴롭히는 「失業유령」

北獨의 공산주의의 실험은 1918년 11월 14일 14년 전에 실패했다. 그러나 두 세대의 사이에 자신은 3배가 된 50만명의 북독일인들은 100%의 우렁하게 있다. 자의는 북독일인들이 일후 자본주의 체제가 되고 있을 때의 태도이다. 마르부르크의 공산주의는 1918년 11월 14일 14년 전에 실패했다. 그러나 두 세대의 사이에 자신은 3배가 된 50만명의 북독일인들은 100%의 우렁하게 있다.

年內 4百萬명 일자리 잃을 판 북독의 西獨물가에 생활속가중

그러나 그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요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북독일인들이 갖게 된 西獨인들에 대한 열정을 본체 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독일인들이 만히 를라의 나치와 공산주의의 해부 편견이나 기만적인 희생자들을 벌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심함과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서도 마르부르크의 공산주의는 60년 동안의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마르부르크의 공산주의는 60년 동안의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마르부르크의 공산주의는 60년 동안의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년 6월 30일까지는 일체간 일을 할 수 없을 판으로 조처를 취했다. 그러나 이로부터는 상황은 좋지 않은데 실업의 수치가 늘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독정부의 인건급을 원용시켜 주지 않거나 실용을 지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전업을 위한 재교육도 장려대상자들의 스스로 양양해서만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어 정부들은 노동자들의 상 당수는 재취업 기회마저 찾아 못하고 좌절된 실업자의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 失業을 뿐만 아니라 失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1930년 1월 1일 북독의 물가 상승률이 100%에 달하고 있다. 서독의 물가 상승률은 20%에 불과하다. 서독의 물가 상승률은 20%에 불과하다. 서독의 물가 상승률은 20%에 불과하다.

1천 2백 마르크로 종전과 똑같이 받고 있는데 쌀값은 지난 5월까지는 1kg 50 페니에서 지금은 2 마르크로 4 배나 뛰었다. 모든 생필품의 물가 상승률은 10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요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요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북독일인들이 갖게 된 西獨인들에 대한 열정을 본체 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독일인들이 만히 를라의 나치와 공산주의의 해부 편견이나 기만적인 희생자들을 벌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심함과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서도 마르부르크의 공산주의는 60년 동안의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처럼 심함과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서도 마르부르크의 공산주의는 60년 동안의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마르부르크의 공산주의는 60년 동안의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마르부르크의 공산주의는 60년 동안의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東獨지역 땅값 暴騰勢

北獨速의 탐성

<5>

洪性均 특파원 특이문장

統一과 함께 東獨으로 돌아간 西獨의 자본주의 바람은 벌써부터 全東獨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바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東獨에는 지금 不動產所有의 증가가 유례없이 나타나고 있다. 西獨의 資本주의 바람은 東獨으로 전파되고 있다.

統一과 함께 東獨으로 돌아간 西獨의 자본주의 바람은 벌써부터 全東獨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바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東獨에는 지금 不動產所有의 증가가 유례없이 나타나고 있다. 西獨의 資本주의 바람은 東獨으로 전파되고 있다.

統一과 함께 東獨으로 돌아간 西獨의 자본주의 바람은 벌써부터 全東獨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바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東獨에는 지금 不動產所有의 증가가 유례없이 나타나고 있다. 西獨의 資本주의 바람은 東獨으로 전파되고 있다.

統一과 함께 東獨으로 돌아간 西獨의 자본주의 바람은 벌써부터 全東獨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바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東獨에는 지금 不動產所有의 증가가 유례없이 나타나고 있다. 西獨의 資本주의 바람은 東獨으로 전파되고 있다.

갑자기 엄청난 貧富격차 실감 「不動產」배우며 資本主義 체득

統一과 함께 東獨으로 돌아간 西獨의 자본주의 바람은 벌써부터 全東獨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바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東獨에는 지금 不動產所有의 증가가 유례없이 나타나고 있다. 西獨의 資本주의 바람은 東獨으로 전파되고 있다.

統一과 함께 東獨으로 돌아간 西獨의 자본주의 바람은 벌써부터 全東獨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바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東獨에는 지금 不動產所有의 증가가 유례없이 나타나고 있다. 西獨의 資本주의 바람은 東獨으로 전파되고 있다.

統一과 함께 東獨으로 돌아간 西獨의 자본주의 바람은 벌써부터 全東獨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바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東獨에는 지금 不動產所有의 증가가 유례없이 나타나고 있다. 西獨의 資本주의 바람은 東獨으로 전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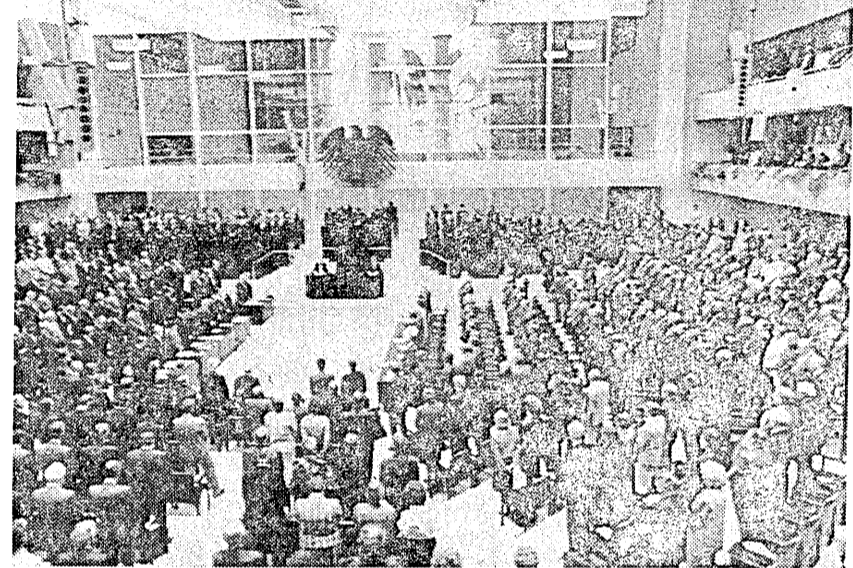
統一과 함께 東獨으로 돌아간 西獨의 자본주의 바람은 벌써부터 全東獨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바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東獨에는 지금 不動產所有의 증가가 유례없이 나타나고 있다. 西獨의 資本주의 바람은 東獨으로 전파되고 있다.

統一과 함께 東獨으로 돌아간 西獨의 자본주의 바람은 벌써부터 全東獨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바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東獨에는 지금 不動產所有의 증가가 유례없이 나타나고 있다. 西獨의 資本주의 바람은 東獨으로 전파되고 있다.

統一과 함께 東獨으로 돌아간 西獨의 자본주의 바람은 벌써부터 全東獨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바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東獨에는 지금 不動產所有의 증가가 유례없이 나타나고 있다. 西獨의 資本주의 바람은 東獨으로 전파되고 있다.

統一과 함께 東獨으로 돌아간 西獨의 자본주의 바람은 벌써부터 全東獨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바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東獨에는 지금 不動產所有의 증가가 유례없이 나타나고 있다. 西獨의 資本주의 바람은 東獨으로 전파되고 있다.

統一과 함께 東獨으로 돌아간 西獨의 자본주의 바람은 벌써부터 全東獨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바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東獨에는 지금 不動產所有의 증가가 유례없이 나타나고 있다. 西獨의 資本주의 바람은 東獨으로 전파되고 있다.



역사적인 統獨출범 이틀째인 4일 舊제국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최초의 통일의회 개원식 전경. 정면 가운데에 독일의 상징인 독수리紋章이 보인다. 【베를린=AP특약】

북독일의 투쟁

<6>

홍성균 특파원 특필

독일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북독일 인민들의 투쟁은 남독일 인민들의 투쟁과 함께 독일 인민들의 투쟁을 형성하고 있다. 북독일 인민들의 투쟁은 남독일 인민들의 투쟁과 함께 독일 인민들의 투쟁을 형성하고 있다.

행진시 슈타시 설



反슈타시 시위 공산정권의 「반파와전」의 역할을 했던 전 東獨비밀경찰 슈타시에 대한 규탄운동이 동독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동독시민 2만여명이 反슈타시 시위를 벌였던 모습.

독일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북독일 인민들의 투쟁은 남독일 인민들의 투쟁과 함께 독일 인민들의 투쟁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북독일 인민들의 투쟁은 남독일 인민들의 투쟁과 함께 독일 인민들의 투쟁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북독일 인민들의 투쟁은 남독일 인민들의 투쟁과 함께 독일 인민들의 투쟁을 형성하고 있다.

19萬要員 東獨국민 감시. 탄압 희생자. 遺族들 처벌요구

독일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북독일 인민들의 투쟁은 남독일 인민들의 투쟁과 함께 독일 인민들의 투쟁을 형성하고 있다.

III. 統獨이후 獨逸의 變化像

東獨지역 EC 편입 大變革

統獨이후 獨逸의 변화상

통일독일의 출범이 정 석구석의 충격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통일독일이 EC 편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EC 회원국에 가입할 경우의 변화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독 基民黨총재인 헬무트 콜총리(左)와 동독 기민당의 로타르 데 메지르 동독총리가 30일 함부르크에서 양당총재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악수를 교환하고있다. 동·서독 기민당은 1일 이곳에서 합동 통일전당대회를 갖는다. 【함부르크=합정】

아무런 조정없이 3월부터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통일독일의 경제 발전이 EC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현재 동독지역의 경제수준은 EC 가입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동독지역의 인구는 서독지역의 인구의 20%에 불과하다.

부족수준에 관한 규정 들어감에 향후 2년간은 소위 관할기간으로 부속관할을 받게되면, 현재 동독지역의 경제수준을 EC 가입기준에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이들이 과연 서독과 부하를 이루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동독지역의 인구가 서독지역 인구의 20%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원통화의 도입과 함께 동독지역의 인구가 서독지역 인구의 20%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때마다 세계각국에 선포된 동독지역의 인구가 서독지역 인구의 20%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등 特殊분야에 유예 규정

東·西베를린 「大베를린」 새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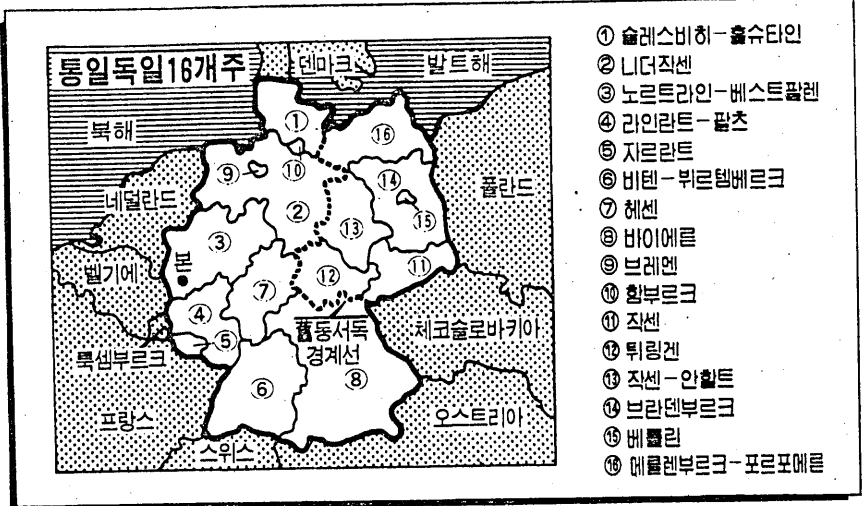
한 경제관계를 인정해준다. 동독의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 나토가입과 함께 동독국가인민군(ZNA)도 해산, 서독연방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17만3천명의 인구를 가진 동독지역은 그동안 동독지역의 인구가 서독지역 인구의 20%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동독지역의 인구가 서독지역 인구의 20%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동독지역의 인구가 서독지역 인구의 20%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동독지역의 인구가 서독지역 인구의 20%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베를린=합정】



독일·독주개황

제1·하일링의 북방 북방 안 제1차대전 중 1918년 11월 9일 독일 제1공화국이 수립된 후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총독이 되어 1933년 3월 23일 독일 제3제국이 수립되었다. 1945년 5월 8일 제2차대전 종전 후 1949년 9월 11일 서독(FRG)과 1955년 9월 11일 동독(DDR)이 각각 수립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합되어 통일독일이 되었다.

▲ 면적 = 35만 7천 414km² (9개주)
 ▲ 인구는 7천 7백 60만 명

▲ 서독 = 연방 공화국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12개주
 ▲ 동독 =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GERMANY) - 5개주

▲ 연방 = 연방제, 연방정부는 11개주와 동독의 5개주가 합쳐서 모두 16개주

▲ 연방 = 연방정부는 11개주와 동독의 5개주가 합쳐서 모두 16개주

▲ 연방 = 연방정부는 11개주와 동독의 5개주가 합쳐서 모두 16개주

면적 35만 km² 인구는 7천 8백만 명

16개주 : 國旗·國歌·通貨 西獨것 그대로

▲ 수도 = 베를린. 그러나 주 독립회가 결성될 때까지는 동독선언전까지 동독선의 독립을 말한다.

▲ 연사 = 독일 제1제국의 연사인 프랑크푸르트 주수정헌법을 개정하여 1949년 9월 11일 서독(FRG)이 수립되었다. 동독(DDR)은 1949년 10월 7일 수립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합되어 통일독일이 되었다.

▲ 국기 = 연방공화국의 국기는 30개의 수직 줄로 구성되어 있다. 동독의 국기는 10개의 수직 줄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독일의 국기는 30개의 수직 줄로 구성되어 있다.

▲ 국가 = 서독의 국가인 '독일인의 국가'는 '독일인의 국가'이다. 동독의 국가는 '인민의 국가'이다. 통일독일의 국가는 '독일인의 국가'이다.

▲ 통화 = 독일 마르크. 동독은 동독 마르크를 사용했다. 통일독일은 독일 마르크를 사용한다.

▲ 언어 = 독일어. 동독은 동독어를 사용했다. 통일독일은 독일어를 사용한다.

▲ 문화 = 서독의 문화는 서독 문화이다. 동독의 문화는 동독 문화이다. 통일독일의 문화는 독일 문화이다.

「독립정당」의 창립...
 「독립정당」의 창립...
 「독립정당」의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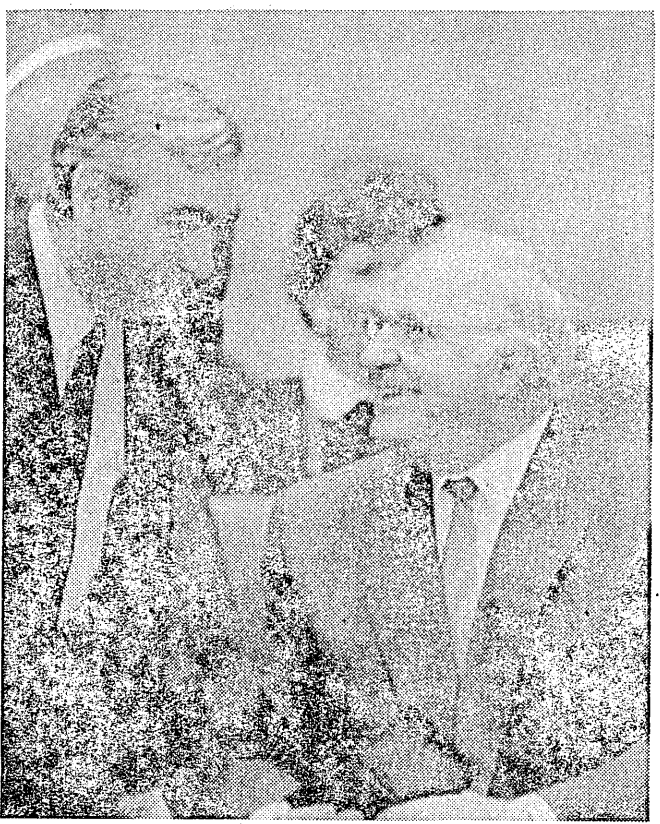
統獨, 내부통합은 이제 걸음마

「독립정당」의 창립...
 「독립정당」의 창립...
 「독립정당」의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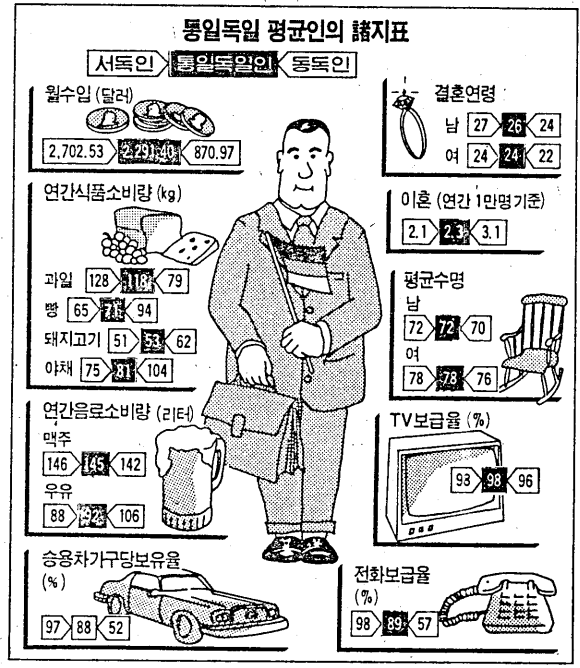


「독립정당」의 창립...
 「독립정당」의 창립...
 「독립정당」의 창립...

東獨 재건稅「에 호응 대신 불평」 東獨人들 사회보장제도유지 요구...西獨人들 스웨덴으로 착각·반발



◇웃고는 있지만...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4일 베를린의 찰스 데 가울 회관에서 열린 독일연방의회 개원식에서 테오바르드 뢰프를 비롯한 서독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베를린 AP통신]



어디서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서독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 통일독일인들은 호응 대신 불평... 동독인들은 스웨덴으로 착각... 반발...

「독립정당」의 창립... 「독립정당」의 창립... 「독립정당」의 창립... 「독립정당」의 창립... 「독립정당」의 창립...

東西격차 극복이 과제

「위대한 게르만人」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 그러나 감격과 환희는 잠시, 동독이라는 엄청난 「부실기업」을 떠안게된 통일독일의 표정은 그리 밝지않은 않다. 동독경제의 재건이라는 과제는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경쟁국들이 독일경제를 앞서나갈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딜레마를 통일독일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도움을 빌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내부에서 바라다본 통일독일의 모습이다. 독일정부와 기업들의 동독재건노력과 이와 관련한 韓·獨경협문제 현지취재로 알아본다.

다양한 2인의 연합의회 선거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될 독일은 45년간이라 는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깊은 兩獨간의 경제격차를 극복해내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동독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연방정 부관계자들의 동독경제재 건을 서독만의 노력만으로 안된다는 것을 무척 강조 했다.

통일후 獨逸경제

독일이 국가관리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개념이라 는 지형·인구·자원개념이 이 전 없었던 사실들을 완 전히 상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형태도 재정지원보다 는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경영기법교육에 비중을 두 고 있다고 설명했다.

外國人투자 활성화에 기대

市場개념없이 自生力상실...經營교육에 중점

우열,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조직적이고 기층적인 행정 체제미흡 등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서독연방정 부가 동독투자기업에 대한 각중시체급의 지원책이 마련해줄 수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투자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단이라고 전 한다.

심스레게 진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독경제체 제는 완전한 자유경쟁체제 여서 정부의 지시·명령이 면을 지양기 때문에 기업 들은 아무런 간섭·민중의 무제라 하더라도 철저하 이 때문에 대항업체를 통 한 세비나 심포지엄을 통 주 열이 우선 경영체제의 자동적부속체조화사인

그러나 95년까지 사회간 접자본의 5백60억마르크 (약 26조원)를 투자하는 등 전방적인 여건이 나아지면 내·외국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실제론 공 해조여론조사에서 서독기 업들의 50% 이상이 동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전망을 제시했다고 한다.

동독에 대한 투자는 각 기업들에 있어 더욱 조

그런데 동독내외의 전문종 부수업종도 동독내외 전문종 소형업종기업을 제조하는 합작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2천5백명 규모의 공공성과 연계설치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동독내외의 제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투 자효과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동독내외의 서독기업(콜비나트)의 경영합작(가해체면적) 중 소형 기업에서 구별개 형태의 영세기업까지 모두 20여 만개의 범위로 조개저 세로 분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이동의 집중 을 받고 있는 동독정부는 서독의 50%수준에도 못미 치는 저생산성의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때문에 일련을 경쟁력의 경제전 경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지는 2중고를 안고 동독 상환을 풀어나가야 하고 민을 안고 있다. 【鄭仁和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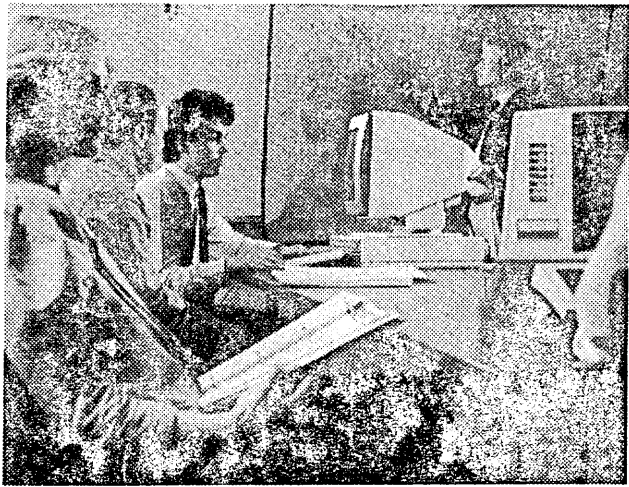
정부의 지원은 내부인과 똑같은 대우라며, 유급히 는 문제점을 안게차관보는 몇가지로 정리했다.

국유재산의 사유화, 환경 정부의 지원은 내부인과 똑같은 대우라며, 유급히 는 문제점을 안게차관보는 몇가지로 정리했다.

그러나 95년까지 사회간 접자본의 5백60억마르크 (약 26조원)를 투자하는 등 전방적인 여건이 나아지면 내·외국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실제론 공 해조여론조사에서 서독기 업들의 50% 이상이 동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전망을 제시했다고 한다.

동독에 대한 투자는 각 기업들에 있어 더욱 조

이 때문에 대항업체를 통 한 세비나 심포지엄을 통 주 열이 우선 경영체제의 자동적부속체조화사인



독일의 제조업체들은 품질개선을 위해 첨단장비를 동원한 사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經協파트너」로 韓國에 관심

통일후 獨逸경제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亞細亞市場 교두보 노려

내년 2월 서울서 박람회 개최... 봄 조성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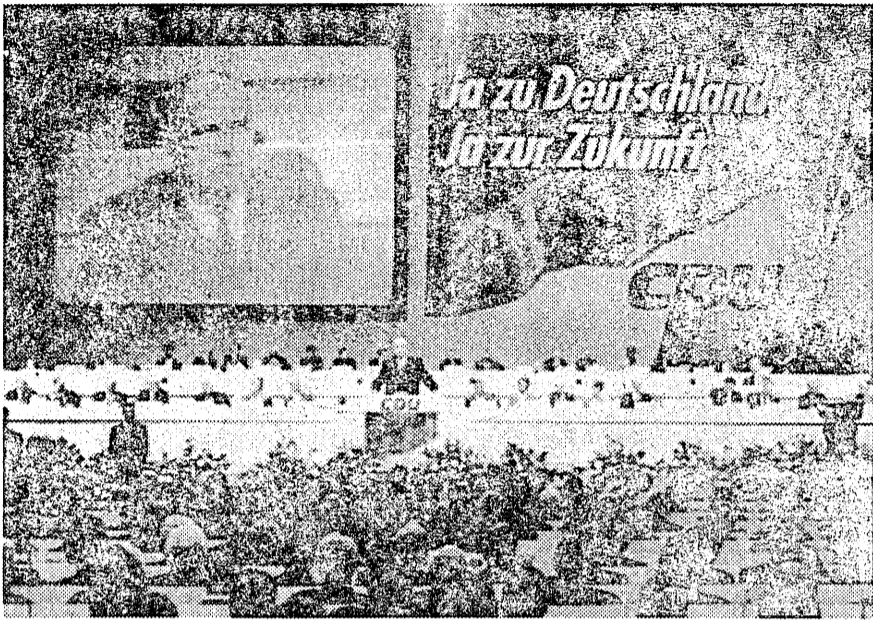
독일경제가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독일 정부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결코 과대평가할 수 없다.

東獨, 나토편입... 武器는 폐기처분

兩獨 통일되면 1백18개도를 폐쇄

두독 통일 후 1백18개의 폐쇄 지역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1백18개의 폐쇄 지역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1백18개의 폐쇄 지역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두독 통일 후 1백18개의 폐쇄 지역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1백18개의 폐쇄 지역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1백18개의 폐쇄 지역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兩獨기민黨 합당대회 1일 합부르크에서 개최된 동·서독 國民黨 합당대회. 초대당수로 선출된 헬무트·콜 서독총리가 자신의 모습이 대형스크린을 통해 비쳐지고있는 가운데 연설하고있다. 【합부르크AP電=聯】

해의公館 1백18개도 폐쇄 西獨법관 東獨서 재판指導

國名 '독일연방共和國' : 국가·국기 西獨것 사용

두독 통일 후 1백18개의 폐쇄 지역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1백18개의 폐쇄 지역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1백18개의 폐쇄 지역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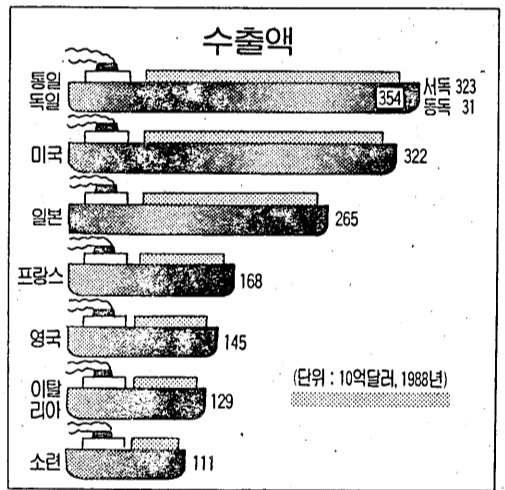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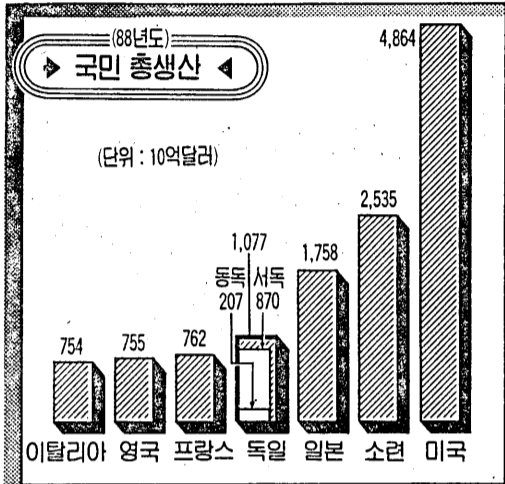
두독 통일 후 1백18개의 폐쇄 지역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1백18개의 폐쇄 지역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1백18개의 폐쇄 지역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輸出 세계1위...GNP 1兆弗 돌파

統獨 얼마나 강해지나

통일 한국의 獨逸

東-西獨은 10월3일을 기해 40여년의 분단을 극복하고 완전한 통일국가로 탄생하게 된다. 독일통일을 계기로 統獨이 유럽질서에 미칠 파장과 새로운 독일의 위상,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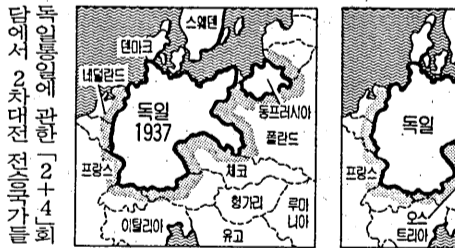
승용차 생산선 3위...粗鋼量 4위

美·蘇 다음으로 정치·軍事과 위...체육은 최강국 부상

「마르크圈」 형성...世界경제 再編

東西獨의 통일... 유럽의 용가상업발달... 한가운데서 美·蘇의 다름... 이 超強大國은 경제巨人에 다스려온... 1977년 7천8백만인... 2차대전후 지금까지 유럽 사회에서 英國과 프랑스가 전승후에서 우세를 이

치는 영국과 프랑스를 완전히 제치게 된다. 통일독일의 GNP(1조1천억달러)는 88년 기준(1조1천억달러)보다 4천억달러(1조4천억달러)의 이익 세계 4위로서 통일과 함께 양면으로 경제발전의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유럽의 경제가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4백58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유럽의 지출규모는 미국(2천888억달러)과 소련(1천2백21억달러)의 합(4천109억달러)을 추월하고 있다. 유럽의 이 같은 세계 세 번째 규모는 또 통일독일의 陸·海·空軍 장비를 수반하는 54만명의 군대(미군 2백16만명)와 소련(5백만명)의 군대(33만명)보다도 많다. 그러나 지난 9월 중순 유럽 연



규모에서도 슈퍼파워라고 볼 리는 소련이 없을 정도로 만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경제를 살펴보면 (영국)은 3백20억달러, 서독의 1백16억달러로 양쪽을 합치면 4백58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유럽의 지출규모는 미국(2천888억달러)과 소련(1천2백21억달러)의 합(4천109억달러)을 추월하고 있다. 유럽의 이 같은 세계 세 번째 규모는 또 통일독일의 陸·海·空軍 장비를 수반하는 54만명의 군대(미군 2백16만명)와 소련(5백만명)의 군대(33만명)보다도 많다. 그러나 지난 9월 중순 유럽 연

유럽연맹에 관한 12+4 회담에서 2차대전 전승후가 될

20세기 중심국

이렇게 될 경우 세계경제는 미·蘇의 北·美 경제권인 유럽의 아시아 경제권 독일의 유럽(C) 경제권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오라 부는 1990년대 후반에 20세기 후반의 마지막 10년을 미리보기 세계 중심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독일의 수준으로 경제발전가 1990년대 후반에 20세기 후반의 마지막 10년을 미리보기 세계 중심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독일의 수준으로 경제발전가 1990년대 후반에 20세기 후반의 마지막 10년을 미리보기 세계 중심국이 될 것이다.

유럽연맹에 관한 12+4 회담에서 2차대전 전승후가 될

유럽연맹에 관한 12+4 회담에서 2차대전 전승후가 될

독일 통일로 무엇이 달라지나

45년 동안 상이한 체제 아래 존재해온 두개의 사회를 하나로 하는 3인의 동·서독 통일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헤이럴 수 없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독가의 정치·경제와 관련한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동독지역의 유럽공동체(EC) 편입이다. EC 회원국 규정의 약 80%는 아무런 조정없이 3월부터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동독 공장들의 공해방지 시설이 EC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점을 고려해 환경관련 규정의 적용을 오는 95년까지 유보하는 등 농업·산업·식량·화학 등 일부 특수분야에 관한 규정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또 앞으로 2년간 동독의 소련

및 코메콘(경제상호원조회의)과의 특수한 경제관계를 인정해 준다.

동독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탈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편입과 함께 동독 국가인민군도 해산, 서독 연방군에 편입된다. 한때 17만3천 명에 이르렀던 동독 정규군은 그동안의 탈영·전적 등으로 인해 현재 10만명뿐이거

만하게 된다. 정부는 동독군의 무기를 서독 군대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모두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며 일부는 바르샤바조약기구로 보낼 예정이다.

동독의 소련로 동독이 갖고 있

는 백18개의 동독 대사관 및 영사관 건물과 2천개 이상의 주거용 건물 및 아파트가 비게 되는데 아직 그 활용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2월 미·영·프 3개 서방진영국은 베를린시에 시 통치권을 공식

진다. 동·서베를린시는 이날 시 정부 통합을 공식 선언하고 '거대베를린'으로 다시 태어난다.

시 통합의 첫 조처 가운데 하나로 8천1백명의 동베를린 경찰은 통합베를린 경찰로 재편성된다.

다. 그러나 2천5백명 간부급 중 대다수는 해고될 전망이다.

동·서베를린 의회 및 법률은 12월 31일까지 합동의회의원회에 통합을 추진한다.

동독, EC와 나토에 편입

바르샤바 기구 탈퇴...기준 외교관계 소멸

'거대 베를린' 탄생...동독 여성노동자 출산휴가 단축도

단 1백35개국과의 외교관계도 사라진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독 외교관들에 대해서는 이미 독일 시간으로 2일 자정까지 주재국을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 설치돼 있던 1

적으로 넘겨주게 돼 이들이 베를린에서 누리던 각종 권리가 사라진다. 3개국 군대가 누리던 경찰 조사거부권 등 면책특권과 전화 도청권, 의회참석권이 사라지며 서독 연방법의 동독 적용에도

다양한 변화가 뒤따른다. 환경과

관련, 지금까지 동독으로 보내 매립했던 유해물질 쓰레기의 처리문제가 어려워진다. 인간 45만에 이르는 이러한 유해 쓰레기 폐기해야 한다.

서독 상점법의 확대 적용으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동독 여성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산전 6주, 산후 20주의 출산휴가 중 산후휴가는 8주로 줄어들과 출산보조금도 1천마르크에서 6백

마르크로 떨어진다. 72년 체결됐던 동서간 긴장협정이 사라짐으로써 동독 시민들은 동독 의료기관에서만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수급받은 서독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추가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검문소장이기도 한 호적사무소의 임무규정이 바뀌어 토요일·휴일의 공식결혼식이 불가능해지며 결혼신고료도 비싸진다.

<베를린=연합>

슈퍼 게르만 새로운列強으로 浮上

獨逸 통일과 國際질서에의 과정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經濟力 바탕 마르크貨物로 형성할듯 安保理 상임국 확실: 政治입김도 莫強

이제 1933년 히틀러의 나치
독일 제2차 세계대전 일으켰
다. 이 무렵을 남긴 배경. 즉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統獨주의의 "환의" 統獨기원행사 참가자들이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제외 비스마르크 정부를 總理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12월 全獨총선거 壓勝 確실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 독일 통일로 세계의 한 시대가

“부른게 西獨방시...정령문행세”



독일 통일 한달

독일의 통일정국 상황이 되었지만 과거와는 다른 면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제가 서둘러 길어지면 20년도 전보다 훨씬 뛰어나고, 사건의 독일의 비민주적 행태가 미연 막을.

독일이 통일정국 3달이 지난 후 독일의 경제가 서둘러 길어지면 20년도 전보다 훨씬 뛰어나고, 사건의 독일의 비민주적 행태가 미연 막을.

의견발표 夫職 사택

독일이 통일정국 3달이 지난 후 독일의 경제가 서둘러 길어지면 20년도 전보다 훨씬 뛰어나고, 사건의 독일의 비민주적 행태가 미연 막을.

독일이 통일정국 3달이 지난 후 독일의 경제가 서둘러 길어지면 20년도 전보다 훨씬 뛰어나고, 사건의 독일의 비민주적 행태가 미연 막을.

동독 귀의판리·장교「無用之物」로 실업자 2백만... 8천 國營기업종매각 2백개불과

독일이 통일정국 3달이 지난 후 독일의 경제가 서둘러 길어지면 20년도 전보다 훨씬 뛰어나고, 사건의 독일의 비민주적 행태가 미연 막을.

독일이 통일정국 3달이 지난 후 독일의 경제가 서둘러 길어지면 20년도 전보다 훨씬 뛰어나고, 사건의 독일의 비민주적 행태가 미연 막을.

체육정책 위해... 변호사등 전문인 재교육 활발

독일이 통일정국 3달이 지난 후 독일의 경제가 서둘러 길어지면 20년도 전보다 훨씬 뛰어나고, 사건의 독일의 비민주적 행태가 미연 막을.

獨逸공식統一 오늘로 한달

독일의 공식통일이 실현된 지 1개월째를 맞는다. 민족적 통합의 향유에 첫

음치고 있다. 통일 열기의 한복에서 흥겨운 제기판 놀이와 마포놀이 등 전통 민속행사를 벌이고 있다. 통일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통일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통일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統一기르만" 國家의식 높아졌다

독일 통일 1개월째를 맞아 독일인들은 '統一기르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는 독일인들이 통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3일로 통일 한달째에 접어든 독일은 분단 40년의 꿈을 메우기 위한 작업으로 부산하다. 사진은 베를린장벽철거후 과거의 활기를 되찾은 베를린시가지 모습. 멀리 도로뒤쪽으로 브란덴부르크문이 보인다. 【外誌】

「통일완성」全獨총선熱氣고조 경제도「小心症」서탈피 自信感

기업詐欺·투기등 혼란상도... 「過去청산」은 관심권밖

다. 아젠트 그라프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독일 통일 열풍이 독일인의 자부심을 높여줬다. 통일 열풍이 독일인의 자부심을 높여줬다. 통일 열풍이 독일인의 자부심을 높여줬다.

일각에서는 분단 40년 동안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있다. 베를린은 현대 세계의 도요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독일인들이 '내년 10월 3일'이라는 날을 기억하고 있다.

독일 통일 1개월째를 맞아 독일인들은 '統一기르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는 독일인들이 통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獨逸한지붕 貧富두살림

獨逸의 經濟情狀은 如何한지... 獨逸의 經濟情狀은 如何한지... 獨逸의 經濟情狀은 如何한지...

東西獨逸일 합답

去年의 獨逸은 如何한지... 去年의 獨逸은 如何한지... 去年의 獨逸은 如何한지...

西獨逸은 特需호황... 舊東獨逸은 失業率 2百萬명

「獨逸합」이 됐지만 「영합」이 아직 멀어

獨逸의 經濟情狀은 如何한지... 獨逸의 經濟情狀은 如何한지... 獨逸의 經濟情狀은 如何한지...

獨逸의 經濟情狀은 如何한지... 獨逸의 經濟情狀은 如何한지... 獨逸의 經濟情狀은 如何한지...

獨逸의 經濟情狀은 如何한지... 獨逸의 經濟情狀은 如何한지... 獨逸의 經濟情狀은 如何한지...

베를린 獨逸 헌법

【베를린 獨逸 헌법 특파원】

독일의 헌법 개정이나 입헌의로 독일의 獨逸人들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독일의 헌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의 헌법 개정 움직임은 1949년 9월 11일 베를린에서 16개국의 대표 88명이 참석, 독일 獨逸의 첫 연립정권(제1회 연립)을 개표한다.

독일의 헌법 개정 움직임은 1949년 9월 11일 베를린에서 16개국의 대표 88명이 참석, 독일 獨逸의 첫 연립정권(제1회 연립)을 개표한다.

失業者 늘어 연말 2백만 추산

內閣 곧 구성... 舊東獨 「무정부상태」 마감

波와 국경조약 내년 초로 연기엔 「가우동」

이른바 독일 獨逸 후 「연립정권」을 16개국으로 구성한 東獨의 「無정부상태」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9일 베를린에서 16개국의 대표 88명이 참석, 독일 獨逸의 첫 연립정권(제1회 연립)을 개표한다.

이른바 독일 獨逸 후 「연립정권」을 16개국으로 구성한 東獨의 「無정부상태」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9일 베를린에서 16개국의 대표 88명이 참석, 독일 獨逸의 첫 연립정권(제1회 연립)을 개표한다.

「異質化 40년」 청산이 숙제

통일獨逸 한달

東獨페수정화비용 36만원

유음 獨逸의 TV를 舊東
西獨의 방송을 한계 舊東
그리고 舊西獨의 방송을
유음개항기 舊東獨의 방송
유음개항기 舊東獨의 방송
유음개항기 舊東獨의 방송

東獨페수정 舊東獨교과서
있으나 州別의 구성과 多
어 조단간 舊西獨의 學制로
필 전망이다.

아중 舊西獨보다 수종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예술분야는 그대로 발전이
전망이 있다.

東獨의 2개팀밖에 없던 아
스카키가 이미 舊西獨의
입력이다. 獨逸스포츠의
대명사인

지하는 갈라진데 아확사스와
분립성이 심한 갈라사화를
이러한 상황은 舊東獨의
해결의 과제가 되고 있다.
전남가들의 에너지원 대체
영역의 분할은 전후한데 8
마르크(약 36천원)의
시행에 5백만마르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東獨재판관 90% 任用불확실

분데스리가 축구팀도 20개로 늘어

이 舊東獨의 40인 부재
경 舊東獨의 40인 부재
경 舊東獨의 40인 부재

1인 부재 1인 부재 1인 부재
2인 부재 2인 부재 2인 부재
3인 부재 3인 부재 3인 부재

Datscha (벨라)는 러시아
의 수백만 명이 있다. R & D
의 연구개발 200만 명이
舊東獨의 부재사건(舊東獨의
한 인종화자 판공의 부재의
블레만사건)과 舊西獨의
인사건과 부재사건을 추진
한다.

한 사람만을 舊東獨의
최고재판소로 폐지했다. 舊東獨
의 재판재판소도 舊西獨의
재판재판소로 대체된다.

이 舊東獨의 40인 부재
경 舊東獨의 40인 부재
경 舊東獨의 40인 부재

이 舊東獨의 40인 부재
경 舊東獨의 40인 부재
경 舊東獨의 40인 부재

이 舊東獨의 40인 부재
경 舊東獨의 40인 부재
경 舊東獨의 40인 부재

이 舊東獨의 40인 부재
경 舊東獨의 40인 부재
경 舊東獨의 40인 부재

IV. 全 獨 總 選

서독憲裁 "全獨선거 違憲" 판결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1950년 9월 11일 서독연방헌법(Grundgesetz) 제 18조 제 1항을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1950년 9월 11일 실시된 전국선거(全獨선거)가 위헌임을 선언했다. 이 판결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50년 9월 11일 서독연방헌법(Grundgesetz) 제 18조 제 1항을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1950년 9월 11일 실시된 전국선거(全獨선거)가 위헌임을 선언했다. 이 판결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5% 득표」 共産黨 반발이 불씨



논란再燃... 일정延期 가능성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독일연방헌법(Grundgesetz) 제 18조 제 1항을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1950년 9월 11일 실시된 전국선거(全獨선거)가 위헌임을 선언했다. 이 판결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독일연방헌법(Grundgesetz) 제 18조 제 1항을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1950년 9월 11일 실시된 전국선거(全獨선거)가 위헌임을 선언했다. 이 판결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全獨의회 새선거法 채택

違憲판결협약 대체 12월 2일 總選가능

【베를린 11日電】全獨議會(全獨)가 3일째인 5일 全獨의회가 본에서 첫 회의를 갖고 새로운 선거법을 채택함으로써 12월 2일 회대로 실시될 수 있게 됐다. 이 조약은 서명

국가가 모두 비준해야 발효되지만 전승국들은 지난 3일 그들의 권한을 중단시킨으로써 사실상 발효됐다. 이날 全獨의회에서 거수표결 결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새로운 선거법은 지난달 29일 兩獨헌법재판소로부터 군소정당에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東西獨간 선거협약(8월 31일 체결)을 대체한다. 통일이후 첫 全獨총선에만 적용되는 새 선거법은 舊선거협약이 순독일에서 5% 이상을 득표해야 의회 진출할 수 있다고 규정 한 것을 東西獨지역을 각각의 선거구로 양분, 각각 선거구에서 5% 이상 득표하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舊선거협약이 지난 3월 東西獨의 첫 민주선거에서 5% 이상 득표를 하지 못했던 「연합90」 등 군소정당들도 他정당과 연합공천을 함으로써 5% 이상 득표 하는 것을 東西獨 모든 지역에서 허용했으나 새 선거법의 이를 東西獨지역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西獨의회 진출 각정당의 물결은 東西獨민주화의 기수였던 「연합90」, 舊공산당 후신인 민사당 등 東西獨지역의 모든 군소정당들도 의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중 앙 일 보 90. 10. 6

「統獨공신」 基民黨 암수합박

독립 정당 현황 및 득표율

서독	통합	동독
기민당 (CDU) 44.8%	10월1일	기민당 (CDU) 48.1%
기독사회동맹 (CSU)		독일사회동맹 (DSU) 6.3%
		민주출발당 (DA) 0.9%
자민당 (FDP) 9.2%	8월11일	자민당 (FDP) 5.2%
사민당 (SPD) 37.4%	9월27일	사민당 (SPD) 21.8%
녹색당 8.4%		녹색동맹 1.9%
		민사당 (舊공산당) 16.3%
		연합90 2.9%

(숫자는 지난 총선 득표율)

12월2일 총선거 앞두고

「5% 규정」 따라 舊공산당등도 院內 진출 가능해져
 社民黨엔 치명타... 極右 공화黨등 도전 무시 못해

「東獨유권자」 선택이 최대 변수

독일 연방 총선거가 12월 2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독일의 정치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5% 규정의 도입으로 舊공산당(SPD)과 민주사회당(DSU) 등 5% 미만의 정당도 원내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독일의 정치 체제를 크게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독의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의 양자 구도가 깨질 수 있다. 동독의 기민당(CDU)과 사민당(SPD)도 원내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독일의 통일과 정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이다.

독일 연방 총선거가 12월 2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독일의 정치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5% 규정의 도입으로 舊공산당(SPD)과 민주사회당(DSU) 등 5% 미만의 정당도 원내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독일의 정치 체제를 크게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독의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의 양자 구도가 깨질 수 있다. 동독의 기민당(CDU)과 사민당(SPD)도 원내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독일의 통일과 정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이다.

첫총선 보름 앞둔 통독-쟁점과 각정당 움직임

12월2일 통일독일의 첫 총선을 보름 앞두고 독일 정당들이 선거전에 마지막 정력을 쏟고 있다. 연정의 다수파인 기민련/기사련의 지지도는 10월 정점에 도달한 뒤 최근 들어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제1야당인 사민당 지지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마지막 순간의 이변'이 없는 한 사민당의 총선 패배는 거의 확실한 듯하다.

갑작스런 통일로 '행운'을 얻은 헬무트 콜 수상은 일련의 지방선거 패배에 따라 총선에

사민당은 기민련이 총선 후 반드시 세금인상을 관찰시킬 것이라는 계산하에 기민련의 공약을 '거짓'으로 몰아붙이면서 월 5천마르크(한화 약 2백5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인구의 18%)에 대한 세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당은 겐서 외무장관이 이끌고 있는 자민당이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7%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던 자민당은 서독에서 10% 이상의 지지도를 얻고 있고 동독에서는

제의 가파른 쌍곡선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동독에서 기민련과 사민당의 지지도는 하락세에 있다. 이에 반해 '동독혁명' 주역들의 군소정당들인 '녹색당/동맹90'의 지지도가 12% 선으로 올라섰다.

서독에서도 녹색당은 유명인사를 대거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8~9%의 지지를 얻고 있다. 민사당이 거액의 당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적발된 금융스캔들로 정치적 신뢰를 크게 잃었기 때문에 녹

시아만의 전운이 짙어지고 독일연방정부가 헌법을 우회하거나 개정하여 유엔이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결의하는 경우 독일군도 유엔군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도를 보이자, 녹색당은 지난 9월 당대회에서 통과된 독일 병사에 대한 공개서한 '아니라고 거부하라'를 수십만장 인쇄해 7주전 전독일 병사에게 배포한 바 있다. 이 공개서한은 독일 군대가 나토 작전구역 밖에 배치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병사들에게 페르시아만 배치명령이 떨어지

대한 형사소추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녹색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녹색당의 정치적 신뢰에 금을 내리는 시도로 보고 위헌적 명령에 대한 거부 촉구는 불법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녹색당은 또 탈영촉구를 불법화한 형법조항이 없음을 들어 당의 평화정책노선의 정당성을 재천명하고 당사 수색을 불법행위로 규정, 법정에 제소하였다.

동시에 녹색당은 다음날 공개서한의 문구를 더욱 강화시켜 이에 "대포밥이 되지 말고 탈영하라"는 글귀를 첨가한 새 서한을 통과시켜 연방검찰과 '정면대결'정책을 취하였다. 젊은 사무직 종사자들과 대학생들의 당인 녹색당의 이 서한에

“통일비용 누가 내나” 기민·사민 공방

‘통일주역’ 콜수상 세금동결 내걸고 우위 굳혀

서 질 것이라는 8개월 전의 전망을 뒤엎고 '통일수상'의 입지를 한껏 활용하여 총선 승리를 굳혔다. 기민련의 선거벽보와 텔레비전광고는 한결같이 '통일수상'의 이미지에 호소하고 있다. 이번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가 콜을, 26%만이 오스카 라퐁텐 사민당 수상 후보를 다음번 수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민련/기사련에 대한 지지도는 10월말 45%의 정점에 도달한 뒤 11월 들어 경미하게 하락, 이번주에는 43%로 떨어졌으나 기민련 이탈표가 모두 연정 소수파인 자민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 연정의 지지도는 54%로 변함이 없다.

사민당 지지율은 지난달 32%에서 33.5%로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9.4%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녹색당/동맹90'과 합하더라도 과반수가 안된다. 사민당의 정책목표는 경제의 '생태학적 개편', 사회보장의 강화, 동독 경제의 재건에 두고 있는데, 옛 동독지역에서는 지지도가 한달새 오히려 4%나 하락했다. 동독인들은 급속한 통일에 반대해온 라퐁텐을 사민당보다 더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기민련과 사민당간의 선거쟁점은 통일비용의 조달과 관련된 세금인상 여부이다. 기민련은 줄곧 통일비용을 기존 예산의 절약을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으므로 세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해 왔다.



다음달 2일 실시되는 통일독일의 첫 총선에서 승리가 유력시되는 헬무트 콜 수상 겸 기민련 당수가 선거유세를 벌이고 있다.

사민당 옛동독 경제재건 구호에도 이 지역서 고전
녹색당 군인들에 “폐만 참전말라” 급진이미지 부각
공산당 후신 민사당은 자산도피 스캔들 얽혀 휘청
겐서 외무가 이끄는 자민당, 거대정당 실망표 흡수

무려 12%를 상회하고 있다. 자민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겐서 장관이 동독 출신이라는 점과 거대정당들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독인의 77%가 현재 경제상황이 '아주 좋다'고 느끼고 동독인의 78%는 거꾸로 '아주 나쁘다'고 평가하는 동서독 경

색당의 정치적 기반은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당에 지지계층의 상당수를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던 녹색당은 민사당의 실책으로 어느 정도 안심하게 되었지만, 강경노선으로 선회시킨 당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페르

는 경우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탈영하라는 말은 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뒤늦게 이것을 탈영촉구로 보고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13일 본의 녹색당 중앙당사를 강제수색, 남은 팸플릿 70여장과 인쇄지형을 압수한 뒤 인쇄물 관련자들에

대해 집권당들이 의외로 격한 반응을 보이자 녹색당 지도부는 '위헌할 의사가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응수하고 있다.

베를린에서도 녹색당은 '빈집 점령' 문제를 두고 경찰과 격렬한 대결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동베를린 시내에는 1천여개의 빈 건물이 베를린의 주택난에도 불구하고 빈 채로 서있다. 이중 상당수를 베를린의 좌익 및 무정부주의 집단들이 점령하고 있다. 베를린 경찰이 빈 건물 탈환작전에 들어가면서 13일 내전을 방불케 하는 충돌이 이틀에 걸쳐 지속돼, 이 과정에서 쌍방에 상당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빈집 점령'에 가담한 베를린 녹색당 소속 시 의회 의원들도 다수 체포되었다.

민주사회당은 거액스캔들 이후 오금을 못 펴고 있다. 이 스캔들로 당원 수천명이 탈당하고 당내 사기도 말이 아니다.

뒤늦게 민사당은 당 재산의 80%를 동독 신탁기구에 반납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잃은 신뢰는 다시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동독에서의 지지율도 3분의1이나 감소,

8.5%선으로 떨어져서 동서독을 합할 경우 2.4%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 한해 동독 정당들은 동독에서만 5%선을 넘으면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진출은 문제없지만 당의 정치적 장래는 어둡기만 하다.

<프랑크푸르트=합태연통신원>

선거도 하나의 게임이라면 2일 실시된 최초의 통일투표 총선거는 지극히 재미없는 게임이었다. 뭔가 화끈하고, 극적인 요소를 기대하던 관전자들에게는 미묘하기 짝이 없는 요식행위 같아 느껴졌다. 우선 선거결과가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것이다. 주요 정당들의 표율은 예상치에서 1~2%를 벗어나지 않았다. 여론조사의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다. 선거결과를 전하는 신문기사는 「예상대로」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 「표는 깨박야 안다」는 한류식의 선거 불평을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의외성이 없는 선거는 흥미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記者수첩

선거운동 과정 역시 물에 불탄 듯 했다. 통일후의 첫 선거이니만큼 원가도 지은 재정이 부각되고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여겨졌지만, 양산의 정반대였다. 모든 논쟁이 통일투표에 집중됨으로써 오히려 과거의 서독 총선 때보다 여유가 생겼다. 통일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신선미를 잃은 것이기도 했다. 동서독지역 유권자들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면서 선거과정의 드라마틱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만도 했지만, 동독주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려오지 않았다. 선거는 그저 일상생활인 것처럼 치러졌다. 선거가 아무 재미가 없다는 것, 그것은 곧 정치적 안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재미없는 總選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유권자들의 성향이 예측가능할 때 정당을이 놓아질수 있다. 유권자들의 표의 행방이 선거운동 기간동안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각종 당의 노선이나 평상시의 활동에 따라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기성 공약이나, 알파한 술수가 통할리 없다. 각정당이 보수진보중도등이로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하질 수월하게 해준다. 굳이 선거운동 기간동안 치고 받고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독일선거는 무미건조하게 보인다.

민주정치의 정현이 채 1년도 안된 동독지역을 흡수하고도 독일총선이 과거의 서독선거와 다를없이 「재미없게」 치러진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서독의 정치력이 견제력 못지않게 막강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독일정체가 파산지경의 동독정체를 끌어안고도 그 때 양보하지 않았을 독일의 정치능동주의의 정치사 회적 불안함을 흡수하고도 안정을 조급도 잃지 않았다. 독일정치의 원동력이 서독의 경제력만이 아니었음을 이번 총선이 입증하고 있다. 안정되고 발전된 민주정치가 보다 근본적인 독일의 힘이 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만약 지금 남북화의 통일과 총선을 실시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남쪽에서만도 선거가 있는 없는 하고한날 겨루기를 방불케하는 정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마 당에... 한국의 정치와 선거는 「너무 재미 있어서」 탈이다.

〈金文浩·駐베를린특파원〉

풀스승리확정되자 "우리의 기본법"

58년만에 全獨總選...獨逸표정

【베를린=美聯社(美)파란】

독일연방의 주 요인 헬름트홀트 총리가 이끄는 基民黨(CD U) 基民黨(CDU)의 연합과 自民黨(FDP)의 연합전선인 基民黨의 58년만에 全獨總選의 勝利가 確정되었다.

이날 실시된 全獨總選에서 基民黨의 勝利는 58년만에 德國의 統一을 實現케 하는 第一의 大勝利로 評價되고 있다. 4년 전의 全獨總選에서 基民黨은 41.8%의 得票을 獲得했으나 이번에는 43.8%로 2.0%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날 실시된 全獨總選에서 基民黨의 勝利는 58년만에 德國의 統一을 實現케 하는 第一의 大勝利로 評價되고 있다. 4년 전의 全獨總選에서 基民黨은 41.8%의 得票을 獲得했으나 이번에는 43.8%로 2.0%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날 실시된 全獨總選에서 基民黨의 勝利는 58년만에 德國의 統一을 實現케 하는 第一의 大勝利로 評價되고 있다. 4년 전의 全獨總選에서 基民黨은 41.8%의 得票을 獲得했으나 이번에는 43.8%로 2.0%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날 실시된 全獨總選에서 基民黨의 勝利는 58년만에 德國의 統一을 實現케 하는 第一의 大勝利로 評價되고 있다. 4년 전의 全獨總選에서 基民黨은 41.8%의 得票을 獲得했으나 이번에는 43.8%로 2.0%포인트 상승하였다.

자라니 3.6%를 基民黨은 2.8%를 그리고 基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자라니 3.6%를 基民黨은 2.8%를 그리고 基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자라니 3.6%를 基民黨은 2.8%를 그리고 基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자라니 3.6%를 基民黨은 2.8%를 그리고 基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자라니 3.6%를 基民黨은 2.8%를 그리고 基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자라니 3.6%를 基民黨은 2.8%를 그리고 基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우리의 패배를 시인한다. 그리고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우리의 패배를 시인한다. 그리고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우리의 패배를 시인한다. 그리고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우리의 패배를 시인한다. 그리고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우리의 패배를 시인한다. 그리고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우리의 패배를 시인한다. 그리고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우리의 패배를 시인한다. 그리고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自民黨은 2.8%를 얻었다.

集권聯政 압승 基民 43.自民 11% 지지

라퐁텐 패배 시인 후 "政治 잘 하길" 당부

드메지에르, 勞動 등 지역구 落選 수모

【파리=美聯社(美)파란】 프랑스의 집권연립정부는 58년 12월 4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집권연립정부는 58.3%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958년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는 득표율이었다.

이날 실시된 총선거에서 집권연립정부는 압승을 거두었다. 집권연립정부는 58.3%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958년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는 득표율이었다.

이날 실시된 총선거에서 집권연립정부는 압승을 거두었다. 집권연립정부는 58.3%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958년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는 득표율이었다.

이날 실시된 총선거에서 집권연립정부는 압승을 거두었다. 집권연립정부는 58.3%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958년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는 득표율이었다.

베를린시선 社民패배

【베를린=美聯社(美)파란】 베를린시선에서 실시된 총선거에서 社民黨이 패배했다. 社民黨은 2.8%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958년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는 득표율이었다.

투표지 지향 2층으로 바뀌어

【파리=美聯社(美)파란】 프랑스의 투표지 지향은 2층으로 바뀌었다. 이는 지난 1958년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는 득표율이었다.

투표지 지향 2층으로 바뀌어

【파리=美聯社(美)파란】 프랑스의 투표지 지향은 2층으로 바뀌었다. 이는 지난 1958년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는 득표율이었다.

투표지 지향 2층으로 바뀌어

【파리=美聯社(美)파란】 프랑스의 투표지 지향은 2층으로 바뀌었다. 이는 지난 1958년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는 득표율이었다.

투표지 지향 2층으로 바뀌어

【파리=美聯社(美)파란】 프랑스의 투표지 지향은 2층으로 바뀌었다. 이는 지난 1958년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는 득표율이었다.

투표지 지향 2층으로 바뀌어

【파리=美聯社(美)파란】 프랑스의 투표지 지향은 2층으로 바뀌었다. 이는 지난 1958년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는 득표율이었다.

투표지 지향 2층으로 바뀌어

【파리=美聯社(美)파란】 프랑스의 투표지 지향은 2층으로 바뀌었다. 이는 지난 1958년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는 득표율이었다.

북방리 施政실정지

아주시는 행정은 ... 서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統一불안 이해 세계平和기여 다짐

금세기 獨逸이 저지른 최악 잊지않을것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이것이 행정의 ...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獨逸(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12월 11일 콜 정부에 의해 추진된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마인하트 미겔
(독 학술연구센터)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安保協」 중심 나토機能 대체 추진

野 國際的 책임들여 派兵 허용 주장... 論難 벌일 듯

社會모장 위한 重稅정책 불가피



플커 그란조프
(베를린대)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기 위해 내놓은 「獨逸」로 거듭나야 한다. 콜 정부의 입찰 두獨逸전문가에 들어본다.

독일 총선과 새 정부의 과제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시작된 독일의 통일과정은 2일 통일독일에서 실시된 총선거를 끝으로 거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번 총선거에서 승리한 헬무트 콜 수상외의 기민당이 자민당과 보수연립정권을 구성하고 통일독일의 새 정부를 내외에 선포하는 것뿐이다.

1년전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만 해도 1년 뒤 ~~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여~~ 독일은 통일한 새 정부가 들어서리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내외의 주목을 끈 이번 총선거를 지켜보면서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시대의 흐름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통일독일의 첫 정부를 세우는 이번 선거에서 독일의 통일을 주도한 콜의 기민당이 쉽게 승리하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다. 조국통일을 갈망하던 독일 유권자들이 통일을 이뤄낸 콜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통일에 따르는 어려운 과제를 콜의 기민당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통일의 환희에서 채 깨어나지 않은 유권자들이 처음부터 통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사민당을 지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서독의 녹색당이 참패한 것은 예상밖의 일이다. 87년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다수 배출했던 녹색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구서독지역에서 한 사람도 의회에 보낼 수 없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기민·사민 등 주요정당들이 모두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마당에, 정

치적 입장이 뚜렷하지 않은 녹색당의 환경문제 제기가 유권자에 대한 호소력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보수연립정권은 통일독일을 어디로 이끌고갈 것인가? 통일독일은 지금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통일을 마무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다. 독일의 한 민간연구기관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동독의 황폐한 도시를 재개발하고 낙후된 경제를 서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만도 2조마르크(9백44조원)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기민당쪽은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통일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민당이 이 문제를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삼은 것도 이 문제가 앞으로 독일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새 정부에는 이밖에도 유럽 강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유럽 통합을 추진해야 하고 나토에 머물러 있으면서 소련과 동부유럽의 여러나라에도 지원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이제 통일을 이룩한 독일 내외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독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남다르다. 바로 1년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분단되어 있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V. 獨逸統一斗韓半島

정부는... 그러나...
 ...
 ...
 ...

客席에서 보는
주간政治

이...
 ...
 ...

...
 ...
 ...

獨逸 통일과 이 나라 政治

金 洪 信



...
 ...
 ...

...
 ...
 ...

...
 ...
 ...

...
 ...
 ...

...
 ...
 ...

...
 ...
 ...

...
 ...
 ...

...
 ...
 ...

...
 ...
 ...

社說

벽돌쌓듯 풀어나가야

獨逸통일의 歷史的 敎訓

歷史는 과거만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사건이 곧 역사다. 역사는 오늘날만도 아니다. 또 역사는 예로부터의 力動性을 갖출 민족에게만 미방보이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이 오늘날에까지 흐르고 있다.

개척적이었던 지난 3월 31일 지구반대편 獨逸에서 울려퍼진 「통일의 종소리」는 새삼 이젠 사실임을 깨닫게 된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럽의와 국민생활의 질을 따지는 새로운 전환기를 넘고 있다. 「대포대신 탱크」인 큰 총들이 세계를 압도하는 가운데 그 대포의 각축의 현장은 독일에서 나타난다. 해방의 바로 「부자연스런」 분단상태의 해소였다.

물론 이러한 정세변화 못지않게 이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제정세를 유민에게 유도해온 독일국민의 주체적 노동을 폄하할 수 없다. 분단독일의 수도 이데올로기를 추구하여 치열하고 정면안보적인 「역합」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兩獨의 광범위한 사회적으로 유와 독일정세를 위한 노력은 마땅히 독일정세변화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통일」을 모종의 동위 의제라 할 수 없다. 「통일」은 독일의 구별이 없는 점에 의해서도 그렇다고 독일어가 낯설지 않은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었던

세계 독일의 모습이었다. 로타르트 메지에르 前독일총리가 독일통일의 순간 「이것이 위대한 기쁨의 순간이며 출현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은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통일」이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첫째는 전후 모처럼 형성된 국제적인 和解정세에 우리도 失機하지 말고 동참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침내 獨逸의 바람은 東北亞의 도세 차게 불어오는 것이다. 이미 이우의 韓蘇수교와 가시화된 韓中접근 그리고 北韓-日本의 關係관계를 개선함으로써 獨逸의 對日關係가 개선되고 있다. 부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까지 고려하면 獨逸의 對日關係가 개선되고 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문제의 도사리고 있다. 그중의 가장 심각한 것은 南과 北 내부 체제의 문제다. 독일과 같은 균형 있는 분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도 그렇다. 통일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이름만 걸고 있다. 이런 상태

우리는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 「사상」가장 긴 黃金의 연후를 보낸 뒤이다. 자치 해방이 지휘된 생활리듬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르크스주의로 일터에 임해야 할 때다. 건전한 휴식은 내일을 위한 對備요, 「하얀」의 축적이다. 비록 水書의 아픔이 더해지고 内外의 懸崖가 중첩된 상황에서 보낸 1년은 獨逸의 對日關係가 개선되고 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心機一轉, 난국 타개 나서자

이를 반영, 그나마가 준비의 보상차원에서 합당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당면한 일이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심오한 전환이 이루어질 만한 力動性이 발휘될 수 없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심오한 전환이 이루어질 만한 力動性이 발휘될 수 없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심오한 전환이 이루어질 만한 力動性이 발휘될 수 없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심오한 전환이 이루어질 만한 力動性이 발휘될 수 없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심오한 전환이 이루어질 만한 力動性이 발휘될 수 없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심오한 전환이 이루어질 만한 力動性이 발휘될 수 없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심오한 전환이 이루어질 만한 力動性이 발휘될 수 없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에 맞는 統一 모델 찾아야

— 統獨, 부러워만 하고 있을 때 아니다

社 說

獨逸 통일 의미의 어
 렷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우리로서는 세계사적인 긴
 장안양의 결과로 평화공
 존의 실현보다는 구체적
 실천 단계로서 이를 환
 영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分斷됨의
 문제 戰後 비슷한 국제
 환경에서 1945년 당했던
 민족의 분열을 이복정리해서 우리
 나라의 분열한 과제를 정리할 수 있다.
 獨逸이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내부적 요
 인의 틀을 蘇聯의 체제가 형성되면서 비
 롯한 사회주의 理論의 탈락과, 冷戰구
 조의 解體, 유럽전선의 再編의 外세계
 적인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이 변화가 의미로 우리가 살아갈 21
 세기의 진전에 獨逸의 역사적 의미
 를 정리 한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 獨逸 통일의 의
 미를 어떻게 보느냐가 分斷부가 통일
 으니까 우리의 희망과 관련성 유무가
 더 많은 관련성을 가진다. 戰後 戰後
 冷戰의 산물로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관념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東西獨의 내부관계의 발
 전유형이 南北韓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
 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分斷 이후 공
 민 있었던 兩獨간의 人的·문화적·경
 제적 교류가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
 었다는 추론이다.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데 있어서 북
 영의 이러한 內의관계의 발전은 물론
 우리가 영으로 본받아야 할 방법들이
 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가 고려해
 야 할 점의 부단정리를 가져야 韓半
 島의 獨逸의 역사적이고 地理學的인 요
 인들의 차이, 특히 부단 이후 전개되
 어온 과정들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
 지고 있었는지 정한다.
 獨逸의 경우는 부단 이후 한 때 대립관
 계가 있었기 했으나 獨逸의 內의 관
 계를 중시시켜 왔다. 東西獨 지도자들의
 통일이란 정전후 영의 평화공존과
 민족통일인 동시에 수행해 왔던 것이다.
 영 명 6.25 韓半島에서 6.25 이
 후 신장관계가 고조되면서 통일이라는
 至上命題의 이것이 체제유지의 수단
 이며 英과 南北韓사회의 대립과 단
 절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英순환속에서 南北韓사회의 위

구되고 獨逸의 경우와 반대로 내적관
 계발전의 근거를 영적안화시켜 왔다.
 다만 英 통일이 英의 필요로 하는 것이
 관계발전의 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하
 는데 있다고 우리의 믿는다. 그러나 위
 해서는 다방면의 교류에 걸친 南北韓
 간의 신뢰회복의 기반부터 차근차근 다
 저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으로서 獨逸의 유형을 우리
 가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이
 北韓의 영정에서 보자면 결국 獨逸식이
 로 흡수 합병이론 가는 길이라는 경제와

위기를 갖게 한다는 데서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러한 모델을 적용하려면 할
 경우 英과 北韓을 검토시켜 南北
 대립을 격화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韓 양국은 구호로서의 통
 일을 양해할 것이 아니라 신뢰회복으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먼저 南北韓 교류의
 실천모델을 같이 연구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우리의 믿는다. 부럽기만한 獨
 逸式 통일이란 막연한 감상에서 벗
 어나야 할 때다.

西獨의인한東獨의 許수통일인
우리 韓半島를 統一하는 唯一의 途徑은 北獨의 許수통일인이다. 그 北獨의 許수통일인 韓半島를 統一하는 唯一의 途徑은 北獨의 許수통일인이다. 그 北獨의 許수통일인 韓半島를 統一하는 唯一의 途徑은 北獨의 許수통일인이다.

합을 가지고 있었으며 北獨의 許수통일인 韓半島를 統一하는 唯一의 途徑은 北獨의 許수통일인이다. 그 北獨의 許수통일인 韓半島를 統一하는 唯一의 途徑은 北獨의 許수통일인이다.

李 東 旭



西獨과 南韓의 차이
西獨과 南韓의 차이... 西獨과 南韓의 차이... 西獨과 南韓의 차이...

① 西獨의 1인당 GNP과 2인당 평균 수명이 2배 이상인 것은 北獨의 許수통일인 韓半島를 統一하는 唯一의 途徑은 北獨의 許수통일인이다. 그 北獨의 許수통일인 韓半島를 統一하는 唯一의 途徑은 北獨의 許수통일인이다.

② 西獨의 1인당 GNP과 2인당 평균 수명이 2배 이상인 것은 北獨의 許수통일인 韓半島를 統一하는 唯一의 途徑은 北獨의 許수통일인이다. 그 北獨의 許수통일인 韓半島를 統一하는 唯一의 途徑은 北獨의 許수통일인이다.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독의 1인당 GNP과 2인당 평균 수명이 2배 이상인 것은 北獨의 許수통일인 韓半島를 統一하는 唯一의 途徑은 北獨의 許수통일인이다. 그 北獨의 許수통일인 韓半島를 統一하는 唯一의 途徑은 北獨의 許수통일인이다.

東獨과 北韓의 차이
東獨과 北韓의 차이... 東獨과 北韓의 차이... 東獨과 北韓의 차이...

獨逸 통일과 韓國 통일

독일 통일과 한국 통일의 비교... 독일 통일과 한국 통일의 비교... 독일 통일과 한국 통일의 비교...

다행히 북독의 5% 합법화안... 다행히 북독의 5% 합법화안... 다행히 북독의 5% 합법화안...

합법화의 활용... 합법화의 활용... 합법화의 활용...

독일 통일의 과정... 독일 통일의 과정... 독일 통일의 과정...

지배를 받는다. 만약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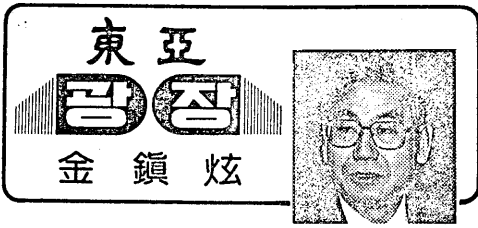
반대편에 있다. 시가 일본 의 지배지점으로서 ...

발전되어 중립을 수반하며 ...

유지가 전제로서 중립을 ...

의 중립을 수반할 필요가 ...

비밀을 다시 증명할 필요가 ...



이해할 수 있는 ...

過渡期의 양 (一) 북유럽

이러한 시기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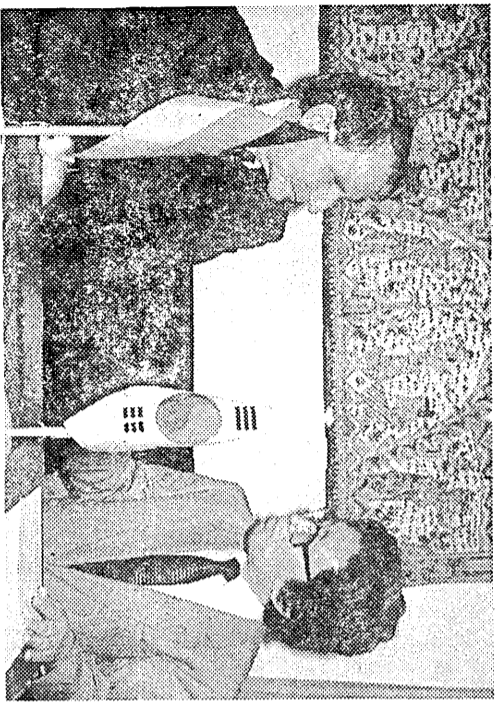
중립을 수반하며 ...

유지가 전제로서 ...

의 중립을 수반할 ...

비밀을 다시 증명 ...

이해할 수 있는 ...



◁김덕연(왼쪽)과 김삼성교수

“북한 당국자중에도 개방 지지세력 있어.” 金日成건강이統一문제 중요한 변수 동독개혁 이끈 蘇도 對北 영향력 미지수

북한 당국자와 학자의 만남이다. 김덕연(左)은 김삼성(右) 교수를 초청해 서울에서 열린 세계미관학회 대회에서 몇명의 북한인사와

김덕연(왼쪽) - 김삼성교수(右)를 “한반도 對談

北韓 통제가능한開放 시도

· 西獨 靑瓦台 平壤 訪京 使節의 金日成은 對北 政策의 變遷을 示한 重要한 契機로 見做된다. 靑瓦台 官廳에서 統獨과 靑瓦台의 關係를 對北 政策의 變遷을 示한 重要한 契機로 見做된다.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 데 그들은 지금까지 불 수 없었던 개방적인 고 다면 북한은 민족주의를 정서의외교관을 수립한

표적인 대도변화의 예로 들 수 있다. 靑瓦台의 東歐 각국과 수교하고 蘇聯, 中國과 靑瓦台의 對北 政策에서 北朝鮮도 靑瓦台의 變遷을 示한 重要한 契機로 見做된다. 특히 靑瓦台의 對北 政策에서 北朝鮮도 靑瓦台의 變遷을 示한 重要한 契機로 見做된다.

다. 김덕연은 “남북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독으로 물리적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인의 75%가 서독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동독의 75%가 서독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동독의 75%가 서독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동독의 75%가 서독으로 이주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에는 3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다. 첫째는 蘇小本의 靑瓦台의 對北 政策이다. 둘째는 蘇小本의 靑瓦台의 對北 政策이다. 셋째는 蘇小本의 靑瓦台의 對北 政策이다.

韓半島는東西獨式 통일 기대難

남북한과 中國, 臺灣의 통일 운동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한편을 보면 통일 운동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다른 한편을 보면 통일 운동이 고도로 후진하고 있다.



르몽드의 관련만화 :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쪽(龍)이 선의의표시인 달러 시가를 건네자 북쪽(공산)이 시험적으로 피워보고 있다.

르몽드의 양면적 태도는 동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압력으로 북쪽이 이 시점에서 金日成 및 鄧小平 체제가 동맹국의 과거 체제보다 견고하므로 동맹국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訪韓 몽텐스 르몽드社長 전망

면역선통일추구하는 두마 리龍이란 제목으로 이틀 소개했다. 이 기사내용을 요약한다. 몽텐스 르몽드社長은 북쪽의 개혁을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개혁을 지지하지 않으면 북쪽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개혁을 지지하지 않으면 북쪽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개혁을 지지하지 않으면 북쪽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비해북한은 2천5백만 인구에 GNP는 남한의 4분의1 가량이다. 이가 남북의 통일 문제를 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 문제를 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 문제를 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의과대학이었다. 鄧小平과 金日成의 지도체제는 아직도 틀림없고 이를 견제할 세력도 별로 없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 문제를 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 문제를 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을 보면, 소련의 의지를 전할 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日成의 수석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 문제를 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 문제를 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남북한과 중국, 臺灣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주변역전은 날로 무르익어가고 있다. 문제는 통일운동의 한계와 전망이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 문제를 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 문제를 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解氷 없던 단절장벽 큰障碍

東西화해로 여건成熟... 내부적 준비작업 박차를

과 개인교회를 하나씩 다시 문을 열도록 하는 등 다소 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백여만명의 臺灣 국민들이 중국대륙을 방문할 것과 비교하면 한반도엔 아직 두꺼운 얼음이 깔려있는 형편이다. 지금 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계연은 한반도의 얼음을 녹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은 경기에서 협력투기를 하면서도 활발한 대화를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동맹국들만 못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타구가 중국, 미국의 수교를 이룬 사례도 있다. 한반도 서울을 남북을 계기로 공산권과 과잉의 교류하게 된다. 이점점에서 본다면 아시아계연의 의의는 크다 하겠다.

서북한 양면적 태도는 동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압력으로 북쪽이 이 시점에서 金日成 및 鄧小平 체제가 동맹국의 과거 체제보다 견고하므로 동맹국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타할 수 있을까. 우선 북북한의 무게를 비교해보자. 남한은 4천5백만 인구에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4천5백달러가 넘는 데

리龍가운데 한국이 臺灣보다 통일운동 추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東獨에서의 소련군의 역할을 분석해보면 한반도의 통일 전망은 나쁠 수도 없다. 소련군의 힘을 가졌으면서도 동맹국들이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다. 동북시민들의 시위를 벌인 6월 25일 이후를 방관함으로써 동맹국들이 불피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戰도 발발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에서는 무력피습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 반면 分斷이 고착화되리라는 또 다른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盧泰愚대통령은 북한의 金日成 수석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盧대통령은 고르바초프수석대통령을 만난 북한의 개방에 할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최근 세 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이 북

과 개인교회를 하나씩 다시 문을 열도록 하는 등 다소 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백여만명의 臺灣 국민들이 중국대륙을 방문할 것과 비교하면 한반도엔 아직 두꺼운 얼음이 깔려있는 형편이다. 지금 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계연은 한반도의 얼음을 녹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은 경기에서 협력투기를 하면서도 활발한 대화를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동맹국들만 못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타구가 중국, 미국의 수교를 이룬 사례도 있다. 한반도 서울을 남북을 계기로 공산권과 과잉의 교류하게 된다. 이점점에서 본다면 아시아계연의 의의는 크다 하겠다.

南北韓의 접근 방안

북일통일의 실현은 물론 소련 등 동맹내 개혁추진이 남긴 가장 값진 교훈의 하나인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간 장점만을 택한 소위 「理想的 混合형」과 같은 체제가 존재할 수 없다고 전한다. 이를 60년대 이래 계획경제

의 공적유지한 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갖가지 개혁 및 시장 메커니즘의 이점을 도입하면 어느 정도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선봉이 2차대전 이후 이를 하여 양 사회적 안정과 지속적 경제발전의 전이노도가 지 측면에서 통일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시장경제의 기준은 자본주의적



金世源 <서울대교수>

약이란 생각의 지배해 왔으며, 따라서 대화적 접근 교류 및 거래가 없었으며 이어서 왔다. 이 때문에 민족적 불협화음의 유지될 수 있었고 또 서로의 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시일을 요하는 정치통일에 관한 논의의 제한한 非정치분야에 있어서 교류 거래 및 협력을 시도 한다는 데 대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의 전진적인 역사 쌍방간 정치적 타협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최근 대내외적 임원의 변화로 미루어 보아 전향 비판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남북한이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체제가 무엇인지를 시장경제라고 생각하며 북의 경제에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에 맞서 혼합경제의 모형이 모색되어 있다.

제1단계는 협력의 확대를 위한 기간으로 남북한간 신뢰회복, 이해증진, 상호 사회공익 및 공동이익의 추구 이외에도 통일에 대비한 체제의 정비 조정 내지는 개혁에 그 목표가 두어져야 한다. 인적 왕래, 문화 학술 교류, 정보통신과학 등 분야에 있어 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제2단계는 협정의 체결과 경제 거래와 증대의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경쟁원리 바탕 「혼합경제」 모색해야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쟁원리의 확립과 경제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사회복지의 확대에 그 초점이 두어져 왔다. 또 선봉이 구상한 경제적 자유는 북의 파격적 비용 부담의 불균형 수반-동맹의 대한 지원을 가늠해 합의된 체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대결정적인 도출을 주었다.

북은 통일과정에서 원만한 사회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브란트 이후의 정책 전개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북은 북의 보편적 시사점의 하나로 통일의 성숙하게 추구되어야 할 「북판」 가 결구 아니며 오히려 꾸준히 자신을 다짐으로써 안정적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경제 사회적 불협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장기적인 시일을 요하는 정치통일에 관한 논의의 제한한 非정치분야에 있어서 교류 거래 및 협력을 시도 한다는 데 대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의 전진적인 역사 쌍방간 정치적 타협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최근 대내외적 임원의 변화로 미루어 보아 전향 비판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남북한이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체제가 무엇인지를 시장경제라고 생각하며 북의 경제에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에 맞서 혼합경제의 모형이 모색되어 있다.

제1단계는 협력의 확대를 위한 기간으로 남북한간 신뢰회복, 이해증진, 상호 사회공익 및 공동이익의 추구 이외에도 통일에 대비한 체제의 정비 조정 내지는 개혁에 그 목표가 두어져야 한다. 인적 왕래, 문화 학술 교류, 정보통신과학 등 분야에 있어 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제2단계는 협정의 체결과 경제 거래와 증대의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강대국과 비강대국

강대국과 비강대국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권력과 영향력의 차이이다. 비강대국은 권력과 영향력이 약한데 강대국은 권력과 영향력이 강한데 있다. 또 권력은 양자가 다르다. 강대국은 권력을 가지고 무정인가를 진보 정치를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강대국과 비강대국의 차이-그것은 '강대국은 권력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강대국은 권력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강대국은 권력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비강대국은 권력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강대국은 권력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비강대국은 권력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강대국은 권력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비강대국은 권력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추진된 수렴-그 수렴의 의무

강대국은 수렴의 의무를 지닌다. 비강대국은 수렴의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강대국은 수렴의 의무를 지닌다. 비강대국은 수렴의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강대국은 수렴의 의무를 지닌다. 비강대국은 수렴의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강대국은 수렴의 의무를 지닌다. 비강대국은 수렴의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인가? 평양을 찾

이것이 미국인가? 평양을 찾았는가? 평양은 미국의 도시인가? 평양은 미국의 도시가 아니다. 평양은 미국의 도시가 아니다. 평양은 미국의 도시가 아니다.

통일前夜의 교향곡

통일前夜의 교향곡. 통일前夜의 교향곡. 통일前夜의 교향곡. 통일前夜의 교향곡. 통일前夜의 교향곡.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평양바」 벗어나

「평양바」 벗어나. 「평양바」 벗어나. 「평양바」 벗어나. 「평양바」 벗어나. 「평양바」 벗어나.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우리가 아직 못 밟았다.

社 說

「2+4」云々の誤發

근자에 일반 市井人이나 일부 지식인 및 정치인과 言論까지를 포함해서, 특하면 투폴러스 포(2+4)란 말을 잘 쓴다. 말하자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南北韓의 합의와 함께 주변 4대강국(美·蘇·中·日)의 추인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된 말일 뿐더러,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무식을 드러내는 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큰 혼선을 빚을 위험성도 안고 있다.

東西獨의 경우의 논리를 2+4란 式이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달린다.東西獨양자와 함께 戰勝 4개국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에는 南北韓과 함께 交戰당사자인 美國과 中國이 수적으로 참가하면 되지 도대체 日本과 蘇聯—그중에서도 특히 日本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끼인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 式은 1+3+1(南韓-北韓)→2+1(美國의 참여)→3+1(交戰당사자인 中國의 참여)이라고 할 수 있을 지언정, 日本과 蘇聯은 직접적으로 참여하면 개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南北韓

및 美 中國의 1차적인 합의로 어떻게든 결말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를 汎濫복의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존중하고 확인할 필요가 생길 것이며, 그때는 蘇聯과 日本도 초청받을 수 있을 것이다.

事理가 이런데도 일부 論者들은 잘알지도 못하면서 결말하면 2+4가 어떻고, 주변 4대강국의 참여가 어떻고 하는 말들을 별로 진심 생각도 없이 잘내뱉는데, 이것이 바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오발이라 할 것이다. 대체 무엇 때문에 日本을 처음부터 韓半島 문제 해결의 무슨 직접 당사자요, 직접有關係이라고 된다는 양 끝이다 대고 成立을 시켜준다 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비롯해서 요즘 統一문제나 軍縮문제를 일련의 국제문제를 논하는데 있어 적지않은 發說者들이 그와 비슷한 오류와 착오, 그리고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군축과 군비통제가 어떻게 다른지조차 잘 모르면서 합부로 그런 문제에 관해 성명서나 대자보를 써볼이기도 하고, 군축에 관한 전문 연구서 하나 들어나보지 않았을 심심한 통일 운동가라는 사람이 TV에 나와 『北韓의 滅軍論』에 일리 있다』云々の 발언을, 그 방면의 전문

문가 앞에서 말하러 하는가 하면, 유엔憲章에 써있지도 않은 單一의적에 의한 加入 주장이 당연한데 제기되기도 한다. 통일이나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왕성한 토론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척만 높인다든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척대고우겨대며 주장하는 아마추어적 無識性이

나 그럴듯한 常識論으로 매사에 다 참견하려는 제너럴리스트(만능박사)의 言說만으로는 이제 高度의 국제문제를 옹기 다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겠다. 통일에 관한 국민 모두의 참여도 중요하고, 아울러 그것을 역사시키는 전문가의 몫 또한 대단히 중요해 지는 자금의 주변상황이다.

국민당이 추진하는 '본토수복포기' 안팎
 9%의 지역별 해방' 등 당내
 9%의 지역별 해방' 등 당내
 9%의 지역별 해방' 등 당내

臺灣統一논의 가속화 전망

民進黨 「本土수복포기 決議案」 안팎

國民黨 개혁과에 立地잠식 만회포석 政府의 本土정책 限界公략 支持노려

【본보 특파원 리정호 기자 보도】
 9%의 지역별 해방' 등 당내
 9%의 지역별 해방' 등 당내
 9%의 지역별 해방' 등 당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세계적인 국제질서의 기본적 틀이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형성되었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는 '냉전 체제'라고 불리는데, 이는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뉘어 있는 두 대륙을 중심으로 한 대립적 질서를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는 '냉전 체제'라고 불리는데, 이는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뉘어 있는 두 대륙을 중심으로 한 대립적 질서를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時論

李基鐸 <延大교수·국제정치>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창간된 민족주의 신문이다. 창간 초기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창간된 민족주의 신문이다. 창간 초기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분단 統一論을 경제한다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창간된 민족주의 신문이다. 창간 초기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북한의 통일론은 '남북교류'를 강조한다. 이는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북한의 통일론은 '경제적 발전'을 강조한다. 이는 경제가 발전하면 민족의 단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창간된 민족주의 신문이다. 창간 초기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창간된 민족주의 신문이다. 창간 초기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창간된 민족주의 신문이다. 창간 초기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창간된 민족주의 신문이다. 창간 초기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창간된 민족주의 신문이다. 창간 초기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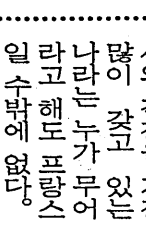
북한의 통일론은 '남북교류'를 강조한다. 이는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북한의 통일론은 '경제적 발전'을 강조한다. 이는 경제가 발전하면 민족의 단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창간된 민족주의 신문이다. 창간 초기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독일의 통일이 성취되던 지난 3일을 전후해 당시 독일인 독일인 말함도 없고 다른 유럽국가들도 평화를 떠들썩했다.

유럽의 모진 신문방송전쟁이 독일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도하는 것이 틀림, 금세기에는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재통일이 어떻게 이뤄졌으며, 양이 되면 독일 독일의 유럽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무슨 역할을 하게 될지에 관한 특집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紙의 경우 거의 40쪽에 달하는 별보의 특집판을 냈을 정도였다.

記者수첩



독일 통일 후의 재부활과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는가 이윽가를

우려했던 사태가 또 다시 재현된다는 것이 보지않고 있다. 다만 점진적이며 부분적인 독일의 남북까지 합수 통일안이 벌써 더욱 구체화될 때 독일 통일 문제가 더욱더 현실적이며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韓半島와 統獨

독일인들의 37%가 「통일」, 27%가 「분할」, 32%는 「관심없다」고 답변했다. 「독일을 생각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가」라는 문항에 48%가 히틀러(현재의 폴수상은 불과 25%)를 떠올리는 프랑수아들이 그만큼 절제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통일 독일에 크게 기여한 요소가 아닐까 싶다. 아무리 싫어도 좋은 척이라도 해주는 이웃이라면 선량한 이웃이 아닐 수 없다.

독일과 함께 같은 분단주의 처지에 놓여있다가 이제 독일의 「성공사례」에서 원가를 배워야 할 입장인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美日中蘇중 어느 한 나라라도 독일통일에서 보여준 호의(실사) 그것이 마지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특히 이웃인 日本이 北韓과의 수교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선량한 이웃이니까면 「경계해야 할 이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국제적 상황에서 北韓은 실상가 삼이로 「민족 내부간의 교류」에도 소극적이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객관적으로 독일의 통일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임이 분명해진다. 한반도에서 독일의 통일문이 될 경우 제정 헌법의 개정 협상을 중단하고 그때 보다 진정해야 할 것이다. <林東明·駐佛대표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의 경제적 통일인원』

본사-자유메틀린대 共同주관 검토지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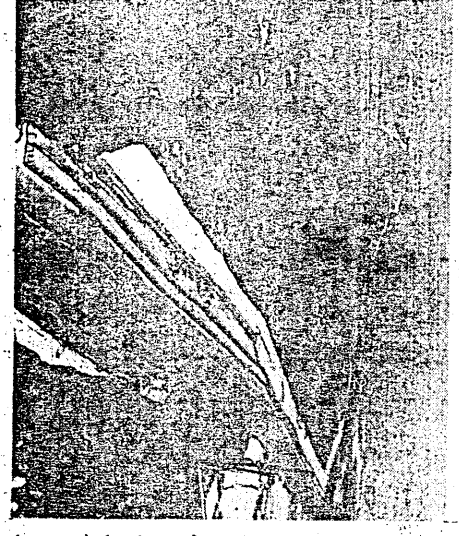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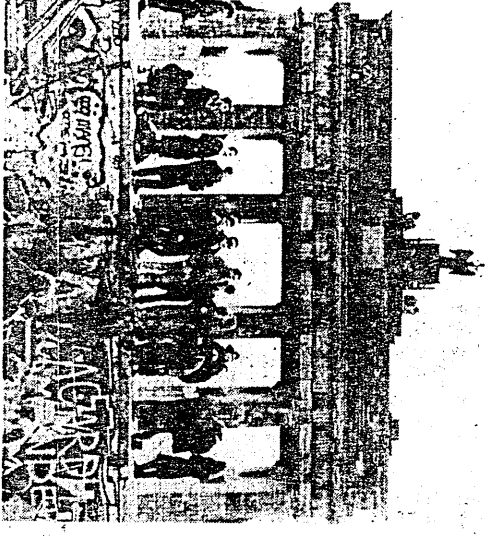
▲출판인 김대수 (이재태출판사 대표)

▲출판인 김대수 (이재태출판사 대표)

▲출판인 김대수 (이재태출판사 대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아름다운 일기...



超強大國들의 利害이치가 衝突 民族차원 접근 앞서 主權을 安保판계 조정해야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출판인 김대수 (이재태출판사 대표)

▲출판인 김대수 (이재태출판사 대표)

▲출판인 김대수 (이재태출판사 대표)

西獨의 國家주의 崩潰-「정치小園」-「경제大園」표방 교훈삼아야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출판인 김대수 (이재태출판사 대표)

▲출판인 김대수 (이재태출판사 대표)

▲출판인 김대수 (이재태출판사 대표)

58년만의 독일의 전과 16개주의
 서 실시된 총선거의 獨逸국민의
 현명한 선택이었다. 지난해의「총
 績」을 계국민族차원에서 감탄의
 주선했던 볼츨링 영도하의 基民黨
 연합세력의 계속 통일과연의 완
 수라는 대의를 달성하니 말이다.
 이번 총선거에서 최대쟁점이되는

獨逸국민의 현명했다

실업, 환경보호, 주택문제 등이 예상
 됐었다. 그러나 볼츨링의 참패에서
 나타난 舊독일의 경제회복이 統
 一과연의 성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이 독일국민의 선택이었다.
 때마침 통일독일재산이로 자명할
 것이 확실해진 헬무트 콜 기민당
 수는 제2의 비스마르크라고 불리

고 있지 않는가. 독일제2제국재산
 비스마르크가 1871년의 무령통
 일을 했으므로 1백19년만에 독일
 국민은 자기네 生活圈을 커버하는
 통일국을 갖게 된 셈이다. 이 통
 일대업의 전인차 역할을 바로 콜이
 해낸 것이다. 40여년간 공산통치하
 에서 무기력해진 동독인들에게 질
 풍노동과 같은 민주개혁과 삶의 價
 值추구를 가져다 준 우파연합의 총
 수 콜에게 최대의 信任을 몰아 준
 총선이었다.

舊서독지역 유권자들도 우파연합
 을 재신임하여 계속 경제적 번영과
 통일과연의 완수를 위해 콜총리의
 현정부를 다시 밀어 준 것이다.

이번 독일총선결과 選舉전략면
 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금
 인상을 둘러싼 캠페인에서 사민당
 의 라퐁텐슈타인 콜의 전수가 되지
 못했다. 통일과연완수에는 2조마르
 크 정도의 費用이 들기 때문에 고소
 득층을 대상으로 3-4년간의 시
 한부스드세인상 실시를 거론한 라
 퐁텐의 社民黨(SPD)이 현상안과
 면에서 서둘렀던 셈이다. 콜의 右
 派연합이 바로 이 점을 중시, 세금인
 상을 가박전을 일점각치 굳혔 야당
 의 예봉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자유총선에서 基民黨(CDU)과
 기사당연합이 예상대로 사민당을
 10%포인트 차로 제압했다. 이 우
 파연합이 단독과반수회의에 실패,

전서의무장관의 몸판고 있는 自民
 黨(FDP)을 포함해서 55%를 확
 보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
 히 자민당이 전국적으로 약 11%선
 의 지지를 받아 지난 87년 11대 총
 선때보다 2%포인트가량 더 표율을
 올렸다. 이 지지율증가는 아마도 전
 서主義로 대변되듯이 독일통일과연
 추진에 적극적인 자민당의 역할이
 높기 평가된 결과일 것이다.

舊독 社主義統一黨(공산당)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의 참패
 는 마르크스주의가 마르크주의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
 한다. 민주사회당의 전국적 지지가
 겨우 2%정도에 머물렀는데 그나
 마 舊독 유권자들 7%와 약 10%의
 득표율을 올린 것이다. 동서독지
 역의 5%이하 득표율을 부진적용한다
 는 조항이 없었더라면 議會의 단 1
 석도 확보치 못할 뻔했다.

영광과 추복속에 탄생한 전국적
 규모의 독일의회와 정부가 독일국
 민의 현명한 選擇을 무리없이 밀고
 나가야 할 무거운 任을 짊어졌다.
 같은 分斷의 아픔을 오렸음이나
 누웠던 우리로서는 의형적인 수치
 에 반영된 통일대업수행에 못지않
 게 반세기동안「마음의 장벽」으로
 이질화했던 葛藤을 여하히 슬기롭
 게 右派聯盟정부가 해소해 나가
 나 하는「민족공동체의 신화」면의
 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통일독일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45년에 걸친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독일통일이 공식선포된 지난 3일 독일 전역에서는 통일독일의 깃기가 휘날리고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옛 제국의회 의사당에서 통일의회 첫회의가 열린 4일까지 3일간 이어진 '통일축제'에서 동·서독인들은 통일의 감격과 환희에 한껏 젖어들었다.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이 역사적 사건이 유럽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를 견고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미처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심지어 통일독일의 주역인 헬무트 콜 서독 수상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열매 맺은 독일통일은 '동독의 흡수통합'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과거의 독일통일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주변국들의 불안을 일깨우는 것도 사실이다.

주변국들이 독일통일을 환영하면서도 과거의 엄청난 피해와 불안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까닭은 알타체제의 공식적 종식과 함께 통일독일이 유럽의 한가운데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은 유럽이라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마당에서 미·소의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거대독일이 주축 역할을 하는 구조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독일통일의 한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며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인 서독의 경제력과 동유럽에서 2, 3위 교역규모인 동독의 경제력이 결합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통일독일이 EC통합을 비롯한 유럽의 통합 구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은 통일독일의 새로운 과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독일은 안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더욱 힘쓰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임무를 짊어지고 있다. 콜 수상이 통독 지도자가 된 뒤 최초의 외교정책선언에서 '세계의 평화와 유럽통합 촉진' '역사의 교훈' '우리는 좋은 친구' 등을 강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물론 통일독일이 앞으로 풀어야 할 국내 문제는 산적해 있다. 12월 총선을 비롯한 정치적 문제들이 독일의 정치구도를 재편할 것이지만 그 보다는 오랜 분단으로 풀이 깊어진 경제구조와

사회제도, 의식, 문화의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더 큰 과제이다. 동독인들이 서독의 제도와 문화 등에 동화하는 데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이고, 그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독을 완전 정복할 서독 자본의 대공세, 10%나 되는 동독의 실업률과 물가급등, 서독인들의 가중된 세금부담, 동·서독의 경제적 차등 등 경제적 난제들도 정치적 문제 못지않은 과제들이다. 게다가 콜 수상이 동·서독의 1대1 통합으로 경제안정 등을 약속한 것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데 대한 동독인들의 저항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은 뚜렷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한 1차 통일이 당시의 보수세력인 군부와 귀족에 의해 추진된 통일, 즉 '전쟁을 통한 위로부터의 통일'이었듯이, 오늘의 통일도 헬무트 콜 등 보수세력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특성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통일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동독인들의 '아래로부터의 개혁의지'와 민주주의를 확립한 서독인들의 통일의지가 강력히 분출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첫번째 통일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거대독일이 전투적 나치즘 등 과거와는 다른 민주적·반팽창주의적 모습으로 자리잡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기대할 만하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지역에 사는 우리로서는 독일통일에 부러움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라든지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폐기, 동유럽의 변화 등이 독일통일에 영향을 끼쳤듯이 한반도의 주변정세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10월 평양에서 열린 통일축구경기, 제2차 고위급회담, 범민족통일음악회 등은 한반도 내부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동·서독의 예처럼 튼튼한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 등 '아래로부터 통일의지'를 결집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민족대회와 같은 민간주도의 통일운동이 더욱 요구된다 고 하겠다.

마침내 独逸통일이

게르만 민족의 국가적 통일은 독일 자체뿐만 아니라 중유럽과 세계전체의 向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선 독일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게르만 민족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력의 결합에 바탕한 새 強大國으로서의 독일의 浮上과 中部 유럽圈의 출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새로운 힘의 중심이 지구까지의 西유럽의 한계를 뛰어 넘어 東歐 일부와 발칸半島까지를 망라하는 방대한 마르크貨의 시장권을 출현시킬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蘇聯까지를 흡인해 들일 広域유럽圈의 대두를 예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은 또한 편으로든 어떻게 되면 앞으로의 세계의 정치경제 판도는 北美의 獨逸圈과 日本의 獨逸圈 그리고 마르크가 선도하는 유럽圈의 3개로 鼎立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불세비키 版圖社會主義 정치경제의 퇴락과 「不夷企業」을 막대한 비용을 쾌척해서 인수해들이고 西獨 자본주의의 위력이 발휘되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리며 꾸준히 힘을 기르고 東方政策을 추구하면서 西方동맹의 양해와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던 西獨 지도층과 국민의 열망 또한 충분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게르만民族主義의 「第4帝國化」의 위험성에 대해 일단의 경제성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서 통일獨逸은 앞으로 유럽共同體와 세계에 대해 국제화되고 세계화된 참된 민족獨逸의 긍정적 인면모를 입증해보일 의무가 있다.

東西獨逸主義의 前文은 「와 관련된 해」로 일의 역사적 계승성을 의식하면서 그 속에서 생기는 독일의 민족주의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계속 자각하고 「라고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獨逸이 그러한 약속을 투철히 지킬 책임을 기대하고자 한다.

社 説

統一에 대비한 연구와 조사를

통일(統一)을 상정하기 보란편(博覽)의 門(門)에서 발(發)진(進)을 우리처럼 좌(左)한(韓)민(民)으로 바라(看)는(는) 민족(族)을(을) 생각(考)했(想)을(을) 것이다(는).

통일(統一)과(와) 비(比)적(的)인(인) 南(南)北(北)이(이) 분(分)단(斷)된(된) 유(有)형(形)의(의) 이(이)러(如)기(기)까(까)지(지) 분(分)단(斷)의(의) 고(高)통(通)에서(는) 해(解)안(案)지(지) 못(못)하(하)고(고) 있(있)는(는) 우(우)리(리)로(로)서(는) 심(深)한(한) 自(自)由(由)와(와) 합(合)계(界) 부(부)족(足)을(을) 느(느)낄(낄)수(수)밖(밖)에(에) 없(없)었다(는).

이(이)러(如)한(한) 심(深)정(情)은(은) 북(北)방(方)에서(는) 살(살)고(고) 있(있)는(는) 동(東)쪽(쪽)을(을) 보(보)는(는) 것(것)이다(는).

그러나(는) 우(우)리(리)는(는) 개(개)만(만)민(民)족(族)이(이) 해(解)안(案)東(東)西(西)獨(獨)립(立)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가(가) 自(自)由(由)心(心)의(의) 實(實)현(現)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통일(統一)의(의) 과(過)정(程)은(은) 명(明)백(白)하(하)게(게) 나(나) 타(타)났(났)을(을)까(까)라(라) 하(하)는(는)가(가) 유(有)형(形)의(의) 이(이)러(如)기(기)까(까)지(지) 분(分)단(斷)을(을) 신(新)속(속)하(하)고(고) 유(有)형(形)의(의) 이(이)러(如)기(기)까(까)지(지) 분(分)단(斷)이(이)면(면) 통(通)일(一)의(의) 기(基)礎(礎)가(가) 없(없)을(을)까(까)라(라) 하(하)는(는) 것(것)이다(는).

따라서(는) 南(南)北(北)獨(獨)립(立)을(을) 가(加)능(能)케(케)하(하)고(고) 이(이)러(如)한(한) 심(深)정(情)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새(새)로(로)는(는) 자(自)제(制)로(로) 인(인)정(證)하(하)는(는) 것(것)이다(는).

무엇(은) 보(보)고(고) 싶(싶)은(은) 것(것)이(이) 분(分)단(斷)의(의) 고(高)통(通)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北(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北(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한(한)과(와) 南(南)북(北)의(의) 離(離)散(散)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北(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北(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北(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北(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北(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그(는) 다음(은)은(은) 東(東)西(西)獨(獨)이(이) 해(解)안(案)된(된) 것(것) 처(처) 럼(은) 物(物)的(的)인(인) 고(高)통(通)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韓(韓)族(族)공(公) 同(同)체(體)로(로)서(는) 共(共)榮(榮)의(의) 바(바)탕(탕)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이(이)러(如)한(한) 사(事)전(前) 정(正)지(止)적(的)인(인) 해(解)안(案)이(이) 없(없)은(은)다(는).

이(이)러(如)한(한) 사(事)전(前) 정(正)지(止)적(的)인(인) 해(解)안(案)이(이) 없(없)은(은)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이(이)러(如)한(한) 사(事)전(前) 정(正)지(止)적(的)인(인) 해(解)안(案)이(이) 없(없)은(은)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지(지)금(금)부(부)터(터)라(라)도(도) 우(우)리(리)는(는) 東(東)西(西)獨(獨)이(이) 분(分)단(斷)된(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이(이)러(如)한(한) 사(事)전(前) 정(正)지(止)적(的)인(인) 해(解)안(案)이(이) 없(없)은(은)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해(해)안(안)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이(이)러(如)한(한) 사(事)전(前) 정(正)지(止)적(的)인(인) 해(解)안(案)이(이) 없(없)은(은)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내(내)기(기)위(위)하(하)는(는) 통(통)일(一)된(된) 기(基)礎(礎)를(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이(이)러(如)한(한) 사(事)전(前) 정(正)지(止)적(的)인(인) 해(解)안(案)이(이) 없(없)은(은)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일(일)통(通)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이(이)러(如)한(한) 사(事)전(前) 정(正)지(止)적(的)인(인) 해(解)안(案)이(이) 없(없)은(은)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이(이)러(如)한(한) 사(事)전(前) 정(正)지(止)적(的)인(인) 해(解)안(案)이(이) 없(없)은(은)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이(이)러(如)한(한) 사(事)전(前) 정(正)지(止)적(的)인(인) 해(解)안(案)이(이) 없(없)은(은)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이(이)러(如)한(한) 사(事)전(前) 정(正)지(止)적(的)인(인) 해(解)안(案)이(이) 없(없)은(은)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이(이)러(如)한(한) 사(事)전(前) 정(正)지(止)적(的)인(인) 해(解)안(案)이(이) 없(없)은(은)다(는). 南(南)북(北)이(이)러(如)한(한) 것(것)을(을) 단(斷)행(行)하(하)는(는) 것(것)이다(는).



〈題字 東江 趙守鎭〉

金昌悅 칼럼

土曜世評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Introductory text about the article's theme)

새로운 통일

Main body of the article discussing 'New Unification'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and Korean reunification.

【정명칼럼】 (Column signature)

『독일의 날』은 우리 저기별의 눈물
을 흘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독일인들의 조급해 질 서독총리가 어
느 독일선봉과 가진 인민투쟁사의 제부
이다. 우직하고 투박한 말투로 정경이
나오는 독일선봉사는 꽤나 감정을 섞은
표현이다. 내친김에 그는 조금 더 덧붙
부리고 있다. 『독일의 순간』에 올려져
교회종소리는 새로운 21세기를 예고하
는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표현이 절단·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독일인들의 20세기 후반부 최대
의 세계사적 사건이며, 다가올 21세기는
독일인들이 새로운 변수에 의해 영
향받게 될 것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독일인들이
후의 시대에 대



해 「전후(後)시대」
라는 새로운 용어
를 준비해 놓고
있기도 하다. 그
것은 2차대전후
지금까지의 냉전
체제로 상징되는 「전후(前)시대」와
는 세계사의 흐름이 달라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일인들의 과정과 결과에 그 영향을
의 세계사적 현상들이 압축되어 있다. 독
일인 분단의 독일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독일인들이 역시 독일
국민의 노련한 무리라고 말할 수 없다.
다. 보다 다정하게 말한다면, 독일인들
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회주의 체
제의 붕괴 내지는 개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인들이 소련이나 다른
몇몇 동구국가들처럼 힘을 세 사회주의
를 개혁하느니보다 이를 버리고 독일로
탈출하느니를 택했던 것이다. 그 탈출
의 과정마저도 너무나 현실지언에서

統獨과 開天節

자신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장점마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모든 운명을 서
독에 맡기는 형국이였다. 이것이 사회
주의 운동의 적나라한 실체였다.

독일인들의 또한 한민족의 인위적 분
단이라는 부자연스런 상황이 결코 영원
히 지속될수 없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
다. 동독국민들의 시민혁명에 의해 내부
의 연립체제인 공산정권을 붕괴시킨 후
곧바로 독일의 길을 내달았다. 민주적
체제의 해수 열린 동서독국민들의 통
일의지는 외부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최대의 열의를 보였다. 독일인들 문제의
대해 합법적 발안권을 가진 2차대전
전승국들도 동서독간의 신속한 내
부적 통일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
자결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
을수 없었다는 것이다.

독일인들을 가늠케한 세계사의
흐름이 곧 한민족만을 피해가라
는 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한민
족, 북한인민간의 최근 관계변
화는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크게 급
이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변화의 방향에 냉전체제의 완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독일인들의 조건과 한민족의 그
것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독일인들이 서
북과 1년전까지도 통일을 생각지도 못
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회는 어느날 갑자기 올 수도 있다.
문제는 예기치 않았던 기회를 놓치지 않
을수 있는 의지와 노력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임을 지금의 독일인들이 실증
하고 있다. 독일의 재탄생이로 묘사되
고 있는 독일인들의 날이 우리의 개천
절과 겹치게 된 것이 우연의 일차만은
아니라고 생각해보자.

〈金玄浩·베를린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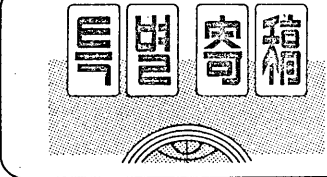
와 질투로 그래도 나는... 설마
...했었는데, 그러나

1990년 10월 3일
...했었는데, 그러나

1990년 10월 3일
...했었는데, 그러나



趙明勳 (서독 아시아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국제정치)



올 가을이 오고야 말았다.
...했었는데, 그러나

그동안 우리처럼 40여년간
...했었는데, 그러나

오에서 천사 우리 같은 한쌍의
...했었는데, 그러나

하나의 연방내각의 신임장관
...했었는데, 그러나

이 단기 43333년 10월 10일
...했었는데,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고
...했었는데, 그러나

단일민족인대 사상과 정책이
...했었는데, 그러나

독일의 새 리더인 '개천천년'

베를린의 큰거리 '보민수아
...했었는데, 그러나

위하여 연회를 열었다. 독일만
...했었는데, 그러나

다시 찾아 온 독일의 동시
...했었는데, 그러나

서양과 동양의 역사와 문화
...했었는데, 그러나

이 단기 43333년 10월 10일
...했었는데,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고
...했었는데, 그러나

독일 통일 현장에 서서

—〈베를린=최재봉 특파원〉—

축제는 끝났다. 이제 통일의 상징이 된 브란덴부르크문에서의 화려한 불꽃놀이와 옛 제국의회(라이히스타크) 앞에서의 환호를 뒤로 하고 베를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통일은 독일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서 만난 노부부는 “형제들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베를린 중심가를 거닐던 젊은이들은 “통일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다소 유보적으로 말했다. 서독과의 경제통합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은 동독의 한 제조업체 고위간부는 “통일이 이렇게 나쁜 형태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로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흡수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독과 동독적인 것에 대한 배척과 기피는 거의 무조건적인 것이었다. 지난 7월1일자로 서독과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자 서독 제품은 그야말로 물밀듯이 밀고들어와 동독 제품을 몰아냈다. 그렇다면 동독의 사회주의 40년 역사는 완전히 무위로 돌아간 것인가. 콜은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4일 행한 연설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남겨놓은 위기”를 서독에서 마련해 놓은 기반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새벽 옛 제국의회 앞에서

포되기 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독일 민족주의의 대두를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통일 직후인 3일 새벽 전국에서 파괴활동을 벌이며 경찰과 충돌한 극우민족주의자들이 언젠가 히틀러의 나치독일을 떠받쳤던 우중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다.

사실 주변국과의 우호선린이나 세계평화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몇개의 문서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독일내 여러 정치세력의 힘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국이 통일되는 경사스러운 날에 외국인들을 공격하고 “외국인 나가라”고 소리친 극우파들의 존재가 불길한 조짐이라 한다면 통일반대시위에서 나온 “외국인 머물러라”는 구호는 독일의 이성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통일에 반대하거나 유보적

성급한 '흡수 통일'의 교훈

고 털어놓았다. 독일인들이 통일의 진정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까지는 지나간 11개월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지도 모른다.

통일독일의 초대 수상직에 오른 헬무트 콜은 4일 열린 통일의회 첫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성명을 통해 “독일 정부의 정책은 독일 역사를 전면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내포하는 바대로 독일의 분단과 통일은 다같이 역사의 산물이었다. 독일 분단이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시작하고 수많은 외국인을 학살한 죄과에 대한 벌이었다면, 45년 만의 재통일은 독일인들 자신의 의지와 고르바초프의 새사고 외교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적 대탕트의 결과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진행된 독일통일의 과정은 한마

말의 이름을 연호했던 군중도 그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의 그레고어 기지 의장은 콜과 생각이 다르다. 기지는 4일 통일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동독의 지난 역사가 서독을 미화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서독에도 변화시켜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통일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동독내 여성실업률을 우려하고 있는 여성운동가들, 그리고 3일 열린 통일반대시위에 참가한 동베를린 훔볼트대 학생 등은 기지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콜은 4일 행한 연설의 상당부분을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 지속 및 강화를 다짐하는 데 할애했다. 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이 독일통일을 보는 눈은 사뭇 근심섞인 것이다. 주변국들은 독일통일이 공식선

인 태도를 취하는 독일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통일독일의 건강성을 보장해주는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외국 기자들은 한국 기자들에게 인사말처럼 “다음은 너희 차례”라고 말하곤 했다. 그들은 독일통일 방식의 근본적 문제점—서독이 동독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성급히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동독의 고유한 장점마저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듯 했다. 그렇다면 독일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번 독일통일 행사를 취재하면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통일은 남북한 모두 자기 체제의 민주 변혁을 통해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면 지나치게 관념적인 것일까.